

**붙임 1**

**4단계 BK21사업 자체평가보고서(인문사회분야 교육연구단)**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양성사업(인문사회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접수번호	-							
사업 분야	사회과학	신청분야	심리/아동/소비자	단위	전국	구분	교육연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심리과학						
	비중(%)	100%						
교육연구 단명	국문)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리과학 교육연구단							
	영문) PSYCHOLOGICAL RESEARCH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SOCIETY							
교육연구 단장	소 속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직 위	교수						
	성명	국문	김 학 진		전화	[REDACTED]		
		영문	HACK JIN KIM		팩스	[REDACTED]		
				이동전화	[REDACTED]			
				E-mail	[REDACTED]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9~21.2)	2차년도 (21.3~22.2)	3차년도 (22.3~23.2)				
	국고지원금	332.3	664.5	674.0				
총 사업기간	2020.9.1.-2027.8.31.(84개월)							
자체평가 대상기간	2021.9.1.-2022.8.31.(12개월)							
<p>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단계 BK21사업』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 년 10월 4 일</p>								
작성자	교육연구단장			김 학 진				



##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사회적 불균형	지속가능성	빈부격차
	심리적 불균형	심리과학	실무전문가
	융합과학	산학연계	사회불평등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p><input type="checkbox"/> 신체항상성-심리적불균형-사회적불균형 간 유기적 상호작용의 통합적인 연구 추진 --&gt;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BK세미나 추진을 통해 전공 간 소통기회 확대,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속가능성 특별 세미나를 통한 교육연구단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들의 유기적 연결성 강화 추진</p> <p><input type="checkbox"/> 첨단과학을 포함한 타 학문 분야들과의 융합을 통한 융합과학의 토대 마련 --&gt;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연구방법론 교육 기회 확대, 국내 타 기관 연구자들과 다양한 타학문 분야와 연계한 융합연구 추진</p> <p><input type="checkbox"/> 융합심리학 연구방법을 토대로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심리과학적 연구전문가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실무전문가 양성 --&gt; 심리과학의 인문사회심리학적 관점과 과학기술적 관점의 융합을 목표로 한 심리융합과학대학원 설립, 임상현장실습 과목을 활용한 엑스틴십 프로그램 추진, 현장 실무전문가 초청 세미나 진행, MOU체결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및 산학연계 프로젝트에 대학원생 참여기회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교육-연구-현장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gt; 대중 강연 및 교양 저서 등을 통한 연구결과 및 지식 공유, 유튜브 채널 및 심리학부/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성과 홍보, 온라인 전공설명회 개최</p>		
교육역량 영역 성과	<p><input type="checkbox"/>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개편: 학·석사 연계과정을 활용한 우수 대학원생 유치, 행동인지신경과학 통합전공 운영,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지원사업을 활용한 우수 학부생 대학원 유치,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을 통한 신입생 선발,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유연화를 위해 석사과정생들의 석·박사 통합과정으로의 전환 기회 확대, 2차년도 동안 총 19건의 융합연구 진행</p> <p><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 확보: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PSY1108),’ ‘정서와 문화(PSY2126)’ 등 융합적 교과프로그램 신설, 학생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제도 시행 및 보상시스템 구축, 대학원생 교육/연구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및 학생상담센터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 활용 확대</p> <p><input type="checkbox"/>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윤리기준 확보: 지난 1년간 참여대학원생은 국제저명 학술지(SCI, SCIE, SSCI, A&amp;HCI)에 28편의 논문 게재, 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참여 기회 확대(1년 간 13건의 국제 공동연구에 16명의 대학원생 참여), 대학원생 국제 교류 활성을 위한 증장기 해외 연수 지원, 대학원생의 해외연구자와의 네트워킹 확대, 국제석학 초청 세미나 개최, 영어논문 교정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및 영어논문작성 관련 비교과 강의 수강기회 확대, 국제적 기준의 윤리교육 강화</p> <p><input type="checkbox"/> 산학교류 및 산학연계 교육 확대: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 및 공공기관들과 총 6건의 MOU체결을 통한 관산학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토대 마련, 교수학습개발원 주최 대학원생 융합연구 공모전 참여 및 수상, 19개의 국내 타 기관 연구자들과 다양한 타학문 분야와 연계한 융합연구 추진, 다양한 산학협력 연구프로젝트 추</p>		

	<p>진, 임상현장실습 과목을 활용한 엑스틴십 프로그램 진행, 사회문제관련 세미나 및 외부 현장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 연구성과의 비즈니스 모형 구현에 기반한 교원창업을 통한 연계 교육 진행. 현재 마음건강케이유(주)를 통해 박사과정생 2명 ██████████ 석박사통합과정생 2명(██████████에게 실습기회를 제공.</p> <p>□ 대학원생 연구수월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웹기반 연구관리 시스템(SONA system)운영 확대, ‘4단계 BK21 심리학 교육연구단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유전분석(Genetic analysis) 워크숍 개최 및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교과 개설을 통한 대학원생 연구방법론 역량 강화 기회 확대, 심리학부가 위치한 건물 내 대학원생을 위한 실질적 연구공간 확보, 데이터과학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교육기회 확대, 우수 연구 성과물 인센티브를 통한 연구 동기 강화</p>
<p>연구역량 영역 성과</p>	<p>□ 사업단 참여 교원 연구성과의 양적/질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 간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14인은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amp;HCD)에 48편(IF평균=4.40), 기타국제학술지에 1편(IF=1.44), 국내등재지에 13편(IF평균=1.46)의 논문 게재, 지난 1년 간 총 25건의 정부연구비 수주(총 약 37억 원 규모)</li> </ul> <p>□ 심리학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지속가능성 융합연구과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적 불균형의 기초심리학적 기제 규명: 도파민 분비와 관련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 감정 추론에 필요한 맥락 정보 이용에 나타나는 개인차 규명 연구, 불공정성에 대한 반응 행동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신경학적 처리 과정 연구, 한국어 동사 어절 재인 과정에 하위 어휘 요인이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엔트로피의 개념을 통해 설명, 자극의 불확실성이 연합학습에 미치는 영향: 수리모델간 비교연구, 변연전 피질이 공포 기억 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역할</li> <li>- 심리적 불균형 모형 연구: 정체성과 심리적 웰빙 간 관련성 연구 및 자존감과 심리적 웰빙 강연, 불안이 인지 통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층간 소음의 심리적 요인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및 소리의 심리학 강연, 창작자 정보에 따른 미적 선호, 연령 별 게임 경험에 따른 인지기능 향상 정도의 차이 연구, 정체성 발달과 내·외적 가치 중심 목표 간 관계, 한국인의 심리적 웰빙을 예측하는 서사 정체성의 증분 타당도, 정신건강 불평등의 현황 기고를 통해 정신건강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현황, 방향성 제시,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자원의 양이 한정적인 때, 집단 간의 자원분배를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색 연구</li> <li>- 사회적 불균형 모형 연구: AR 사용자의 심리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AR 기기 개발 연구, AI의 평가에 AI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경험자의 행동 중단과 지속에 미치는 요인 탐구, 메타버스 이용자의 소비활동 관계 연구</li> <li>-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해결방안 연구: 팬데믹 상황에서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가 표정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불안정 애착과 외도: 관계 욕구 충족의 간접효과, 내러티브를 통한 정체성 형성 평가, 머신러닝을 이용한 개인의 성격 예측, 학습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수퍼비전 제공, 진로 정체성</li> </ul>

	<p>과정과 진로 목표 간의 중단적 연관성, 국제결혼 이주 어머니의 사회인지 능력과 자녀의 사회인지 발달 간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문학적/산업적/정책적 지원: 노년기 활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교육 장면에서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접근법 강연, 3D 형태의 복잡도와 색의 교차감각 연관성, AI가 수집하는 정보와 프라이버시 위협과 걱정 간의 상호작용, 인지신경과학적 관점을 통한 외국어 학습 방법 제시, CEO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심리평가 도입 제안,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 추출과 구매, 사용, 폐기 행동 간의 관계, 공정의 뇌과학적 기원 강연</li> </ul> <p>성인여성의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콘텐츠 온라인 게시의 임상 및 심리사회적 요인</p> <p><input type="checkbox"/>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기획 위원회 운영을 통한 해외 우수교원 특별초빙 추진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정신과 부교수 김소현 교수를 신입교원으로 초빙)</li> <li>- 교원의 연구 질적 향상: 연구교원(Research fellow)제도 활용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강화, 신입교원 책임 수업시수 감면 내규 마련, 유연학기제/flipped class/유연책임시수 등을 통한 교원 연구지원 제도 활용</li> <li>- 연구지원시스템의 선진화: 심리학부 개편으로 단독 행정 시스템 구축</li> <li>- 연구수월성 강화를 위한 대표성과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 마련</li> </ul>
<p><b>달성 성과 요약</b></p>	<p><input type="checkbox"/> 심리학 기반 실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심리융합과학 대학원 신설, 학/석사 연계전공, 석/박사 통합과정, 행동인지신경과학 통합전공 등 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관리 개편</p> <p><input type="checkbox"/> 연차평가제도 구축, 비교과 대학원과정 활용,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 확보</p> <p><input type="checkbox"/> 국제공동연구, 해외석학 초빙 온라인 세미나, 영어발표/논문작성 워크숍 활용 등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윤리교육 추진</p> <p><input type="checkbox"/> MOU체결을 통한 관산학 교류 토대 마련, 타학문 분야와의 융합연구, 현장 실무 전문가 초빙 세미나, 교원창업 등을 통한 산학교류 및 산학연계 교육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연구관리 시스템 운영,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연구방법론 워크숍 개최, 연구성과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통한 대학원생 연구수월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p> <p><input type="checkbox"/>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amp;HCI)에 48편(IF평균=4.40), 기타국제학술지에 1편(IF=1.44), 국내등재지에 13편(IF평균=1.46) 게재</p> <p><input type="checkbox"/> 심리학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융합연구과제 추진</p> <p><input type="checkbox"/> 우수해외교원 초빙, 연구교원제도 활용, 신입교원 책임시수 감면, 단독 행정시스템 구축, 대표성과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 마련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추진</p>
<p><b>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b></p>	<p><input type="checkbox"/>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제화 전략의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학술대회 참석, 참여대학원생의 중장기 해외연수, 해외 저명학자들의 국내 초청 등의 국제적 교류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비대면 초청강연을 진행하고 있음.</li> <li>- 또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심리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심리학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해오고 있음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심리사회적 문제 관련 학술연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온라인 대중강연 등)</li> </ul> <p><input type="checkbox"/> 신입교원 확보의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융합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연구기법들을 전해주기 위해 연구방법론 분야 신입교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왔음. 하지만, 지난 몇 차례의 채용과정에서 우수한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갖춘 적절한 후보를 찾지 못했고 현재까지 우수한 역량을 갖춘 후보를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물색 중임.</li> <li>-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데이터 과학원에 개설된 다양한 과목들을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해외 학자 초청 워크숍 개최 및 외부 워크숍 참여지원 등을 통해 보충하고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교육연구단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들의 유기적 연결성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연구단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성 향상이라는 최종목표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연결성과 조직화가 미흡.</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차년도 추진계획</b></p>	<p><input type="checkbox"/> 온라인을 활용한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 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석학들을 초빙하여 온라인 워크숍 개최 또는 국제동계/하계대학 대학원 온라인 과정 개설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임.</li> </ul> <p><input type="checkbox"/> 신입교원 확보를 위한 다각도 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의 전공분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미나 초청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최고의 교육/연구 역량을 가진 후보자를 물색하고자 함.</li> </ul> <p><input type="checkbox"/> 교육연구단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들의 유기적 연결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초 교육연구단 소속 교원들과 대학원생들 모두 참여하는 지속가능성 대외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본 교육연구단의 지난 성과들을 홍보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li> <li>-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결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3차년도에는 전공 간 소통을 위한 학술모임을 확대하고 전공 간 그리고 연구실 간 공동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지원하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li> </ul>

# I

##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김학진	영 문	Hack Jin Kim
소 속 기 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 연구역량

- 사업단장 김학진 교수는 심리학사(고려대), 계산신경과학 석사(Boston University), 생물심리학 박사(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를 수여받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에서 신경경제학(Neuroeconomics)분야의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2007년부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 및 의사결정 신경과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음.
- 심리학, 행동경제학, 신경과학 등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모두 아우르는 다학제 간 융합연구를 활발히 추진 중이며 현재는 공감, 도덕성, 이타성, 집단갈등 등의 전통적인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적 주제들을 기능적 자기공명 뇌영상기법(fMRI)을 활용한 연구방법을 통해 관련 뇌기제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 2022년 현재까지 주저자로 Nature Communications(IF=14.919) 1편, PNAS(IF=11.205) 2편, PLoS Biology(IF=8.029) 1편, Journal of Neuroscience(IF=6.167) 2편, 공저자로 Science(IF=41.845) 1편, 공저자로 PNAS 1편 등 국제저명학술지를 포함 총 74편의 학술논문들을 발표하였음.
- 또한 2022년 9월 현재까지 발표한 논문들은 총 5,741회(Google Scholar 집계) 인용되었음.
- 현재 국제전문학술지인 Journal of Neuroscience(IF=6.167)와 Journal of Neuropsychology(IF=2.477)의 부편집위원장(Associate Editor)으로 활동 중임.
- 고려대학교 전체 교원들 중 전년도 연구업적이 상위 3% 이내에 해당하는 일부 교원에게만 수여하는 석탑연구상을 2회(2016년도, 2019년도) 수상함.

#### 교육역량

- 사업단장 김학진 교수는 고려대학교 재직 기간 동안 학교 전체에서 강의 평가점수 상위 5% 이내인 전임교원에게 수여하는 석탑강의상을 1회, 상위 20% 이내인 전임교원에게 수여하는 우수강의상을 8회 수상함으로써 탁월한 교육역량을 보여주었음.
- 많은 해외 선진국들에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사회신경과학(Social Neuroscience)과 신경경제학(Neuroeconomics) 분야의 최신연구들을 소개하는 학부와 대학원 강의들을 개설하여 강의해오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해당 지식분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저서(“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 2017, 갈매나무)를 집필하고 이와 관련한 대중강연을 진행해옴.

#### 행정역량

- 사업단장 김학진 교수는 2007년 임용 후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가장 최근에는 연간 약 5억원 규모의 뇌원천과제(과제명: 멀티모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감성지능 신경회로 규명 및 인공지능 기술개발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역임하여 2022년 4월 30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종료하였음. 또한, 2022년 4월 1일부터 연간 6억원 규모의 뇌원천과제(과제명: 내수용감각(interoception)에 기반한 감정 유연성의 신경 기전 규명 및 증진 기술 개발)를 수주하여 연구책임자로 공동연구원인 카이스트 정범석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해정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과제를 이끌고 있음.
-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년 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주임을 역임하면서 학과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행정적인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갖추고 있음.

## 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참여비율(%)	비고
심리학과	2021년 2학기	14명	14명	100%	
	2022년 1학기	14명	14명	100%	



<표 1-2> 최근 1년간(2021.9.1.~2022.8.3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2					
3					
4					

<표 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심리학과	2021년 2학기	62	46	74	32	11	34	35	29	83	129	86	67
	2022년 1학기	74	56	76	39	14	36	36	30	83	149	100	67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21년2학기)		1 : 6.1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22년1학기)		1 :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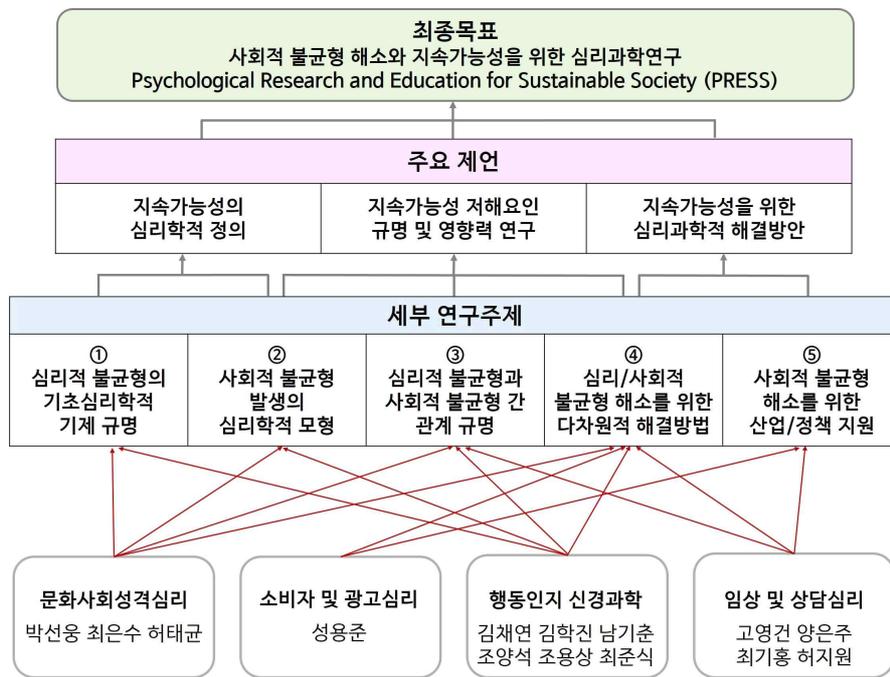
## 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 본 교육연구단은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이 사회적 불균형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연구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항상성 유지를 위한 생물학적 기체에서부터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불균형 간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연구, 교육하는 세계적 수준의 심리과학 교육연구단으로 발전하고자 함.



- 타 학문과의 융합의 전통과 과학적 방법론의 강점을 지닌 심리과학을 기반으로 학문과 학문, 학문과 현장을 연결하는 교육과 연구 패러다임을 도입함으로써 기초심리학적 연구와 응용심리학적 연구들 간의 적절한 균형과 상호 간 지식 및 연구방법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심리과학적 연구전문가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 국내 심리학과들 중 유일하게 동물연구소를 보유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는 분자생물학 수준에서의 뇌과학 연구부터 사회적 행동역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구들이 진행 중이며,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원들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재조직하고 연구팀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함.
- 지속가능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결과 및 이론을 토대로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종합해서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인들의 피드백 및 의견들을 수집함으로써 교육-연구-현장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3.1 교육연구단 교육 및 연구주제의 필요성



-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기저 메커니즘에 관한 심리과학적 이해와 이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해결방안 발굴 필요.
- ▷ 경제적 불평등, 기후문제, 성별/세대/지역/집단/국가/민족 간 갈등, 혐오와 편견 등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기존의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음.
- ▷ 많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에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추구하는 전문경영팀을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 심리학적 연구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이론과 해결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 기초심리학적 수준에서부터 응용심리학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토대로 다양한 사회적 불균형 현상을 해석하고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연구 추진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이 요구됨.

### 3.2 교육연구단의 대표적 미래목표 달성 정도

#### < 교육역량 향상 계획대비 성과 >

- 본 교육연구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과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인 창의적 관점과 융합적 사고를 육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주요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 목표를 설정함.
- 이를 통해 학제 간 융합뿐만 아니라 학문과 현장을 융합하는 산학연계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교육과 연구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국제화 전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1) 국내 최초 심리학부 설립을 통한 융합학문의 중심 토대 마련

- ▷ 산업/사회문제해결 중심의 모듈기반 교과과정 개편: 심리학부 독립을 통한 사회문제 중심의 학부 교육과정의 활용,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계획 --> 모듈형 강의 시행 결과, 평가 포함
- ▷ 학/석사 연계과정 추진: 학부-대학원 간의 긴밀한 관계유지와 원활한 상호작용 촉진 --> 지난 1년간 행동인지신경과학, 임상 및 상담심리학 전공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3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 선발함.

#### 2) 융합 교육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개편

- ▷ 심리융합과학 대학원 신설: 심리학 이론과 지식을 토대로 현실 문제 해결에 특화된 실무전문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심리융합과학 대학원(Graduate School of Psychological Convergence Science) 설립 [학과명: 심리융합학과(Department of Psychological Science), 2023년 3월 첫 신입생 모집 예정], 본 기관에서는 심리과학의 인문사회심리학적 관점과 과학기술적 관점의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재직자(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교육 수요자들을 교육 및 재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크게 개인심리,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루는 “소셜 인사이트 프로그램(Social Insight Program)” 과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둔 “테크 인사이트 프로그램(Tech Insight Program)” 의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멀티트랙(multi-track) 운영을 통한 교과과정 개편: 기존의 연구트랙 외에 실무전문가 트랙을 별도로 운영 (예: 행동인지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과정 신설)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들이 데이터 분석 기초 소양 및 인공지능 기반 기술 관련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함. 이에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원의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 기초 기술 교육을 희망자 중심으로 실시. 23명의 참여대학원생들이 데이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데이터과학 및 기계학습 관련 교과(딥러닝원리와 응용, 클라우드컴퓨팅입문, 인공지능과 미래산업특강, 데이터과학입문, 인공지능 입문)를 통해 학점(3학점)을 이수함. 데이터과학원에서 개설한 온라인강좌(49개 비교과 과목)에 참여함.

- ▷ 융합 교육과정을 위한 학사운영 확대 개편: 행동인지신경과학 전공의 운영, 마음 뇌 심리과학 경력 개발입문 과목 운영 --> 생물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을 합쳐 행동인지신경과학 전공을 신설 운영 중이며, 2021년 2학기 온라인 전공설명회를 개최(2021년 9월 10일)하여 심리학 대학원에 관심있는 교내외 구성원 다수가 참여하여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음. 교육연구단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PSY1108, 2022년 1학기 강의, 총 50명 수강)’ 를 신설하여 심리학부 소속 9명의 전임교원과 1명의 비전임 연구교원이 팀티칭으로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의하고 학기말에 수강생들의 그룹프로젝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또한, ‘정서와 문화(PSY 2126, 2022년 1학기 강의, 총 14명 수강)’ 를 개설하여 운영함.
- ▷ 타전공과의 융합연구 및 교육의 확대 --> 제2회 “4단계 BK21 심리학 교육연구단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2021년 2학기에는 22개 팀이 지원하였고 대상 1개 팀, 금상 2개 팀을 포함하여 총 19개 팀이 연구를 진행하여 총 16,206,491원을 지원하였으며, 총상금 4,400,000원이 학생들에게 지급됨(참조: 표 2-21. 공모전 합격 연구팀 및 연구 제목). 2022년 1학기에는 14개 팀이 지원하였고, 현재 모든 팀이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2023년 2월에 연구 결과 발표 행사 실시 예정) (참조: 표 2-22. 공모전 합격 연구팀 및 연구 제목).
- ▷ 교육과정과 학사관리의 장단점 분석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해외 교수들과의 팀티칭 과목 개설 관련하여서는 추후 개선해나갈 계획임.

### 3) 대학원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 학생 성과 관리를 위한 연차평가제도 신설: 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한 대학생들의 성과 관리제도 도입 --> 장학금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매 학기말 연구진행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해당 학기 진행한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내용 및 기타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지도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실적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해 학생들의 평가를 설문 조사로 알아본 결과, 연구에 대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이상의 도움을 주었고, 지속가능성과 사회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 대해 계속해서 환기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와 관련된 관점에서 연구에 접근하도록 해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학생상담센터의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 학생심리상담센터 및 교수학습센터의 학업코칭 등 활용 --> 참여 대학원생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교내 학생상담센터의 다양한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참여를 적극 장려함. 이에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대학원 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 및 학생상담센터의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함.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공된 맞춤형 학업 코칭 서비스에 참여대학원생들이 참여함.
- ▷ 교육과정의 정기적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의 강화: 학교차원의 교과과정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 적용, 심리학부 차원의 교과과정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 적용 --> 교무처 방침에 따라 2021년 1학기부터 중간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수업 개선 요소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 등이 평가에 포함되었으며, 교원들은 본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 방법에 대해 학생들과 수업 중 적절한 방법으로 논의함.

#### 4) 비교과과정 및 워크숍 등을 통한 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 ▷ 대학원 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용: 대학원 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계획인 TOTAL LAB 활용 --> KU개척마을, 교수학습개발원, 교양교육원, 다양성위원회, 대학원행정팀, 사회공헌원, 산학진흥팀, 연구진흥팀, 원격교육센터, 인재양성팀 주관의 대학원생 교육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이에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전공 교과목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트레이닝을 제공함 (참조: 표 2-12. 대학원생 참여 비교과 프로그램).
-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론 교육: 데이터과학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공통과목을 통해 최신 데이터 분석기법(예: 빅데이터 분석, 기계학습) 과목 개설 --> 대학원생들은 본교 데이터과학원에서 주최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관련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1년간 데이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데이터과학 및 기계학습 관련 5개 교과를 이수함. (참조: 표 2-4. 데이터과학원 교과 이수 내역). 데이터과학원 주최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여름 특강 교육 및 참여.
- ▷ 교육연구단 주최 방법론 워크숍 개설: 계량심리학 분야에서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하는 McGill University의 황홍선 교수를 초청하여 4일간의 특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워크숍을 개최함 (2022.06.27.~2022.06.30.): 머신러닝의 개요부터 시작하여 행동 사회과학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소개되었고, 특별히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들이 다루어짐. RStudio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제 데이터에 대하여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보고 산출된 결과를 해석하는 시간을 가짐. 또한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원의 주윤정 교수를 초청하여 융합연구를 위한 유전 분석(Genetic Analysis) 워크숍을 진행하였음(2022.08.03.~2022.08.05.): DNA와 RNA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파악하고 Plink, Galaxy web site 실습 과정을 통해 유전체 분석에 사용되는 최신 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 더불어 유전체 연구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하여 심리학과 유전학의 융합 방향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짐.
- ▷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연구방법론 1:1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신진연구인력인 김미림 박사는 참여 대학원생인 대학원생들 [redacted] 을 대상으로 통계적 연구방법의 개별화된 컨설팅을 제공함: 이호정 연구원의 경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국회청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컨설팅을 통하여 결과의 해석 및 보고에 대한 도움을 제공함. 또한 포아송 회귀분석 이외의 비정규 분포를 갖는 자료의 분석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음. 김세현 연구원은 척도 개발 논문을 위한 측정모형의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측정모형보다는 2차 요인분석 모형(second-order factor model)이나 쌍요인 모형(Bi-factor model)이 연구가설에 적합함을 설명하고 모형 검증 이후 부적절 문항의 탐색 및 제거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
- ▷ 영어 구두 발표 및 논문 작성 워크숍 진행: 대학원 공통과목 개설을 통해 구두발표, 영어 논문 작성, 논문 리뷰 및 작성 역량 강화 강의 개설 --> 본교 교수학습지원팀에 주최한 영어강의 능력 향상 프로그램(총 2명, [redacted] 과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 워크숍: 대학원생 대상 영문 과학논문 작성법(총 2명, [redacted] 참여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소통 능력 향상의 기회를 마련함. 또한, 교양교육원/연구진흥팀에서 주최하는 ‘학문후속세대 국제학술지 영어논문 교정 지원 프로그램’ 참여(총 9명, [redacted] 와 ‘영어논문작성법 특강’ 이수(총 4명, [redacted])를 통해 영어 논문 게재를 위해 요구되는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함.

#### 5) 교육연구단 참여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대비 성과

- ▷ 심리학부 설립과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용한 우수 학부생 대학원 유치: 총 5년간 학사 및 석사 과정 이수 프로그램, 입학금 + 수업료 전액 장학금, 학부연구생 제도 병행 등을 통해 우수 학부생 대학원 유치 기회 확대 --> 지난 1년 간 행동인지신경과학, 임상 및 상담심리학 전공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3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 선발함.

- ▷ 석·박사 통합과정 활용 및 실무전문가 트랙 운영: 전공 간, 과정 간 이동 보장으로 학문 유연성 확대, 박사학위 취득 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해 유능한 박사급 인력 조기발굴 -->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의 확대 및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의 유연화를 추구한 결과, 총 7명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 2명, 석/박사 통합과정생으로 선발 5명)이 다양한 전공 분야(행동인지 신경과학, 임상 및 상담심리, 소비자 및 광고심리, 문화사회성격심리)에 걸쳐 선발됨.
- ▷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장학금 지원: 다양한 형태의 연구장려장학금. 해외학술대회 참가비, 영문 원고 교정비, 우수논문 인센티브 제도 마련, 매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annual review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 및 연구장려장학금 수여 --> 지난 1년간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76.3%(전체 278명 중 212명), 총 장학금 지급액은 935,686,438원에 달하며, 지난 1년간 BK21 4단계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통해 2021년 2학기 총 43명 (박사과정 4명, 석박사 통합과정 13명, 석사과정 26명), 2021년 1학기 총 38명 (박사과정 4명, 석박사 통합과정 18명, 석사과정 1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함. 또한, 지난 1년 간 BK21 펠로우십 프로그램 장학금을 통해 2021년 2학기 총 11명 (박사과정 1명, 석박사 통합과정 4명, 석사과정 6명), 2022년 1학기 총 2명 (박사과정 1명, 석박사 통합과정 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참조: 표 2-27. BK21 펠로우십 프로그램 장학금 수혜 내역).
- ▷ 학부생 및 일반인 대상 홍보활동: 학과 및 교육연구단 홈페이지,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추진 --> 심리학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 심리학부 홍보 유튜브 채널 개설 및 홍보 동영상 업로드, 고려대학교 재학생 및 외부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행동인지신경과학 분과 연구실에 대한 전공 설명회를 진행하여 교내외 학부생 및 졸업생을 포함하여 약 150명의 신청자를 모집(2021년도 9월 10일), 충북대학교 안정광 교수를 초청하여 임상 및 상담 전공학생들의 전문가 자격 수련의 과정 및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인 지견을 제공하고,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 (2022년 5월 10일)

#### < 연구역량 향상 계획대비 성과 >

- 본 교육연구단은 꾸준한 연구의 질적 향상과 국제화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들을 진행해 왔으며 분자생물학 수준에서의 뇌과학 연구로부터 사회적 행동역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구들을 추진해왔음.
- 국제화 교육 인프라 증진을 위해 임상 및 상담심리학 분야의 국제학자(김소현 교수)를 새로이 교원으로 임용하였음.
- 개별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교수와 대학원생들을 선발 및 교육하여 연구의 질적·양적 향상을 꾀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년간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14인은 국제 저명 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48편(IF 평균 = 4.40), 기타 국제 학술지에 1편(IF = 1.44), 국내 등재지에 13편(IF 평균 = 1.46), 그리고 국내 등재 후보지에 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그 밖에 4건의 저서 및 북챕터 발간, 19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된 심리연구 기반의 기술이 있음.
- 교수 1인당 논문 수로 환산하였을 때, 국제전문학술지에 3.43 편, 기타국제학술지에 0.07 편, 국내등재지에 0.92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 본 교육연구단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지원과 참여교수들의 긴밀한 지도를 통해, 지난 1년간 참여대학원생은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28 편, 국내등재학술지에 15 편, 국내기타 학술지에 1 편 총 45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에서 총 52 편을 발표함.

□ 이러한 우수한 연구역량을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구목표로 집중시킴으로써, 보다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심리과학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사업단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집중시켜 왔음.

**1) 심리학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지속가능성 융합연구과제 발굴**

▷ 심리적 불균형의 기초심리학적 기제 규명

- ◆ 개인의 접근 및 회피 동기에 따른 불균형 연구 --> 도파민 분비와 관련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조용상 교수), 감정 추론에 필요한 맥락 정보 이용에 나타나는 개인차 규명 연구(김학진 교수), 불공정성에 대한 반응 행동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신경학적 처리 과정 연구(김학진 교수), 한국어 동사 어절 재인 과정에 하위 어휘 요인이 미치는 영향(남기춘 교수)
- ◆ 충동 및 통제와 관련한 인지 기능의 불균형 연구 -->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엔트로피의 개념을 통해 설명(조양석 교수), 자극의 불확실성이 연합학습에 미치는 영향: 수리모델간 비교연구(조양석 교수, 최준식 교수), 변연전 피질이 공포 기억 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역할(최준식 교수)

▷ 심리적 불균형 모형 연구

- ◆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 연구 --> 정체성과 심리적 웰빙 간 관령성 연구 및 자존감과 심리적 웰빙 강연(박선웅 교수), 불안이 인지 통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조양석 교수), 층간 소음의 심리적 요인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및 소리의 심리학 강연(최준식 교수), 창작자 정보에 따른 미적 선호(김채연 교수), 연령 별 게임 경험에 따른 인지기능 향상 정도의 차이 연구(남기춘 교수), 정체성 발달과 내·외적 가치 중심 목표 간 관계(박선웅 교수), 한국인의 심리적 웰빙을 예측하는 서사 정체성의 증분 타당도(박선웅 교수)
- ◆ 물질적 자원이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에 미치는 특성 연구 --> 정신건강 불평등의 현황 기고를 통해 정신건강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현황, 방향성 제시(허지원 교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허지원 교수), 자원의 양이 한정적인 때, 집단 간의 자원분배를 위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색 연구(김학진 교수)

▷ 사회적 불균형 모형 연구

- ◆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개인 내 요인 연구 --> AR 사용자의 심리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AR 기기 개발 연구(김채연 교수), AI의 평가에 AI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성용준 교수),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경험자의 행동 중단과 지속에 미치는 요인 탐구(허지원 교수)
- ◆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개인 간 요인 연구 --> 메타버스 이용자의 소비활동 관계 연구(성용준 교수)

▷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해결방안 연구

- ◆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개입 방안 연구 --> 팬데믹 상황에서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가 표정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최은수 교수), 불안정 애착과 외도: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박선웅 교수), 내러티브를 통한 정체성 형성 평가(박선웅 교수), 머신러닝을 이용한 개인의 성격 예측(최기홍 교수)
- ◆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 --> 학습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수퍼비전 제공(양은주 교수), 진로 정체성 과정과 진로 목표 간의 중단적 연관성(양은주 교수), 국제결혼 이주 어머니의 사회인지 능력과 자녀의 사회인지 발달 간의 관계(최기홍 교수)

▷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문학적/산업적/정책적 지원

- ◆ 산출된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 --> 노년기 활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최기홍 교수),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최은수 교수), 교육 장면에서의 일상 회복

을 위한 접근법 강연(허태균 교수), 3D 형태의 복잡도와 색의 교차감각 연관성(김채연 교수), AI가 수집하는 정보와 프라이버시 위협과 걱정 간의 상호작용(성용준 교수)

- 지속가능성을 위한 산업 관련 과학적 근거 발굴 --> 인지신경과학적 관점을 통한 외국어 학습 방법 제시(남기춘 교수), CEO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심리평가 도입 제안(고영건 교수)
-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관련 과학적 근거 발굴 -->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 추출과 구매, 사용, 폐기 행동 간의 관계(성용준 교수), 공정의 뇌과학적 기원 강연(김학진 교수), 성인여성의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콘텐츠 온라인 게시의 임상 및 심리사회적 요인(허지원 교수)

## 2) 교육연구단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제도적 지원

-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론 교육: 데이터과학원 개설 대학원 공동과목을 통해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예: 빅데이터 분석, 기계학습)과목 개설, 최신 연구기법을 적용한 전문가 교육과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신입교원 채용 --> 심리학부 내 심리과학 기반 기초 기술 관련 교과(행동신경과학방법론, 시각신경과학, 고급실험설계, 인지신경과학원론, 음성언어정보처리, 심리생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심리통계 등)를 운영. 신진연구인력으로 김미림 박사를 초빙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2022년 2학기부터 다변량분석 교과(PSY1004)를 새로이 개설하였음. 연구방법론 분야 신입교원 초빙을 위해 현재 다양한 search committee를 신설하여 우수한 역량을 가진 후보들을 지속적으로 탐색 중임.
- ▷ 공모전을 통한 대학원생들의 연구지원: 기존 학부생 대상 자기주도 창의설계 프로그램(Creative Challenger Program)을 대학원생 대상으로 확장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대학원생 연구과제 공모전을 통한 연구비 지원 --> 교육연구단 주제인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참여대학원생 개인 또는 참여대학원생이 포함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에 대하여 응모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둘 이상 전공 분야 간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아이디어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융합연구 계획 및 추진을 장려함. 대학원생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총 19팀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팀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였음. (각 팀당 1,000,000원 내외 지원). 수상한 모든 팀은 22년 1월까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중 상위 5개 팀은 심리학부 BK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uLc9jZhA0iNm4mPgEoKnhQ>)에 발표물과 관련한 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심리연구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심리학교육연구단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참조: 표 2-17. 공모전 합격 연구팀 및 연구 제목). 2022년에도 2차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여 총 14팀이 수상하고 교육연구단은 계획한 연구(참조: 표 2-22. 2022년 1학기 공모전 합격 연구팀 및 연구 제목)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함(1,500,000원 내외). 수상한 모든 팀들은 23년 1월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 대학원생들의 우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연구의욕 극대화: 연구결과물의 질적 우수성 평가를 위한 사업단 운영위원회 마련, 대학원생 우수 연구성과 교류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행사추진 --> BK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도모를 위하여 연구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심리교육연구단의 취지에 알맞게,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활동과도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책정하였음. 크게 두 가지 평가항목(연구성과: 60%, BK 교육연구단 참여도: 40%)에 대하여 지난 1년간의 참여 기간 활동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을 지급함. 본교의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주최한 ‘제 1회 대학원생 융복합 기반 연구모임 RCP(Research Challenger Program)’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았음, 본교의 디지털정보처에서 주관한 ‘대학원 혁신 관련 데이터 분석 활동 연구 공모’에서 심리학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계획이 채택되어 수상함, 대학원행정팀에서 주관하는 Junior Fellow Research Grant 연구공모에서 수상함.

### 3) 연구참신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교류확대

- ▷ 융합 연구 기회의 기틀 확립 --> 다양한 산업체 및 공공기관들과의 MOU체결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토대 마련: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조기중재센터와 MOU 체결 (2022. 08. 04. ~ ), 주식회사 디맨드와 MOU 체결 (2022. 04. 08. ~ 2025. 04. 07.), 비보존과 MOU 체결 (2022. 04. 01. ~ 2025. 03. 3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MOU 체결 (2021. 12. 07. ~ 2024. 12. 0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MOU 체결 (2021. 11. 02. ~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과 MOU 체결 (2021. 05. 13. ~ 2022. 05. 12.)
- ▷ 대학원 내 전공 간 정기적인 공동세미나 개최 --> 모든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연구단의 주제인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직접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BK강연 시리즈를 진행함 (참조: 표 2-20. 4단계 BK21 심리학 교육연구단 강연 및 워크숍 진행 현황),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리학 기반 교육 및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참조: 표 2-17. 공모전 합격 연구팀 및 연구 제목), 2022년 1학기에 선정된 팀들의 성과를 발표하는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함.
- ▷ 교내 타학과 및 국내 타기관과의 연구네트워크 구축 --> 본 교육연구단은 심리학 외의 타 전공과의 연계성을 살려 공동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교류를 통한 사회적, 학문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1년간 가천대, 한양대, 서울대, 경북대, 원광대, (사)한국디자인학회, 중부대, 대구카톨릭대, 나사렛대, 강원대, 청주대, 세종대, 성신여대, 한림대, 건국대, POSTECH, 연세대, 충북대, UNIST 등 19개의 국내 타 기관 연구자들과 교육학과, 의과대, 뇌공학과, 전기전자공학부 소속 교내 타 학과 연구자들과 총 19건의 융합연구가 진행됨 (참조: 표 2-6. 공동 연구 현황).

### 4) 대학원생 연구수월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 ▷ 대학원생을 위한 심리학부 연구관리 시스템(SONA system)을 신설 운영 --> 대학원생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융합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심리학부생들에게 실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웹사이트 기반 연구관리 시스템 (SONA system) 을 구축하여 운영함. 지난 1년간 총 10편의 연구가 연구관리 시스템 (SONA system)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2학기 총 133명, 2022년 1학기 총 254명의 심리학부생들이 연구에 참여함. (참조: 표 2-23. SONA system 개설 연구 목록).
- ▷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 --> 김소현 교수 연구팀(Clinical Neurodevelopmental Sciences Lab)과 허지원 교수 연구팀(Psychopathology & Social Neuroscience Lab)의 연구실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연구팀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을 개선하였음. 또한, 심리학부를 위한 다목적 세미나실을 확보하여 강의, 세미나 및 연구 활동에 유연하게 사용 공간을 마련함(복도 공간 포함 총 면적 194.40m<sup>2</sup>).

### 5) 교원의 연구 질적 향상 및 참여교원 연구몰입 환경조성

- ▷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강화: 연구교원(research fellow)제도 활용, 신진연구인력들의 안정적인 고용 및 재정적 지원 강화, 공개모집 선발, 급여 및 처우 분야 최고 수준 보장, 연구비 및 국내외 학술교류 경비 지원 및 연구성과 인센티브 제공 --> 1차년도 신진연구인력으로 활동했던 최승혁 박사와 김태연 박사의 경우, 교육연구단에서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로 임용됨.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연구단의 주제에 부합하며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조명현 박사와 김미림 박사를 신진연구인력으로 초빙하여 활발히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진행 중임 (참조: 교육역량 부문 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조명현 박사는 현재 4편의 논문이 평가 해당 기간 동안 KCI 저널에 게재 확정되었으며, 그 중 2편은 9월(평가 기한 외)에 게재 예정으로 되어있음. 김미림 박사는 현재 1편의 논문이 SCOPUS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현재 6편의 논문이 SSCI급 학술지에 심사 중에 있음.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6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4대 보험금과 퇴직금을 지원하며, 3년간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비 및 국내외 학술교류 경비를 지원함 (설문자료 수집 지원: 1,056,000원)

- ▷ 발전기획 위원회 별도 신설 운영 --> 유능한 국제학자의 교원 초빙을 위한 학과 내 발전기획위원회 산하 search committee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 중임.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의 정신과 (Department of Psychiatry)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소현 교수를 신입교원으로 초빙함: 김소현 교수는 유아와 청소년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신경발달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첨단 도구를 개발하였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연구를 진행 중임. 장애의 융합연구를 목표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연구역량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 ▷ 참여교수의 강의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교원들의 연구몰입 기회 확대 --> 현재 본교 차원에서 교원의 학기당 책임 수업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인 **유연학기제**,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도인 **Flipped class**, 1년 동안 12시간의 책임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 학기 6시간의 책임시수를 3시간으로 조정하고 남은 3시간을 다음 학기에 이월할 수 있는 제도인 **유연책임시수** 제도 등을 마련하여, 참여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새로 임용되는 교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임용 후 1년 동안 학기당 책임 수업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입교원 책임시수감면** 제도를 심리학부 내규로 보장하고 있음.

< 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 기여 계획대비 성과 >

- 본 교육연구단은 교육, 연구, 사회 간 선순환적 소통을 촉진시키고 산업/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연구 및 문제해결 전문가 육성을 주요목표로 함.

1) 사회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산학공동연구 확대

-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기회의 기틀 확립 --> 다양한 산업체 및 공공기관들과의 MOU체결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토대 마련: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조기중재센터와 MOU 체결 (2022. 08. 04. ~ ), 주식회사 디맨드와 MOU 체결 (2022. 04. 08. ~ 2025. 04. 07.), 비보존과 MOU 체결 (2022. 04. 01. ~ 2025. 03. 3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MOU 체결 (2021. 12. 07. ~ 2024. 12. 0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MOU 체결 (2021. 11. 02. ~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과 MOU 체결 (2021. 05. 13. ~ 2022. 05. 12.)
- ▷ 산업체 및 공공기관 정책을 위한 원천지식 창출 교육확대 -->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녕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진행,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활발히 추진함: 노년기 활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최기홍 교수), 성차별 민감도 연구 (최은수 교수), 층간 소음의 심리적 요인 분석 및 소리의 심리학 강연 (최기홍 교수), 자존감과 심리적 웰빙 강연 (박선웅 교수), 정신건강 불평등의 현황 기고 (허지원 교수), 교육 장면에서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접근법 강연 (허태균 교수), CEO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심리평가 도입 제안 (고영건 교수), 공정의 뇌과학적 기원 강연 (김학진 교수), 인지신경과학적 관점을 통한 외국어 학습 방법 제시 (남기춘 교수), 메타버스 이용자의 소비활동 관계 연구 (성용준 교수), 학습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수퍼비전 제공 (양은주 교수), 현대인의 정서와 인지과정 간의 관계 연구 (조양석 교수).

## 2) 사회문제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교류 및 산학연계 교육 확대

- ▷ 인턴십(Internship)과 엑스틴십(Externship)기회 확대 --> 참여대학원생들이 실무경험을 배양하며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추진 (예: ‘임상현장실습 I (PSYC7325)’, ‘임상현장실습 II (PSYC7326)’ 이라는 과목을 활용한 엑스틴십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 본 엑스틴십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KU마음건강연구소, 마음건강케이유(주) 및 병원에서 엑스틴 수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
- ▷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학원 교과과정 개편 --> 심리융합과학 대학원 신설: 심리학 이론과 지식을 토대로 현실 문제 해결에 특화된 실무전문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심리융합과학 대학원(Graduate School of Psychological Convergence Science) 설립 [학과명: 심리융합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ical Science); 2023년 3월 첫 신입생 모집 예정], 교육연구단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PSY1108, 2022년 1학기 강의, 총 49명 수강)’ 를 신설하여 심리학부 소속 9명의 전임교원과 1명의 비전임 연구교원이 팀티칭으로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의하고 학기말에 수강생들의 그룹프로젝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또한, ‘정서와 문화(PSY 2126, 2022년 1학기 강의, 총 14명 수강)’ 를 개설하여 운영함.

## 3) 연구 아이디어 계발을 위한 현장 전문가 활용 및 교류

- ▷ 사회문제관련 융합 세미나 및 외부 현장전문가 초청 강연 확대: --> 연구 및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의 결과물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그 일환으로, 지난 1년간 학계, 산업 및 사회 각 장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가 열 명을 초빙하여, 전문가 강연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음 (예, 한국리서치 혁신센터의 [redacted] ‘지금 MZ현상은 왜?: MZ세대의 인식, 경험 및 소비에 대하여’ 등) (참조: 표 2-20. 4단계 BK21 심리학 교육연구단 강연 및 워크숍 진행 현황).

## 4) 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원창업 운영 현황

- ▷ 산업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학적 연구결과들을 응용한 비즈니스 모형 구현 --> 실험실 창업(남기춘 교수, (주)마인트세팅(Mindsetting Inc.)), 한국적 맞춤형 여가문화 큐레이션 서비스(허태균 교수)
  - 남기춘 교수 연구실의 (주)마인트세팅은 인지능력측정 도구 및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는 베타 버전 5종과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초등학교 1~3학년)을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허태균 교수 연구실의 여가문화 큐레이션 서비스는 1차년도 평가 기간에 창업하여 2차년도 평가 기간까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그 성과물로는 “여가문화 활동 추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을 들 수 있음 (2022년 9월, 평가기간 이후에 특허가 결정됨).
- ▷ 임상관련 심리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형 구현 --> 성격진단서비스 마음건강케이유(주)(최기홍 교수)
  - 최기홍 교수 연구실의 마음건강케이유(주)는 2021년 창업 이후 임상 관련 심리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다차원 성격 평가 기술을 활용한 성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본 기관에서는 BK 참여대학원생인 박사과정생 2명([redacted]), 석박사통합과정생 2명([redacted])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5)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채널 확대

- ▷ 외부강연, 저서, 컨설팅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여 기회 확대 -->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교육-연구-사회 간 선순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심리학 서적의 출간, 대중 강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 개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외부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진

행함 (참조: 표 2-24.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

- ▷ 지속가능성 관련 온라인 강의와 교육연구단 연구홍보를 위한 정기간행물 발간 -->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 중이며, 학부 내 다양한 소식과 연구결과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채널로 활용 중임. 심리학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학부 홍보 관련 동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음. BK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교육연구단 소식과 연구성과들을 홍보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행동의 심리학(PSY 1107)에서 참여교원들이 강의한 내용을 녹화하였으며 2학기 중에 편집을 완료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예정임 (참조: 표 2-8. ‘지속 가능한 행동의 심리학’ 교과 강의 내용). 또한, 제1회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팀 중 상위 5개 팀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2팀)은 심리학부 BK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uLc9jZhA0iNm4mPgEoKnhQ>)에 발표물과 관련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심리연구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심리학교육연구단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국제화 향상 계획대비 성과 >

-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학원 차원의 혁신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학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대학원생 인적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음.

#### 1) 대학원생 펠로우십(Need/Merit-based)을 통한 국제교류기회 확대

- ▷ 대학원생의 국제교류 활성을 위한 지원 강화: 대학원생 단기적 국제적 학회 참여 지원, 대학원생의 해외 연구실 중장기 연수 및 공동 연구 수행 지원 --> 대학원생 국제화 교육을 위해 지원한 결과, 지난 1년간 총 14팀의 학생들에게 단기 연수 및 국제 학회 참여비를 지원함(예, Neuroscience 2021에서 발표) (참조: 표 2-16. 해외 단기연수 지원), 김채연 교수 연구팀 연구원(참여대학원생: [redacted] 과 김학진 교수 연구팀 연구원([redacted])은 각각 University of Vienna와 University of Zurich 방문하여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
- ▷ 영어 구두 발표 및 논문작성 워크숍 진행: --> 본교 교수학습지원팀에 주최한 영어강의 능력 향상 프로그램(총 2명, [redacted] 과 대학원생 연구력강화 워크숍: 대학원생 대상 영문 과학논문 작성법(총 2명, [redacted] 참여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소통 능력 향상의 기회를 마련함. 또한, 교양교육원/연구진흥팀에서 주최하는 ‘학문후속세대 국제학술지 영어논문 교정 지원 프로그램’ 참여(총 9명, [redacted] 와 ‘영어논문 작성법 특강’ 이수(총 4명, [redacted] 를 통해 영어 논문 게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함.

#### 2) KU Global PCO 운영을 통한 국제학술대회 지원

- ▷ 해외 저명학자 초청강연: --> 코로나19로 해외 저명한 학자들을 직접 초청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게 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대학원생에게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연구 의욕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1회성 강연에 그치지 않고 해외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함.

#### 3) BK21 연합 교육연구단을 통한 Global Network 지원

- ▷ 실질적 교육 및 연구교류를 위한 해외대학과의 MOU체결: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Florida Atlantic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Salk Institute, University

of Washington, Wesleyan University,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프랑스 Paris Descartes University, 오스트리아 University of Vienna,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The University of Zurich), 일본 리즈메이칸대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에게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1년간 13개의 국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학원생들이 참여함(참조: 표 2-14. 국제 기관과의 공동 연구).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최신의 연구 트렌드를 접하고 학습할 기회와 함께 정교한 연구 진행을 위한 수준 높은 실험 및 분석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음.

#### 4)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활용한 해외교수들과의 팀티칭

▷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해외 교수들과의 팀티칭 과목 개설: 글로벌 원격교육시스템(G-Class 객원교수) 활용 --> 해외석학 전임교원 및 객원교수를 적극 유치하여, 김소현 교수(Weill Cornell Medical College)를 전임교원으로, 김은주 교수(University of Washington)를 객원교수로 초빙하여 국제적 연구 및 교육 성과를 기대함(참조: 표 2-15. 전임교원 및 객원교수 유치 현황).

#### 5) 국제적 연구역량과 연구윤리 확보

▷ 국제화 교육 인프라 증진 --> 현재 유능한 국제적 수준의 학자를 교원으로 초빙하기 위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중이며 Search committee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후보들을 탐색 중에 있음.

▷ 국제적 기준의 윤리교육 강화 --> 국제적 수준의 안전지침과 연구윤리는 연구장면에서 항상 전제되어야 하며, 대학원생들에게 이같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윤리도덕적으로 적합한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교육하였음. 이에 대학원생들은 교내 주관 ‘법정 안전 교육’, ‘연구윤리 및 생명 윤리 교육’ 등은 물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관 ‘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질병관리청 주관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주관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참조: 표 2-19. 해당 기간 내 대학원생 윤리교육 현황).

### 3.3. 신청서에 작성된 저명대학 벤치마킹 대상과의 비교 분석

#### □ 본 교육연구단과 관련된 주요기관 벤치마킹 분석결과

▷ 단순히 높은 랭킹의 해외기관보다는 본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선별하여 각 요소별로 해외기관의 우수사례들을 찾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본 교육연구단의 장단점 파악 및 전략수립에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음.

▷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수적인 분야로는 다음 세 가지 분야들이 선정됨:

- ◆ 성공적인 심리학부 운영 기관 (시드니 대학교, 호주): 2020년 QS평가 대학순위 38위, 심리학전공 순위 30위인 학과(Department)가 아닌 심리학과(BPsych)를 수여하는 학부(School) 형태의 문제해결중심/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기관. --> 고려대학교 심리학부는 국내 최초 심리학부 설립하였으며 2021년 3월 공식 발족 행사 개최 (참조: 교육역량 부문 2.2.1. 2021년 국내 최초 심리학부 설립), 문학사뿐 아니라 이학사 수여,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존 교과과정 개편, 사회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연구 중심의 특성화 기반 구축. 그 결과로,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2022년 4월 6일 발표한 ‘2022 세계대학평가 전공별 순위’에서 심리학 분야는 3년 연속 100위권에 안착하며 국내 1위 자리를 공고히 함.
- ◆ 심리학 기반 사회문제 해결 연구기관 (Greater Good Science Center (GGSC), 버클리대학교, 미

국): 사회와 정서적 복지(Well-being)에 관해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최첨단 과학적 연구를 진행,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개인의 삶과 사회적 번영과 지속가능성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함. --> 다양한 산업체 및 공공기관들과의 MOU체결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연구 및 공동연구 추진 토대 마련,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결과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외부와 공유하고 홍보함,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심리학과 인공지능, 뇌과학,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학문들 간의 연계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임 (참조: 연구역량 부문 2.3.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 ◆ 지속가능성에 관한 실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Master of Science in Sustainability Management program, 콜럼비아대학교, 미국):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가 및 해당분야 리더 육성을 목표로 정책 개발과 관리방법들을 가르치는 다학제적 교과과정 운영. 지속가능성 분야의 세계적 학자들과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지속가능성 분야 실제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학원 교과목 개설 --> 심리융합과학 대학원 신설: 심리학 이론과 지식을 토대로 현실 문제해결에 특화된 실무전문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심리융합과학 대학원(Graduate School of Psychological Convergence Science) 설립 [학과명: 심리융합학과(Department of Psychological Science); 2023년 3월 첫 신입생 모집 예정], 교육연구단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PSY1108, 2022년 1학기 강의, 총 50명 수강)’ 를 신설하여 심리학부 소속 9명의 전임교원과 1명의 비전임 연구교원이 팀티칭으로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의하고 학기말에 수강생들의 그룹프로젝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또한, ‘정서와 문화(PSY 2126, 2022년 1학기 강의, 총 14명 수강)’ 를 개설하여 운영함.

### 3.4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사항 등 기술

#### □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제화 전략의 어려움

-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학술대회 참석, 참여대학원생의 중장기 해외연수, 해외 저명학자들의 국내 초청 등의 국제적 교류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음.
-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비대면 초청강연을 진행하고 있음.
- ◆ 또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심리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심리학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해오고 있음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심리사회적 문제 관련 학술연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대중 강연 등)

#### □ 신입교원 확보의 어려움

- ◆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융합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연구기법들을 전해주기 위해 연구방법론 분야 신입교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왔음. 하지만, 지난 몇 차례의 채용과정에서 우수한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갖춘 적절한 후보를 찾지 못했고 현재까지 우수한 역량을 갖춘 후보를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물색 중에 있음.
-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데이터 과학원에 개설된 다양한 과목들을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초청강연이나 워크숍 개최 및 외부 워크숍 참여지원 등을 통해 보충하고 있음.

□ 전공 간 유기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교육연구단 주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강화

- ◆ 각 대학원 전공 별로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대학원 과목을 개설하여 해당 주제로 연구방향을 선택한 대학원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여러 전공 소속 참여교수와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관점과 접근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특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함.
- ◆ 각 대학원 전공 졸업생들 중 산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산업분야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조언을 구하고 자료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실무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함.

## □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 □ 대학원생 대표 연구 실적 1. 이수은, 임민경 학생

Lee, S. E., Yim, M., & Hur, J. W. (2022). Beneath the surface: clinical and psychosocial correlates of posting nonsuicidal self-injury content online among female young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2, 107262.

- 허지원 교수 연구실의 이수은, 임민경 학생이 허지원 교수와 함께 ‘Beneath the surface: clinical and psychosocial correlates of posting nonsuicidal self-injury content online among female young adults’ 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Computers in Human Behavior* (IF=8.957)에 게재됨.
-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행동이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연구임.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를 수행하는 젊은 연령층의 경우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자해 관련 포스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자해 콘텐츠를 온라인에 포스팅하는 것은 해당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음. 연구 결과를 계기로, 자해 포스팅을 하는 이들을 소위 ‘관중’으로 낙인찍는 시선이 완화되고 또,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임상적 고위험군을 선별 및 개입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기를 기대함.
-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및 낙인은 사회의 불균형에 일조하는 요소 중 하나임. 이에 본 연구는 자해 포스팅을 하는 이들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하였다고 할 수 있음.

## □ 대학원생 대표 연구 실적 2. 안정용 학생

Ahn, J., Kim, J., & Sung, Y. (2022). The effect of gender stereotyp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commend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41, 50-59.

- 성용준 교수 연구실의 안정용 학생이 성용준 교수와 함께 ‘The effect of gender stereotyp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commendations’ 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IF=10.969)에 게재됨.
- 본 연구는 인공지능 추천 평가에 미치는 성별 고정관념의 효과를 조사함. 구체적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인간-AI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실용 제품과 쾌락 제품에 대한 인공지능 추천의 설득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검증함. 본 연구는 성별 고정관념이 인간-AI 상호작용과 AI 에이전트 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
-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이 점차 증가하고,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 윤리는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특히,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 문제는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본 연구는 실험 연구를 통해 고정관념이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
- 본 연구는 인간-인공지능 간 상호작용에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을 밝힘. 특히, 조작된 인공지능의 성별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다르게 나타나고, 편견이 발생한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인공지능을 디자인할 때 고정관념으로 인해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에서 예기치 않은 편견, 차별

등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 대학원생 대표 연구 실적 3. 김수연 학생

Kim, S., Won, E., Jeong, H. G., Lee, M. S., Ko, Y. H., Paik, J. W., ... & Han, K. M. (2022). Gender discrimination in workplace and depressive symptoms in female employees in South Kore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06, 269-275.

- 본 연구는 201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를 통해 여성 직장인의 직장 내 성차별 인식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함. 분석 결과, 여성 직장인이 인식한 성차별이 높을수록 우울 또한 유의미하게 높았고, 나이, 학력, 직종, 직무 자율성 등의 요인과 성차별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함. 본 연구는 성차별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한 반면, 이전까지 그 악영향에 대한 완충요인으로 여겨졌던 고학력이 오히려 여성이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의 정신건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음. 또한 직무유형, 사업장 크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성차별의 영향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음.
- 본 연구는 직장 내 성차별이라는 사회적 불균형의 한 측면에서 여성 직장인의 우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인식된 성차별이 다양한 하위요인에 따라 여성의 우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별 문제의 해소는 물론 성차별 경험과 우울 간의 연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의의를 제시한 바 있음.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성이라는 BK사업의 목표와 일관적인 연구임.

□ 참여교수 대표 교육 실적 1.

▷ [교과 운영]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PSY1108) 교과 운영 (김학진 교수)

- 2022년 1학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대학원에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수업을 새롭게 기획하여 개설함. 심리학부 소속 9명의 전임교원과 1명의 비전임 연구교원이 참여하여 팀티칭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의하고 학기말에 수강생들의 그룹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였음. 본 강의를 통해 다양한 세부 전공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심리학부 대학원생뿐 아니라 미디어 학부, 디자인 조형학부, 교육학과 소속 대학원생 50명이 참여하였음. 본 강의를 통해 서로 다른 전공 분야 대학원생들 간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여 융합적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팀티칭 형식의 세미나 수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심리적 웰빙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세부 심리학 분야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관점과 해석을 접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 학기 동안 지속 가능한 심리적 웰빙이라는 주제에 공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음.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수강생과 강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음.

□ 참여교수 대표 교육 실적 2.

▷ 심리융합과학대학원 설립

-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심리학 이론과 지식을 토대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융합교육기관으로 심리융합과학대학원(Graduate School of Psychological Convergence Science)을 설립함[학과명: 심리융합학과(Department of Psychological Science); 2023년 3월 첫 신입생 모집 예정]. 본 기관에서는 심리과학의 인문사회심리학적 관점과 과학기술적 관점의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재직자(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교육 수요

자들을 교육 및 재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본 기관은 크게 개인심리,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루는 “소셜 인사이트 프로그램(Social Insight Program)” 과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둔 “테크 인사이트 프로그램(Tech Insight Program)” 의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기관의 타겟 그룹은 구체적으로, 소셜 인사이트 프로그램의 타겟 그룹은 인사담당자(HR), 정책개발자/공무원, 컨설턴트, 사회복지전문가, 사회적기업가, 제품매니저(PM), 문화산업컨텐츠 개발자, 과학커뮤니케이터, 기업임원 등이며, 테크 인사이트 프로그램의 타겟 그룹은 소프트/하드웨어 엔지니어, 신약/전자약 개발자, 플랫폼 개발자, UX 디자이너, AI개발자, 메타버스/AR/VR개발자 등임. 본 기관은 2년 6개월 (5학기) 야간 과정으로, 27개 과목을 운영하게 되며, 이수하는 자는 심리융합석사(Master of Psychological Science) 학위를 수여받게 됨. 본 기관의 운영을 통해 사회 현장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현실문제 해결 능력과 수행 능력을 고양함으로써 현 사회가 직면한 개인/사회적 위기에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리과학적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 1.1.1. 융합 교육을 위한 대학원 학사관리와 교육과정 개편 현황

##### □ 학사관리와 장단점 분석에 기반한 개선

##### ▷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용한 우수 학부생 대학원 유치 현황

- 우수한 학부생을 조기 선발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학생의 연구역량을 초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하여 최근 1년간 총 3명의 우수 학생이 선발되었음.
- 선발된 학생들은 학부과정 동안 높은 학점과 함께 대학원 과목 이수, 대학원 연구실 보조연구원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높은 교육 역량 및 연구 역량을 보유한 학생들이며, 인접 학문과의 연계적 교육 등을 통해 연구 성취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
- 선발된 학생의 연구 잠재력은 추후 심리학 학술 분야에서 양질의 연구 성과는 물론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됨.

<표 2-1> 학·석사 연계과정 선발 학생 우수 사항

연번	지도교수	학생성명	선발 학생 우수 사항
1	김학진	██████	본 학생은 1전공 한국사, 2전공 심리학으로 2022학년도 여름 현재 총142학점 평점평균 4.32를 유지하고 있으며, 졸업요건을 모두 취득한 상태임. 2022학년도 1학기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대학원 과목인 “고급심리통계”와 “신경윤리학특론”을 수강하였으며 모두 4.5의 학점을 받음. 김학진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Similarity-liking Effect 연구의 보조원으로 활동하며 피험자 모집, 실험 진행,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해 우수하게 활동함. 현재 사회비교 및 사회평가에 대한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2	양은주	██████	대학 수학 기간 중 중국학, 인문학과 문화산업, 심리학과 같은 여러 학문을 접해 폭넓은 심리학적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고, 3학기의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건문을 높여 다문화적 사고가 우수함. 학부시절 대학원 과목 6학점을 취득하여 빠른 대학원 생활 적응이 예상됨.

3	조양석	[REDACTED]	<p>[REDACTED] 학생은 학업 수행이 매우 우수하며, 주의와 인지 통제와 같은 인지 과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하였음. 또한 매우 성실하여 학부생으로서 연구실의 학부 연구생 활동을 하면서,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모든 방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연구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REDACTED] 학생이 학석사 연계 과정 중에 인지 심리학의 인지 통제에 대한 이론의 임상 장면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같은 보다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길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론과 응용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함.</p>
---	-----	------------	----------------------------------------------------------------------------------------------------------------------------------------------------------------------------------------------------------------------------------------------------------------------------------------------------------------------------------------------------------------

▷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현황 및 대학원 학위과정의 유연화

- 석·박사 통합과정의 확대를 위해 우수한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석·박사 통합과정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국내외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석·박사 통합과정 제도 및 선발 과정에 대해 안내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7명의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총 2명)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신입생으로(총 5명) 선발됨.
- 선발된 학생들은 행동인지 신경과학, 임상 및 상담심리, 소비자 및 광고심리, 문화사회성격심리 등 다분야에 걸쳐 선발되었으며, 학업적 우수성과 연구 역량 등을 인정받아 선발되었음.
- 선발된 학생들은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예, 행동활성화 프로젝트, ICT 통합 프로젝트 등)와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예, 내수용감각 민감도의 개인차와 도덕적 면허효과 간의 관련성 규명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다량의 연구 성과와 해당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됨.

<표 2-2> 석·박사 통합과정 선발 학생 우수 사항

연번	지도교수	학생성명	선발 학생 우수 사항
1	김학진	[REDACTED]	<p>본 학생은 석사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평점평균 4.44/4.5) 유지하였고, 심리학 연구 방법론에 우수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심리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자신의 상대적 지위에 따른 소비선택으로 인한 인상관리 전략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상대방의 소비선택으로 인한 인상형성 연구를 이어서 진행할 계획임.</p>
2	김학진	[REDACTED]	<p>[REDACTED] 학생은 최근 사회신경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내수용감각 민감도(interoception sensitivity)의 개인차와 도덕적 면허효과(moral licensing)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의 계획서를 지원 서류에 포함해서 제출한 바 있음. 특히, 이전에 행한 도덕적 행동 뒤의 경험이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면허효과의 특징을 토대로, 이전 감정 경험 후 신체반응이 뇌 속으로 전달되어 누적되는 정도에서의 개인차가 도덕적 면허효과에서의 개인차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추론은 창의적이고 검증가능성이 높은 좋은 가설이라 생각함. [REDACTED] 학생의 탁월한 논리력과 창의성 뿐 아니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면서 보여준 열정과 성실함은 함께 앞으로 유능한 연구자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자질이 될 것으로 기대함.</p>
3	박선웅	[REDACTED]	<p>학생의 우수한 영어 능력, 학부 때의 전공 지식과 학문에 대한 관심 및 열의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원 수업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충분한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이와 더불어 학문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연구자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원자를 선발하였음. 입학 전부터 연구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p>
4	최기홍	[REDACTED]	<p>[REDACTED] 학생은 청소년을 위한 행동활성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임상가로서의 역량</p>

			을 키웠으며, 최근 청소년을 위한 행동활성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심리치료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 [redacted] 학생은 차세대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의 융합인재의 역량을 함양하고 있음.
5	최기홍	[redacted]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과 심리학을 이중 전공하였으며, 앞으로 디지털 치료제 등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 학부에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팀에서 개발 경험이 있으며, 석박사통합과정 진학 후에는, 정신병리, 심리치료 이론/실습을 ICT와 통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융합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갈 것으로 기대함.
6	최기홍	[redacted]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였고, 행동치료와 성격검사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음. 학부 때에 행동활성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행동활성화를 청소년, 노인 등 심리학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지니고 있음. 임상심리학의 핵심 역량을 갖추고, 심리치료 개발 및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7	최기홍	[redacted]	우울장애 청소년을 위한 행동활성화치료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임상가 및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키웠으며 우울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스크리닝 도구 개발 및 타당화 논문 작성에 참여함. 또한 일상활력 스크리닝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논문 작성에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코로나 19 장기화가 한국인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조사 연구하여 논문 작성에도 참여함. 석박사통합과정 진학 후에는 군 사망자 유가족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참여하여 실태조사를 비롯해 유가족 및 실무자 인터뷰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며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멀티트랙(multi-track)을 통한 융합 교육

▷ 심리융합과학대학원 설립

-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심리학 이론과 지식을 토대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융합교육기관으로 심리융합과학대학원(Graduate School of Psychological Convergence Science)을 설립함[학과명: 심리융합학과(Department of Psychological Science); 2023년 3월 첫 신입생 모집 예정].
- 본 기관에서는 심리과학의 인문사회심리학적 관점과 과학기술적 관점의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재직자(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교육 수요자들을 교육 및 재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기관은 크게 개인심리,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루는 “소셜 인사이트 프로그램(Social Insight Program)” 과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둔 “테크 인사이트 프로그램(Tech Insight Program)” 의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기관의 타겟 그룹은 구체적으로, 소셜 인사이트 프로그램의 타겟 그룹은 인사담당자(HR), 정책 개발자/공무원, 컨설턴트, 사회복지전문가, 사회적기업가, 제품매니저(PM), 문화산업콘텐츠 개발자, 과학커뮤니케이터, 기업임원 등이며, 테크 인사이트 프로그램의 타겟 그룹은 소프트/하드웨어 엔지니어, 신약/전자약 개발자, 플랫폼 개발자, UX 디자이너, AI개발자, 메타버스/AR/VR개발자 등임.
- 본 기관은 2년 6개월 (5학기) 야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수하는 자는 심리융합석사(Master of Psychological Science) 학위를 수여받게 됨.
- 개설교과목은 27개 과목을 운영할 예정임.
- 본 기관의 운영을 통해 사회 현장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현실문제 해결 능력과 수행 능력을 고양함으로써 현 사회가 직면한 개인/사회적 위기에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리과학적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표 2-3> 심리융합과학대학원 개설교과목 목록

(\* SI: 소셜 인사이트 프로그램, TI: 테크 인사이트 프로그램)

연번	교과목명	담당교수	비고
1	심리과학 방법론	-	공통
2	심리과학 이론	-	공통
3	디지털미디어와 사용자 경험	성용준	SI/TI
4	인식의 다양성과 개인차	김채연	"
5	선택의 심리학	김학진	"
6	정신질환과 디지털치료제	허지원	"
7	리더의 정서소통	최기홍	SI
8	브랜딩	성용준	"
9	사회적인 뇌	김학진	"
10	성격장애와 집단 역동	허지원	"
11	행복의 심리학	고영건	"
12	자기이해와 리더십	박선용	"
13	직무스트레스관리	양은주	"
14	직장 내 신경다양성 이해와 포용	김소현(신임교원)	"
15	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심리학	최은수	"
16	웰빙 심리학	최은수	"
17	조직내 심리적 안전감	하유진(겸임교원)	"
18	한국인의 특성과 조직문화	허태균	"
19	시스템과 사용자 경험	조양석	TI
20	정신건강 평가기술	최기홍	"
21	감각 디자인	김채연	"
22	ICT기반의 인지기능 평가	남기춘	"
23	심리학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남기춘	"
24	인공지능의 심리학적 활용	최준식	"
25	뇌과학과 미래산업	최준식	"
26	디지털 Phenotyping의 임상적 적용	김소현(신임교원)	"
27	약물과 인간사회의 지속가능성	조용상	"

▷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기술 교육

- 21세기 4차 산업 기반 새로운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들이 데이터 분석 기초 소양 및 인공지능 기반 기술 관련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함. 이에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원의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 기초 기술 교육을 희망자 중심으로 실시함.
- 또한, 데이터과학원에서 개설하는 온라인강좌(49개 비교과 과목)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고 희망자 중심으로 자유롭게 수강하도록 장려함.
- 외부 학회에서 주최하는 데이터 분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지원함.
- 추후 신입생 포함 모든 학생들이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데이터 분석 기초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임.

<표 2-4> 데이터과학원 교과 이수 내역

학기	프로그램명	참여 기간 및 일자	이름
2021년 2학기	딥러닝원리와 응용	2021.09.01~2021.12.21	[Redacted]
	클라우드컴퓨팅입문	2021.09.01~2021.12.21	[Redacted]
	인공지능과 미래산업특강	2021.09.01~2021.12.21	[Redacted]
	데이터과학입문	2021.09.01~2021.12.21	[Redacted]
2022년 1학기	인공지능 입문	2022.03.01~2022.6.31	[Redacted]

<표 2-5> 데이터과학원 온라인 개설 강의 목록

개설학기	데이터과학원 온라인 개설 강의 목록
2021년 2학기	알파고의 목적함수(오리지널 알파고 - 이세돌ver), 알파Zero의 목적함수(알파고 마지막 버전), 디지털 인문학이란?, 디지털 인문학과 빅데이터, 디지털 인문학을 위한 데이터과학, 빅데이터 시대, 왜 우리는 데이터과학자가 되어야 하는가?, 좋은 데이터과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누가 미래의 권력이 될것인가 - 빅데이터의 주인을 찾아서, 과학적 사고관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오류, 강화학습이란 무엇일까? 예시로 알아보는 강화학습, 길찾기 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동적계획법, Multi-armed bandit 문제를 통해 알아보는 학습의 이해, 예시를 통해 이해해보는 Q-러닝, 모델 학습의 기본 원리, 예측 모델 학습을 위한 절차, 다양한 예측 모델 소개, AI in Smart City, AI의 취약점 공격, Secure AI, 뇌의 구조와 연결망, 뇌를 본다, '뇌의 언어, 인지, 생각', 뉴로모핑 정의 및 배경, 인공 뉴럴 네트워크/인공 시냅스, 사회학적 상상력, 새로운 데이터를 만나다, 데이터 상대성의 원리, 데이터는 과연 객관적일까?, 사회학이 의학을 만났을 때, 관계학 개론: 사회 연결망 분석, 사회학적 상상력, 새로운 데이터를 만나다, 데이터 상대성의 원리, 데이터는 과연 객관적일까?, 사회학이 의학을 만났을 때, 관계학 개론: 사회 연결망 분석
2022년 1학기	인공지능은 또 무엇인가,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 데이터와 벡터, 인공지능과 행렬, 인공지능과 융합교육, 인공지능과 사반트: 모라벡의 역설, 인공지능과 여배우: 특징 추출, 인공지능과 고양이: 결과의 법칙, 프로그래밍의 시작: Hello World, 프로그래밍의 재료: 변수와 자료형, 프로그래밍의 흐름: 조건문과 반복문, 프로그래밍의 기능: 함수와 파일처리, 분류기 프로그래밍 기본, 분류기 프로그래밍 구현, 인공신경망 프로그래밍 기초, 인공신경망 프로그래밍 구현

□ 융합 교육과정을 위한 학사운영 현황

▷ 행동인지신경과학 전공의 운영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는 생물심리학과 인지심리학 전공 간의 경계가 통합되고 있는 현대 심리학의 기류에 맞추어 행동인지신경과학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 중임. 본 전공은 여섯 명의 참여교수 공동 운영을 통해 지각, 주의, 기억, 정서, 언어, 의사결정에 이르는 인지과정에 대한 연

구주제를 포괄하며, 전기생리학 방법부터 뇌 영상화 방법까지 다양한 신경과학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음.

- 행동인지신경과학 전공설명회 개최 (2021년 9월 10일): 2020년 2학기에 이어 2021년도 2학기에도 행동인지신경과학 전공설명회를 개최하여 행동인지신경과학 석사, 박사 및 통합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도모하였음. 본 전공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행동인지신경과학을 구성하는 다섯 개 세부 연구실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였음. 구체적으로, 언어인지과학 연구실(인간의 언어 정보 처리과정을 통해 인지체계 연구), 생물심리학 연구실(동물모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학습과 정서 연구), Human Performance 연구실(행동 및 뇌파 실험을 통한 주의와 인지통제 시스템 연구), 시각인지신경과학 연구실(시지각 및 다중감각 상호작용 경험의 신경 기전 연구), 사회의사결정 연구실(뇌 과학을 기반으로 사회의사결정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담당교수 소개, 대학원 소개, 추후 진로에 대한 소개 등을 다루었음. 본 행사에서는 심리학 대학원에 관심있는 교내외 구성원 다수가 참여하여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음.

▷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PSY1108)

- 2022년 1학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대학원에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수업을 새롭게 기획하여 개설함. 심리학부 소속 9명의 전임교원과 1명의 비전임 연구교원이 참여하여 팀티칭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의하고 학기말에 수강생들의 그룹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였음. 본 강의를 통해 다양한 세부 전공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심리학부 대학원생뿐 아니라 미디어 학부, 디자인 조형학부, 교육학과 소속 대학원생 50명이 참여하였음. 본 강의를 통해 서로 다른 전공 분야 대학원생들 간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여 융합적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팀티칭 형식의 세미나 수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심리적 웰빙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세부 심리학 분야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관점과 해석을 접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 학기 동안 지속 가능한 심리적 웰빙이라는 주제에 공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음.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수강생과 강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음.

□ 타 전공과의 융합연구 및 교육의 확대 현황

- 본 교육연구단은 심리학 외의 타 전공과의 연계성을 살려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교류를 통한 사회적, 학문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1년간 총 19건의 융합연구가 진행됨.

<표 2-6> 공동 연구 현황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공동 연구자 소속기관	참여 BK대학원생	공동 연구 및 교육 내용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타 전공 및 타 학교 공동연구자			
1	남기춘	황보택근	가천대학교		남기춘 교수는 황보택근 교수와 함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뇌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공동 연구를 수행함. 구체적으로, 인간의 언어기능을 대상으로 좌

					우반구 협응과 같은 다양한 뇌의 작동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인간의 고차원 인지 기능에 해당하는 언어 기능의 신경 로드맵을 구축한 결과를 의료 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언어 신경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인지 검사 등을 개발하여 취약계층이 손쉽게 뇌 질환의 전조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함
2	김학진, 허지원	김상희, 이종환, 조항준, 이혜경, 김현철	고려대 뇌공학과, 한양대 의과대학, 서울대 핵의학과, 경북대 인공지능학과	김학진연구실  허지원연구실 	고려대 심리학부 허지원 교수, 고려대 뇌공학과 김상희 교수와 이종환 교수, 한양대 조항준 교수, 서울대 이혜경 교수, 경북대 김현철 교수들이 참여하여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각 연구실 별로 순번을 정하여 연구발표를 진행하고 발표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뇌영상연구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3	최기홍	안병철, 홍광표, 윤호준, 박은영, 조혜령, 윤숙영, 박미옥, 윤영조, 이애란, 이경주, 이택주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사)한국디자인학회, 조경하다 열음,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그린트러스트,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나사렛대학교 스마트그린도시산업 전공,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한택식물원		최기홍 교수는 국립수목원에서 주관한 '사회적 약자 가드닝 프로그램' 연구에서 총 11개 기관의 연구책임자들과 함께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들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드닝 프로그램의 메뉴얼화 및 배포를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 중임.
4	최기홍	최준연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최기홍 교수는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의 최준연 교수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이공계 중견과제의 일환으로 '머신러닝 기반 성격평가 알고리즘 개발' 연구를 진행 중임. 본 과제는 기존의 자기보고식 지필검사로 이루어진 성격검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방식이 측정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자기편향, 타당성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기술의 토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함
5	최기홍, 최준식	고선강 유승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최기홍연구실 [Redacted] 최준식연구실 [Redacted]	최기홍, 최준식 교수는 고선강(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유승현(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교수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노인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위한 심리과학 기반의 비대면 마음돌봄 서비스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중임. 본 연구는 심리과학 콘텐츠(예: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코칭 등)를 노인 친화적 UI/UX로 개발하고, 개발된 노년기 비대면 마음돌봄 서비스를 기존의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사회에 보급 및 활용하고자 함. 새로 개발된 서비스는 기존의 통합 돌봄 서비스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임.
6	최기홍	서동기, 이종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Redacted]	최기홍 교수는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의 서동기 교수, 세종대 소프트웨어 학과의 이종원 교수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학제간 융합사업을 진행하면서, ICT 기반의 노년 활력지수 개발 및 활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중임. 본 과제를 통해 노년 활력의 심리학적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평가하며, 근거-기반의 개입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음. 연구의 일환으로 심리측정에서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생태순간평가를 위한 플랫폼 개발 및 노인 인구의 인지 기능 훈련을 위한 증강현실 TMT 훈련을 개발하고 있으며, 생태순간평가로 측정한 노년기 활력 지수를 활용하여 노년기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분석함.
7	고영건	고혜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Redacted]	성적지향에 따른 심리적 자화상과 정신건강 연구 (21년 12월, RCP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제출 후 학술지 발표 준비 중)
8	조용상	김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Redacted]	스트레스 및 우울상황에서 외측고삐핵(lateral habenula)의 trace amine을 만드는 뉴런들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9	조용상	손기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Redacted]	중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일주기 및 아일주기 행동패턴에 기여하는 역할 규명 연구
10	조용상	한정수	건국대학교 생명과학특성학과	[Redacted]	SELENBP1 유전자가 조현병의 부정적 증상을 유발하는데 기여하는 역할 규명

11	조용상	Sung Han	Salk Institute / 미국		후뇌 부완핵(parabrachial nucleus)의 CGRP 뉴런들이 강화물과 혐오자극에 반응패턴 규명 연구
12	조용상	Larry Zweifel	University of Washington / 미국		공포기억의 형성 및 소거과정에서 중뇌 도파민 뉴런들의 역할 규명 연구
13	최준식	차영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략적 탐색 신경회로 작동방식에 기반한 가치 지도화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연구
14	최준식	육정슬	POSTECH 컴퓨터공학과		전략적 탐색 신경회로 작동방식에 기반한 가치 지도화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연구
15	최준식	윤기중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전략적 탐색 신경회로 작동방식에 기반한 가치 지도화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연구
16	김채연	정상철, 이인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인지과학협동과정		김채연 교수는 2021. 12. 31까지 정상철, 이인아 교수와 함께 인간과 비인간 영장류의 뇌 신경회로에서 범주적 지각-재인 정보처리가 일어나는 핵심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해당 연구에는 사업단 지원 박사과정생 박민선 학생이 참여함. 구체적으로 범주적 지각-재인의 신경기전 규명 및 진단/향진/평가 기술을 개발함. 궁극적으로 4차산업의 핵심요소인 AI의 범주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하고, 뇌과학에 기반한 일반교육 현장의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집단의 훈련 프로그램 과학화를 도모하였음.
17	조양석	유성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조양석 교수는 유성은 교수와 자살 생각자와 자살 시도자의 반응 억제 능력이 정서 맥락에서 정상인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인터뷰 방법과 실험 방법을 함께 이용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자살 생각자와 시도자들의 반응 억제 능력은 부정적인 맥락보다는 정서적인 맥락에서 정상인과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자살 생각자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사회 정서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18	조양석	Jacqueline C Shin	Indian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조양석 교수는 Shin 교수와 함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리듬을 갖고 나타나는 시각자극에 따라 우리의 주의 능력이 자극이 제시되는 리듬을 학습하고, 그에 따라 주의의 능력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35명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의 다이내믹에 적용과 관련된 연습의 효과를 밝혔으며, 주의의 능력이 자극 제시

					timing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줌.
19	조양석	김성필, 권오상	UNIST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조양석 교수는 UNIST의 김성필 교수와 함께 인간 대상자에게 Musical pitch(도,레,미,파,솔,라,시)가 ERP 패턴에 표상되는지 알아보고자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논문화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음.

### 1.1.2.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

#### □ 융합적 교과 프로그램의 신설 및 확대 현황

#### ▷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PSY1108)

- 2022년 1학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대학원에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수업을 새롭게 기획하여 개설함. 심리학부 소속 9명의 전임교원과 1명의 비전임 연구교원이 참여하여 팀티칭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의하고 학기말에 수강생들의 그룹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였음. 본 강의는 심리학부 대학원생뿐 아니라 미디어 학부, 디자인 조형학부, 교육학과 소속 대학원생 50명이 참여하였고, 본 강의를 통해 서로 다른 전공 분야 대학원생들 간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여 융합적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수강생과 강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음.

<표 2-7>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강의계획서 및 설계내용

주	기간	학습내용	활동 및 설계내용
1	3/3	오리엔테이션	-
2	3/10	제 1강 지속가능한 행복의 조건: 8가지 최상위 긍정감정 (고영건)	사람들마다 행복의 정의는 다양함. 근원적으로 진정한 행복 혹은 웰빙은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함.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긍정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오지각하는 경향이 있음.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쾌락은 불응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것이 아닌 반면에 기쁨, 희망, 사랑, 믿음, 연민, 감사, 용서 그리고 경외감은 불응기가 존재하지 않아 지속가능함. 행복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8가지 최상위의 긍정감정을 바탕으로 품격을 갖춘 것이어야 함.
3	3/17	제 2강 서사정체성과 지속가능한 심리적 웰빙 (박선웅)	많은 연구에서 정체성과 심리적 안녕은 깊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개인의 인생 서사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굴곡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본 강의에서 서사로서 삶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논한다.
4	3/24	제 3강 알로스테시스를 통한	신체항상성 유지를 위해 외부환경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뇌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신체 · 심리 · 사회적 균형 (김학진)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하며 이 과정을 알로스테시스라 부름. 이 강의에서는 알로스테시스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들을 학습하는 뇌가 어떻게 가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뇌 과학적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함.
5	3/31	제 4강 뉴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용준)	뉴미디어 이용에는 다양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본 수업에서는 뉴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심리학 그리고 미디어 이론을 통하여 뉴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6	4/7	제 5강 쾌락, 놀람 그리고 도파민 (조용상)	우리의 뇌에서 중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어떤 신호를 전달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학습한다. 과거에는 도파민 시스템이 주로 쾌락감정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놀람 신호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서 도파민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본다.
7	4/14	제 6강 약물중독과 도파민 (조용상)	정상적인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을 기반으로 약물, 술, 그리고 도박 등 중독행동과 도파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중독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한다.
8	4/21	제 7강 지속가능한 자존감 Sustainable self-esteem (허지원)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인은 크게 외현적 자존감 및 내현적 자존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외현적 자존감, 내현적 자존감의 정의 및 그간의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문제를 살펴보고 상태 자존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토대로 자존감의 지속 가능한 유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9	4/28	제 8강 디지털치료제는 정신건강 불평등의 만병통치약인가 Digital snake-oil for mental health inequality (허지원)	사회경제적 제약과 관련한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치료제의 적용성 및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때 디지털 치료제가 실제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10	5/5	휴강(어린이날)	-
11	5/12	제 9강 Decent work: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양은주)	본 강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하나인 Decent work의 상담심리학적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Psychology of Working Theory에서 제시하는 Decent Work의 개념과 모형에 대해 개관하고, 이를 기초로 한 국내 여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12	5/19	제 10강 인터넷을 이용한 인지심리검사의 접근성	인지심리검사는 뇌의 기능을 행동 반응으로 측정하여 사용자의 현 상태를 알려 준다. 사용자가 일정기간동

		강화 (남기춘)	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본인의 인지 변화의 프로파일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인지 상태를 아는 것은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 병원이나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곳에 가기에는 여러 면의 장애가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인터넷을 이용한 인지심리검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소외 계층을 포함하여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강의에서는 현황, 개발의 핵심, 확산 방법 등에 대해 폭 넓게 읽고 토론하며 실습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다.
13	5/26	제 11강 자기거리두기(self-distancing): 개념, 측정방법, 효과 소개 (조명현)	자기거리두기(self-distancing)는 자신에게 몰입하는 상태의 반대 개념으로, 자신의 경험을 다룰 때 한 발짝 물러나서 이를 다소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일컫는 개념임. 그 간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거리두기를 많이 하는 것이 개인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지배적임. 이에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자기거리두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효과와 역효과가 있는지 등을 정리하면서 자기거리두기의 학술적 실용적 함의와 함께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고찰을 해볼 것임.
14	6/2	제 12강 실패와 지속가능한 성장 (최은수)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됨. 그런데 이 실패의 경험을 누군가는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극복하지 못하는 반면, 누군가는 이를 계기로 더 큰 성장을 이루기도 함. 이 강의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실패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실패를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 실패를 극복하고 나아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제언을 주는 연구들을 살펴볼 것임.
15	6/9	(이하) 참여학생 발표 및 토론	(이하) 참여학생 발표 및 토론 내용
		1조 [Redacted]	계급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관련된 사례 및 사회현상을 소개하고, 행동 연구를 통해 계급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음. 더불어 주관적 계급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우울과 자해를 알아보았음. 마지막으로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지, 정책 및 교육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함.
		2조 [Redacted] (BK미참여), 시니어에 대한 사회인식변화가 실제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의 지속가능성이 향하는 시기인 노년기(시니어)에 대한 사회 인식변화가 실제 시니어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는 지를 알아보으므로써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이를 위해 시니어의 주체성이 강조된 공익 광고를 시니어들에게 1개월 간 반

			<p>복 시정하게 한 후, 그들의 활력 및 정서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질적 연구 방법을 제안함.</p>
		<p>3주</p> <p>AI 스피커 대화에 기반한 노년층 우울 수준 평가 알고리즘 개발</p>	<p>현대사회에서 노년 우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해 우울군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층을 표집해 우울한 노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추출해 우울군의 디셔너리를 만들어 알고리즘에 학습시킨 후, 이후 AI 스피커를 통해 수집되는 대화를 이 디셔너리에 기반해 구분하여 적절한 처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p>
		<p>4주</p> <p>시각/운동/인지 능력에 따른 고령자의 운전 능력 측정</p>	<p>고령 운전자의 노화에 따른 시각/운동/인지의 변화가 운전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음</p>
		<p>5주</p> <p>제품 속성과 녹색 제품 지식의 상호작용이 그린워싱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p>	<p>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몇몇 기업은 이러한 인식을 이용한 그린워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음. 이에 제품 속성과 녹색 제품 지식의 상호작용이 그린워싱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제안함. 구체적으로 녹색 제품 지식이 많은 소비자는 제품 평가에서 그린워싱이 발생한 제품의 속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녹색 제품 지식이 적은 소비자는 외재적 속성보다 내재적 속성에서 그린워싱이 발생했을 때 제품 속성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함.</p>
16	6/16	<p>6주</p> <p>취업준비생의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일의 의미의 조절효과</p>	<p>취업준비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있어, 일의 의미의 조절효과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함. 이전 연구들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가 비일관적이었던 점, 그리고 현 젊은 세대가 외적 자원을 중시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내적/외적 자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계획함.</p>
		<p>7주</p> <p>지속가능한 성생활을 위한 캠페인: 해석수준이론과 자기확장의 적용</p>	<p>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성생활은 관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중요한 반면 한국인의 성생활 실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본 연구팀은 한국인의 지속 가능한 성생활을 저해하는 성적 의무감과 성적 지루함을 낮출 수 있는 캠페인을 설계하였음. 구체적으로 3주간의 캠페인에서 시간적거리를 다르게 점화하는 메시지를 제공하고, 자기확장 과제를 개입함으로써 성적만족과 관계만족을 높이고자하였음.</p>
		<p>8주</p>	<p>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문화에 따라 AI 스피커의 소통 방식에</p>

	<p>노인들의 외로움 해소를 통한 웰빙 제고</p>	<p>대한 선호가 다를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노인들이 AI 스피커와 상호작용시 느끼는 웰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즉, 독립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은 고각성 AI 스피커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며, 이로 인해 고각성 AI 스피커와 상호작용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웰빙을 느낄 것으로 예상함.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은 저각성 AI 스피커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며, 저각성 AI 스피커와 상호작용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웰빙을 느낄 것으로 예상함.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AI 스피커의 소통 방식을 각 문화에서 선호하는 각성 수준에 맞게 디자인함으로써 AI 스피커가 노인들의 웰빙 향상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p>9주</p> <p>대칭적 제로섬 인식</p>	<p>우리나라의 젠더 갈등 맥락에서 바라본 비대칭적 제로섬 인식에 대한 연구주제를 제시함. 비대칭적 제로섬 인식이란, 제로섬 인식에서 더 나아가서 내집단의 이익은 외집단의 손해가 아니지만 외집단의 이익은 내집단의 손해라는 왜곡된 비대칭적 인식을 뜻함 (Roberts &amp; Davidai, 2021). 우리나라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권익 위원회의 새로운 위원(남성 혹은 여성 후보)을 뽑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실험 연구를 계획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에 내재한 비대칭적 제로섬 인식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하였음.</p>
	<p>10주</p> <p>이타행동의 효과성 검증 실험 연구</p>	<p>의도된 이타행동이 개인의 행복감 및 집단의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함. 의도된 이타 행동 집단이 자기 돌봄 행동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감과 집단 응집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이타 행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p>

▷ 정서와 문화 (PSY 2126)

- 정서와 문화는 2021년 1학기에 처음 개설된 대학원 영어강의 과목으로, 인간의 정서를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융합적으로 바라보는 성격의 과목임. 본 수업에서는 인간의 정서가 사회적, 대인관계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특히 본 수업은 인간의 정서경험을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뇌신경과학 등의 기초과학 관련분야의 내용을 융합하고 확장하여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음. 본 수업은 14명이 수강하였고,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정해진 주제에 대해 발제자가 발표를 한 후 이 내용에 대해 모두가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표 2-8> 정서와 문화 강의계획서

Date	Articles
Week 1 (3/4)	Introduction to class and review of syllabus
Week 2 (3/11)	What are emotions? Emotion as psychological 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rrett, L. F. (2012). Emotions are real. <i>Emotion</i>, 12(3), 413-429.</li> <li>▪ Lindquist, K. A., Gendron, M., Oosterwijk, S., &amp; Barrett, L. F. (2013). Do people essentialize emotions?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essentialism and emotional experience. <i>Emotion</i>, 13(4), 629-644.</li> </ul>
Week 3 (3/18)	<p>Affect-as-inform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hwarz, N., &amp; Clore, G. L. (1983). Mood, misattribution, and judg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i>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i>, 45(3), 513-523.</li> <li>▪ Oishi, S., Schimmack, U., &amp; Colcombe, S. J. (2003). The contextual and systematic nature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i>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i>, 39(3), 232-247.</li> </ul>
Week 4 (3/25)	<p>Emotion and cogni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m, K. C., Buehler, R., McFarland, C., Ross, M., &amp; Cheung, I. (2005). Cultural differences in affective forecasting: The role of focalism. <i>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i>, 31(9), 1296-1309.</li> <li>▪ O'Brien, E., Kristal, A. C., Ellsworth, P. C., &amp; Schwarz, N. (2018). (Mis)imagining the good life and the bad life: Envy and pity as a function of the focusing illusion. <i>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i>, 75, 41-53.</li> </ul>
Week 5 (4/1)	<p>Affect influencing judg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d, B. Q., Tamir, M., Brunyé, T. T., Shirer, W. R., Mahoney, C. R., &amp; Taylor, H. A. (2010). Keeping your eyes on the prize: Anger and visual attention to threats and rewards. <i>Psychological Science</i>, 21(8), 1098-1105.</li> <li>▪ Dorison, C. A., Wang, K., Rees, V. W., Kawachi, I., Ericson, K. M., &amp; Lerner, J. S. (2020). Sadness, but not all negative emotions, heightens addictive substance use. <i>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i>, 117(2), 943-949.</li> </ul>
Week 6 (4/8)	<p>Two different kinds of happi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umeister et al. (2020). Everyday thoughts in time: Experience sampling studies of mental time travel. <i>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i>, 46(12), 1631-1648.</li> <li>▪ Kim, Kang, &amp; Choi (2014). Pleasure now, meaning later: Temporal dynamics between pleasure and meaning. <i>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i>, 55, 262-270.</li> </ul>
Week 7 (4/15)	<p>Ideal affe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sai, J.L., Louie, J., Chen, E.E., &amp; Uchida, Y. (2007). Learning what feelings to desire: Socialization of ideal affect through children's storybooks. <i>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i>, 32, 1-14.</li> <li>▪ Park, B., Genevsky, A., Knutson, B., &amp; Tsai, J. (2020). Culturally valued facial expressions enhance loan request success. <i>Emotion</i>, 20(7), 1137-1153.</li> </ul>
Week 8 (4/22)	Midterm week - No class meeting (Proposal idea deadline)
Week 9 (4/29)	<p>Emotion in grou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ddy, A. J., Fiske, S. T., &amp; Glick, P. (2007).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i>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i>, 92(4), 631-648.</li> <li>▪ Brescoll, V. L., &amp; Uhlmann, E. L. (2008). Can an angry woman get ahead? Status conferral, gender, and expression of emotion in the workplace. <i>Psychological Science</i>, 19(3), 268-275.</li> </ul>

Week 10 (5/6)	Guest lecture '한국인과 일본인의 심리' (한민 박사,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Week 11 (5/13)	Motivating force of emotion - bored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an Tilburg, W. A., Igou, E. R., Maher, P. J., Moynihan, A. B., &amp; Martin, D. G. (2019). Bored like Hell: Religiosity reduces boredom and tempers the quest for meaning. <i>Emotion</i>, 19(2), 255.</li> <li>Pfattheicher, S., Lazarević, L. B., Westgate, E. C., &amp; Schindler, S. (2020). On the relation of boredom and sadistic aggression. <i>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i>.</li> </ul>
Week 12 (5/20)	Emotion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tsumoto, D., Yoo, S. H., &amp; Nakagawa, S. (2008). Culture,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i>, 94(6), 925.</li> <li>Tamir, M., &amp; Ford, B. Q. (2012). When feeling bad is expected to be good: Emotion regulation and outcome expectancies in social conflicts. <i>Emotion</i>, 12(4), 807.</li> </ul>
Week 13 (5/27)	Emotions in political ori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orat, R., Tamir, M., Wohl, M. J., Gur, T., &amp; Halperin, E. (2019). Motivated emotion and the rally around the flag effect: liberals are motivated to feel collective angst (like conservatives) when faced with existential threat. <i>Cognition &amp; Emotion</i>, 33(3), 480-491.</li> <li>Hasson, Y., Tamir, M., Brahm, K. S., Cohrs, J. C., &amp; Halperin, E. (2018). Are liberals and conservatives equally motivated to feel empathy toward others? <i>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i>, 44(10), 1449-1459.</li> </ul>
Week 14 (6/3)	New emo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ancato, D. M., &amp; Keltner, D. (2021). Awe, ideological conviction, and perceptions of ideological opponents. <i>Emotion</i>, 21(1), 61-72.</li> <li>Gordon, A. M., Stellar, J. E., Anderson, C. L., McNeil, G. D., Loew, D., &amp; Keltner, D. (2017). The dark side of the sublime: distinguishing a threat-based variant of awe. <i>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i>, 113(2), 310.</li> </ul>
Week 15 (6/10)	Proposal presentation (1)
Week 16 (6/17)	Proposal presentation (2)

□ 학생 성과 관리를 위한 연차평가제도 도입

-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피드백을 제공함
- 구체적으로, 최근 1년간 정기적으로 랩미팅 및 개인 면담형 연구미팅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실적/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함. 개인 면담형 연구미팅의 경우, 각 지도교수들이 해당 학생 연구의 전 단계 (연구 계획, 진행, 결과 분석 및 논문 집필) 의 모든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지난 성과에 대한 평가 제공과 향후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추가적으로 논문 미팅을 통해 최신 출판 논문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연구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여 학생 개인의 연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함께 모색함.
- 아울러, 학생들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매 학기말 연구진행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해당 학기 진행한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내용 및 기타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지도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실적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음.

- 성과가 우수한 학생의 경우, 국내/외 워크숍 및 학회 참석에 대해 비용 지원(국내 지원 8,385,000원, 해외 단기 총 17,021,062원, 해외 장기 총 4,968,400원)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연구 의욕을 극대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연구역량을 강화함 (참조: 표 2-10. 국내 학술대회 참여 지원, 표 2-16. 해외 단기연수 지원, 표 2-17. 해외 장기연수 BK지원 및 정부지원).

<표 2-9> 연구실별 지도 내용

교수성명	지도 내용
고영진	세부 프로젝트 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상담센터 심리서비스 프로젝트, 로르샤흐 연구 프로젝트, 심리상담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1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연구미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학생 개인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2주에 한번 면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이 생길 때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연구미팅을 진행하고 있음.
김채연	매주 지도학생들과 단체 미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실적/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을 제공함. 또한 주 1회 랩미팅을 통해 최신 출판 논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연구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고 개인 연구에 적용가능성을 모색함
김학진	정기적인(주 1회) 개인 미팅을 진행하여 학업 및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지도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피드백 제공
남기춘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 연구 회의를 진행하여, 주간 연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각 팀별로 보고하고 피드백을 공유함. 각 팀 별로는 주 1회 연구 회의를 진행하며 지정된 날짜에 지도교수와 해당 팀원들이 모여서 주간에 진행해야 할 사안을 논의하고, 피드백을 전달함. 각 연구 대학원생의 논문 미팅은 주 1회, 유동적인 일정으로 진행함
박선웅	각 학생별로 세부적인 진척 상황 및 점검을 위해 progress report를 주기별로 작성. 또한, 방학기간 전체 학생들이 모여 전반적인 프로젝트 및 논문 작업에 대한 피드백 제공을 위해 각자 진행하는 연구 발표
성용준	2주에 한 번 정기 랩미팅과 개인 면담형 연구 미팅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연구의 아이디어 도출, 실험 설계, 논문 작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크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함
양은주	지도학생들은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별로 주 1회 정기적인 연구미팅에 참여함. 프로젝트 초기 학생별로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매주 진행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였음. 추가적인 역량 개발이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 및 워크숍을 연계하여 연구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도 학생의 성과에 대해서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집단 및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였음.
조양석	지도 학생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주 연구실 모든 학생과 함께 모여 지난 주의 성과와 앞으로 해야 할 연구에 대해 계획을 세우며, 매주 개인별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함. 이와 더불어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 때 각 지도학생의 연구와 학업 목표를 구체화해주며, 학기가 끝나면 지도학생과 지난 학기에 대한 성과를 논의함
조용상	대면 피드백을 위주로, 행동 실험과 시술의 과정에서 시범과 조언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나아가면 좋은 연구의 방향에 대한 조언과 면담을 나눔. 2달 주기로 각 대학원생의 현재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또한 개선점 및 후속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를 진행함.
최기홍	매주 랩 미팅을 진행하며 연구 및 교육 관련 진행 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함
최은수	랩미팅은 일주일에 한번을 원칙으로, 금요일 오후에 이루어짐. 학생들은 목요일 자정까지 한 주간 수행했던 연구 활동을 정리하여 연구 노트에 업데이트 함. 구글 드라이브에 랩 인원 전체에게 공유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코멘트를 해줌. 지도교수는 연구노트를 매주 확인하여 학생들과 랩미팅 이외의 개별미팅은 수시로 가짐.
최준식	대면 피드백 또는 서면 피드백을 제공하여, 실험의 계획 단계, 진행 단계, 그리고 실험 데이터의 분석 단계의 진척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함. 연구노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학생들의 연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함
허지원	매주 학생 전원이 참석하는 정규 랩미팅을 진행하며, 이때에는 각 연구의 진척상황 및 어려움을 논의하며 최신의 연구경향과 관련하여 지도교수 및 학생이 짧은 발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그외 참고할만한 최신의 논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공유되고 있으며 피드백은 텔레그램 및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진행됨. 또한 교수연구실로 약속을 미리 하거나 혹은 약속 없이도 찾아와 연구에 대한 논의 및 피드백을 진행함. 또한 '목요메일' 시스템이 있어 학생이 매주 어떤 일을 하였고 연구 진척상황은 어떠한지 특히 어떤 학생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주 보고하는 이메일을 받아보고 있으며, 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질문 및 건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음. 해당 이메일에 대해서는 필요시 그 즉시 응답을 하고 있음.
허태균	2주에 1회 정도 학생들과 연구 미팅을 가져 졸업 논문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 이외에 필요할 시 학생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연구 상황을 파악함

<표 2-10> 국내 학술대회 참여 지원

학술대회 기간	참여 학회명	개최 기관명	학회참가자 성명 학술대회 참여 수혜액(원)
20211002 ~20211113	2021 연구방법론 기초학교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 (총 160,000원)
20211105 ~20211106	2021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뇌기능매핑학회	██████████ (총 560,000원)
20211029 ~20211030	2021 학술대회	(사) 한국상담심리학회	██████████ (총 240,000원)
20211021 ~20211022	한국임상심리학회 2021 가을 학술대회	한국임상심리학회	██████████ (총 1,870,000원)
20211106	2021년 한국학교심리학회 추계 온라인 학술대회	한국학교심리학회	██████████ (총 25,000원)

20211120	2021 연구방법론 기초학교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총 120,000원)
20220122	2022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동계보수교육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총 480,000원)
20220407 ~20220408	202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 140,000원)
20220414 ~20220416	한국임상심리학회 2022 봄 학술대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총 3,740,000원)
20220706 ~20220707	2022년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대학원생 세미나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총 540,000원)
20220719	2022 하계 통계 워크숍	고려대학교 통계연구소	(총 50,000원)
20220811 ~20220814	2022 하계 방법론 워크숍	한국교육엔심리연구소	(총 400,000원)
20220818 ~20220820	2022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한국심리학회	(총 60,000원)
			총 8,385,000원 지원

□ **교육과정의 정기적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의 강화**

-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하였음. 교무처 방침에 따라 2021년 1학기부터 중간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음. 수업 개선 요소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 등이 평가에 포함되었으며, 교원들은 본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 방법에 대해 학생들과 수업 중 적정한 방법으로 논의함.
- 대학원생의 지적 욕구에 부응하고 학문적 필요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평가기간을 포함 지난 2년간 총 49개 강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 지식을 제공하였음.
- 2021년 1학기(2021년 2학기 중에 선정), 2021년 2학기 기준(2022년 1학기 중에 선정), BK참여교수 3명을 포함 7명의 전임 및 비전임 교수가 석탑강의상(강의 평가점수 상위 5% 이내) 혹은 우수강의상(강의 평가점수 상위 20% 이내)을 수상하였음.

〈표 2-11〉 석탑강의상 및 우수강의상 수상 교수 명단

학기	성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	수강인원	선정 구분	교수구분
2021년 1학기	박선웅	PSYC275	발달심리학	3	전공선택	150	전임전공-우수	참여교수
	양은주	PSYC333	집단상담(영강)	3	전공선택	60	전임외국어강(인문)-우수	참여교수
	김학진	PSYC439	사회신경과학(영강)	3	전공선택	71	전임외국어강(인문)-우수	참여교수
	허지원	PSYC335	인지치료(영강)	3	전공선택	68	전임외국어강(인문)-우수	참여교수
	정현선	PSYC208	심리통계및실습	3	전공필수	60	비전임전공교양(인문)-우수	연구교수
	구민모	PSYC110	심리학의이해	3	교양	100	비전임전공교양(인문)-우수	연구교수
2021년 2학기	남기춘	PSYC326	언어심리학	3	전공선택	65	전임전공-우수	참여교수
	고영건	PSYC202	심리학의기초II	3	전공필수	110	전임전공-우수	참여교수
	최기홍	PSYC331	이상심리학(영강)	3	전공선택	86	전임외국어강(인문)-우수	참여교수

□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대학원 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용

- 대학원 차원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이에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전공 교과목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트레이닝을 제공함. 아울러 대학원생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교내 학생상담센터의 다양한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참여를 적극 장려함.
- 이에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대학원 비교과 프로그램 및 학생상담센터의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함.

〈표 2-12〉 대학원생 참여 비교과 프로그램

주관기관	학기	프로그램	참여대학원생
KU개척마을	2021년 2학기	제30차 반상회	■■■■■
		제31차 반상회	■■■■■
교수학습개발원	2021년 2학기	대학원생 대상 맞춤형 학업코칭 Pro	■■■■■
		대학원생 맞춤형 학업지원 프로그램 / 대학원생 또래튜터링 학습공동체 KUPT+	■■■■■
		대학원생 융복합 기반 연구모임(Research Challenger Program)	■■■■■
교수학습개발원 교수학습지원팀	2022년 1학기	T인증 특강: 2022-1 신입교원에게 듣는다-교수 임용 준비하기 (이공계열)	■■■■■
		T인증 특강: 2022-1 신입교원에게 듣는다-교수 임용 준비하기 (인문사회계열)	■■■■■
		T인증 특강: 대학 수업은 처음입니다-대학	■■■■■

		교수자로서의 첫걸음	
		T인증 특강: 영어강의 준비와 교수전략	
		대학원생 대상 맞춤형 학업코칭 Pro	
		영어강의 능력 향상 프로그램 (EMI)	
		제1회 논문작성 심층클리닉	
		제1회 대학원생 연구력강화 워크숍: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논문 작성법	
		제2회 대학원생 연구력강화 워크숍: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논문 작성법	
		제3회 대학원생 연구력강화 워크숍: 대학원생 대상 영문 과학논문 작성법	
교양교육원	2021년 2학기	영어논문작성법 특강	
다양성위원회	2022년 1학기	대학원생 대상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연구 공모전	
대학원행정팀	2021년 2학기	Junior Fellow Research Grant	
		KU Achievement Award	
		대학원생 우수 연구성과 포상 제도 확대 수료연구생 지원	
		우수 대학원생 연구기회 제공 장학금 확대	
사회공헌원	2022년 1학기	사회공헌단 및 운영위원회 운영(사회공헌단), SDGs 연계 사회공헌 연구개발 사업	
산학진흥팀	2021년도 2학기	산학협력단 R&D 교육 과정	
연구진흥팀	2021년 2학기	4단계 BK21사업 학문후속세대 국제학술지 영어논문 교정 지원 프로그램	
연구진흥팀	2022년 1학기	4단계 BK21사업 학문후속세대 국제학술지 영어논문 교정 지원 프로그램	
원격교육센터	2022년 1학기	[학생대상] ICT 활용능력 강화 워크숍 - Notion 활용 가이드	
		G-TLS(S인증) 프로그램 워크숍_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학습관리시스템(LMS) 블랙보드 워크숍 - 협업도구	
인재양성팀	2021년 2학기	1:1코칭	
		Nature Conferences- Waste Management	

		and Valorisation for a Sustainable Future	
		연구직 세미나(인문사회계열)	
		자기이해워크숍 (클립톤 강점진단)	
		자소서컨설팅(인문사회계열)	
		자소서컨설팅-워크숍(인문사회계열)	
		직무캠프(이공계열) 1. 빅데이터 분석	
		직무캠프(인문사회계열) 2. 브랜드 마케팅	
인재양성팀 (경력개발)	2022년 1학기	1:1 컨설팅 인문사회계열	
		1:1 코칭	
		연구직세미나 인문사회계열	
		자기이해워크숍 이공계열(테스트 및 워크숍)	
		자기이해워크숍 이공계열(특강)	
		자기이해워크숍 인문사회계열	
		자소서 워크숍 인문사회계열	
학생상담센터	2021년 2학기	대학원생을 위한 AI 기반 긍정적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44명 참여
		대학원생을 위한 성격 이해 및 스트레스 대처역량 증진 강화 프로그램	3명 참여
		대학원생을 위한 야간 심리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3명 참여
	2022년 1학기	대학원생을 위한 야간 심리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5명 참여
사단법인 피난처 (교외)	2021년 2학기	난민 이해 교육 및 난민 상담 및 트라우마에 대한 신체적 개입 교육	

<표 2-13> 1차년도 공모전을 활용한 유튜브 채널 개설 (대상, 금상, 은상 총 5개 팀)

연번	팀명	연구제목	유튜브 링크
1	웰컴투 그린 메타버스	아바타를 통한 가상환경에서의 친환경 행동이 실제 환경에서의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자기 실재감에 따른 라이선싱 효과와 라벨링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a href="https://youtu.be/90d6KRQS2P0">https://youtu.be/90d6KRQS2P0</a>

2	개미와 배짱이	불안정성의 영역 확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탐구: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a href="https://youtu.be/MeehtIBNIPO">https://youtu.be/MeehtIBNIPO</a>
3	심별이	유튜브 채널 및 SNS 계정을 통한 청소년 심리학 교육 콘텐츠 제공-집단간 갈등 및 차별 이해	<a href="https://youtu.be/EzpiT_sEhIQ">https://youtu.be/EzpiT_sEhIQ</a>
4	임김조	소수자 스트레스 및 주관적 사회적 상태가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에 미치는 영향	<a href="https://youtu.be/0s7Gi2TothI">https://youtu.be/0s7Gi2TothI</a>
5	cog41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증진을 위한 장애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효과검증	<a href="https://youtu.be/Qox34q3_oGk">https://youtu.be/Qox34q3_oGk</a>

### 1.1.3. 국제적 연구역량과 연구윤리 확보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에게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1년간 13개의 국제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16명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함.
- 또한 해외석학 전임교원 및 객원교수 유치의 결과로, 김소현 교수(Weill Cornell Medical College)를 전임교원으로, 김은주 교수(University of Washington)를 객원교수로 초빙하여 국제적 연구 성과를 기대함.
- 표 2-12 중 국제 역량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부분(T인증 특강: 영어강의 준비와 교수전략, 영어논문작성법 특강, 4단계 BK21사업 학문후속세대 국제학술지 영어논문 교정 지원 프로그램) 참조

<표 2-14> 국제 기관과의 공동연구

연 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참여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구 내용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김채연	Randolph Blake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김채연 교수는 Vanderbilt University의 Randolph Blake와 함께 의식에서 억제된 시각 움직임 정보와 이에 수반된 청각 움직임 정보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해당 연구에는 사업단 지원 박사수료생  학생이 참여함. 실험 디자인과 실험 진행, 결과 분석 및 논문 작성의 연구 전반적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음. 분석 결과, 시의식 밖 시청각 상호작용이 관찰되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현재 논문 검토 단계에 있음. 온라인 미팅을 통해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으며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예정임.
2	김채연	Helmut Leder	오스트리아 /University of Vienna		University of Vienna, EVA lab (Empirical Visual Aesthetics Lab)의 Helmut Leder 교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예술과 미적 감상 과정을 연구하는 경험미학이라는 분야의 대가로, Helmut Leder 교수와 곡선/복잡도 선호와 예술 전문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 중임. 이는 해당 관계가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비교 문화 연구의 속성을 가

					<p>집. 이를 위해 참여대학원생인 [REDACTED] 박사수료생은 방문 연구원으로 오스트리아에 파견되어 EVA lab 실험실에서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오스트리아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 중임.</p>
3	김채연	Sang-Wook Hong	미국 /Florida Atlantic University	[REDACTED]	<p>Florida Atlantic University 의 Sang-Wook Hong 교수는 색지각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로, 국내외 인지 신경과학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음. 색지각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Sang-Wook Hong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참여대학원생인 [REDACTED] 박사수료생이 참여하고 있음. 객관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색 실험자극을 제작하였고, 우울 증상이 심해질수록 청황색에 대한 민감도가 증진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음. 현재 국제저명학술지 투고를 위해 논문을 작성하고 있음.</p>
4	김학진	Philippe Tobler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REDACTED]	<p>[REDACTED] 학생은 취리히대학교 신경 경제학과의 Tobler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친사회적 학습의 내집단 편향 감소의 신경학적 특징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신경경제학부에 2022년 4월부터 3개월간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음.</p>
5	박선웅	[REDACTED]	토론토대학교	[REDACTED]	<p>본 연구는 부부관계에서 성인애착유형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실제 외도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두 변인 사이에서 관계육구 충족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임. 고려대 심리학과 석사 졸업생이자 현재 토론토 심리학과에 박사학위 재학중인 [REDACTED] 학생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REDACTED] 학생은 제 2저자이며 1저자는 현재 고려대 석사 재학중인 [REDACTED] (참여대학원생)임.</p>
6	조양석	배기열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REDACTED]	<p>조양석 교수는 미국의 Arizona State University, 심리학과 배기열 교수와 함께 반응 갈등으로 촉발되는 인지통제가 목표자극과 관련된 정보처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반응 갈등을 줄이는지 아니면 방해자극과 관련된 정보처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ERP의 시간적 공간적 pattern 정보 획득하고 Support vector machine 방법을 이용하고자 함. 본 연구를 통해 인지 통제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으며, 학생들은 기계학습을 이용한 분석 방법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REDACTED] 학생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으며, 실험과 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저명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다.</p>
7	조양석	Florian Waszak	France /Paris Descartes University	[REDACTED]	<p>조양석 교수는 프랑스의 Paris Descartes University 의 Florian Waszak 교수와 함께 자극의 특성의 Uncertainty가 주의 기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뇌파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지금</p>

					프랑스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 연구 과제 수주를 할 예정입니다.
8	조양석	임한솔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조양석 교수는 미국의 Arizona State University, 심리학과와 임한솔 박사와 함께 반응 갈등으로 촉발되는 인지통제를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우스트래킹과 EEG를 활용해 실험을 진행함. 마우스트래킹으로 얻은 AUC 등의 행동 데이터와 ERP pattern 정보를 Support vector machine을 활용해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를 통해 keypress로는 알 수 없었던 인지 통제의 연속적인 특성을 알아볼 수 있으며 학생들은 기계학습과 마우스트래킹을 이용한 분석 방법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redacted] 학생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으며, 실험과 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저명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입니다.
9	조용상	Sung Han	미국 /Salk Institute		후뇌 부완핵(parabrachial nucleus)의 CGRP뉴런들이 강화물과 혐오자극에 반응패턴 규명 연구. 편경희(참여대학원생) 학생이 공동연구에 참여하고있음.
10	조용상	Larry Zweifel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공포기억의 형성 및 소거과정에서 중뇌 도파민 뉴런들의 역할 규명 연구. [redacted](참여대학원생) 학생이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음.
11	최기홍	Matthew M. Kurtz	미국 /Wesleyan University		최기홍 교수는 미국 Wesleyan University 의 Matthew M. Kurtz 교수와 함께 조현병 환자를 위한 사회인지훈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실시하였고, 2022년 3월에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저널에 게재됨. 본 연구에는 [redacted](참여대학원생 아님), [redacted](참여대학원생), [redacted](참여대학원생) 학생이 함께 참여하였음.
12	최기홍	Amanda Clinton 등 국제심리연맹 소속 교수	미국/영국/호주/아프리카, 일본 등		최기홍 교수는 Global Psychological Alliance (국제심리연맹, GPA) 소속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심리사범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연구 논문을 작성하여 국내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일반) 및 국제학술지(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에 게재예정임. 본 연구에는 [redacted](참여대학원생), [redacted](참여대학원생), [redacted](참여대학원생), [redacted](참여대학원생), [redacted](참여대학원생), 김현진(참여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였음.
13	최은수	유코 야토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만 0~2세 자녀를 둔 산후 복직 여성의 육아 관련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웰빙에 관하여 한중일 3개국이 동시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내 문헌 리뷰 및 학회 발표, 어머니 인터뷰 연구 업무를 수

				<p>행함. [redacted] 학생은 2021년 12월 약 1개월 간 국내 만 0~2세 자녀를 둔 직장 여성 10명을 모집하여 약 1시간씩 진행되는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인터뷰 자료 전사 및 기초 분석 작업을 수행함. 또한 국내 산후 복직여성에 대한 현 제도 및 가족의 지원, 어머니의 웰빙과 아이 정서 발달에 관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리뷰를 진행함.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0월, 타이완심리학회(TPA)에서 주관하는 2021 Annual Conference와 2022년 6월, APA 산하 SQIP 학회에서 주관하는 Annual Conference에서 공동 발표자로 참여함.</p>
--	--	--	--	----------------------------------------------------------------------------------------------------------------------------------------------------------------------------------------------------------------------------------------------------------------------------------------------------------------------------------------------------

<표 2-15> 전임교원 및 객원교수 유치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우수 사항
1	전임교원	김소현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 Psychiatry	<p>김소현 박사는 현재 미국과 영국의 주요 대학과 연계하여 10개 이상의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예, NIMH R01)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등의 학술지에 총 40편의 연구논문을 출간하는 등 최상위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지도 교수인 Catherine Lord 박사를 비롯하여 아동/발달정신병리 분야의 대가들과 강력한 학술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p> <p>교육자로서 김소현 박사는 지난 5년간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에서 부교수로 활동하며 총 33명의 대학원 학생들, 연구 조교들, 박사 후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 지도와 임상 수련을 맡아 왔으며, 과거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음. 2020년 김소현 박사의 인성과 학문적 역량을 높이 평가한 학생들과 연구 조교들의 인터뷰가 코넬 의대 뉴스에 보도되는 등,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음.</p> <p>김소현 박사는 국제적으로 동료 임상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자폐 진단 도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8,000명 이상이 수료함. 국내에서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진이 피교육자로 김소현 교수에게 훈련을 받음.</p>
2	객원교수	김은주	University of Washington / Psychology	<p>김은주 교수는 생태학적 동물모델을 활용한 공포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연구실에서는 생태학적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특히 공포 기억 및 정서질환에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김은주 교수가 수행하는 연구내용과 일치하는 점이 많아 초청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음. 또한 김은주 교수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살아 있는 동물의 뇌에서 기록된 신경활동의 기록과 분석에 관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본 연구실에서 수집된 데이터 분석에 관해 자문을 제</p>

				공함. 이 공동연구는 추후 공동 논문 출간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본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	--	------------------------------------------------------------------------------------------------------

□ 대학원생 국제교류 활성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제 학계에서 학술활동에 요구되는 언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원생 국제화 교육을 위해 지원한 결과, 지난 1년간 총 14건의 단기연수(예, 국제학회 참여)를 지원함.
- 또한, 지난 1년간 1건의 해외 장기연수(체류 기간 15일 이상)를 지원함.

<표 2-16> 해외 단기연수 지원

연번	학술대회 기간	참가자 성명	참여 학회명	개최 기관명	발표 주제	세부전공	학회 형태 (온라인 여부)	학술대회 참여 지원 수혜 내용(원)
1	2021.11.08 ~ 2021.11.11		Neuroscience 2021 - 50th annual meeting	Society for Neuroscience (SFN)	Subjective Pain, Emotion Regulation Function, and Regional Brain Volume Reduction in Nonsuicidal Self-injury	임상및상담심리	비대면	283,506
2	2021.11.08 ~ 2021.11.11		Neuroscience 2021 - 50th annual meeting	Society for Neuroscience (SFN)	Asthma, Allergic Rhinitis,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e Attempts	임상및상담심리	비대면	283,506
3	2022.01.07 ~ 2022.01.09		2022 National Multicultural Virtual Conference and Summit	National Multicultural Conference & Summit (NMCS)	A pattern association study for seeking advice online under restrictive abortion law in Korea	임상및상담심리	비대면	212,990
4	2022.02.16 ~ 2022.02.19		SPSP Annual Convention 2022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Insecure Attachment and marital Infidelity: The mediating role of relatedness need fulfillment	문화사회 성격심리	대면	1,346,637
5	2022.02.16 ~ 2022.02.19		SPSP Annual Convention 2022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grets Over “Me” versus Regrets Over “Us” : The Influence of Culture on Action versus Inaction Regrets	문화사회 성격심리	대면	1,518,529
6	2022.02.16 ~ 2022.02.19		SPSP Annual Convention 2022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Insecure Attachment and marital Infidelity: The mediating role of relatedness need fulfillment	문화사회 성격심리	대면	1,691,851
7	2022.02.16 ~ 2022.02.19		SPSP Annual Convention 2022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grets Over ‘Me’ versus Regrets Over ‘Us’ : The Influence of Culture on Action versus Inaction Regrets.	문화사회 성격심리	대면	1,652,992
8	2022.02.16 ~ 2022.02.19		SPSP Annual Convention 2022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워크숍 참여활동	문화사회 성격심리	대면	234,137

				Psychology				
9	2022.02.16 ~ 2022.02.19		SPSP Annual Convention 2022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rief Silences Negatively Affect Lesbian Norms and Attitudes in Korea	문화사회 성격심리	대면	1,720,541
10	2022.05.13 ~ 2022.05.18		Annual Meeting of the Vision Sciences Society	Vision Science Society	Decoding audio-visual direction congruency in the visual cortex	행동인지 신경과학	대면	1,728,470
11	2022.05.13 ~ 2022.05.18		Annual Meeting of the Vision Sciences Society	Vision Science Society	Enhanced blue-yellow sensitivity in individuals with depressive symptoms	행동인지 신경과학	대면	1,728,470
12	2022.07.18 ~ 2022.07.21		Regional Cultural Differences Conference	Friedrich Gotz, Tobias Ebert, Veronica Benet-Martinez & Jason Rentfrow (sponsored by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ensity, life history strategy, and state boredom in South Korea	문화사회 성격심리	대면	1,268,600
13	2022.07.24 ~ 2022.07.28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AHFE 2022)	Applie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imple Is the Best! Visual Complexity of Head-Up Display in Automobiles Modulates Attentional Tunneling and Driving Performance	행동인지 신경과학	대면	1,675,086
14	2022.07.24 ~ 2022.07.28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AHFE 2022)	Applie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imple Is the Best! Visual Complexity of Head-Up Display in Automobiles Modulates Attentional Tunneling and Driving Performance	행동인지 신경과학	대면	1,675,747
							총합	17,021,062

<표 2-17> 해외 장기연수 BK지원 및 정부지원

체류기간	연수자 성명	세부전공	지도교수	연수 자격	연구 국가	연수기관	현지 지도교수	학술대회 참여 지원 수혜 내용
------	-----------	------	------	----------	----------	------	---------	------------------------

								(원)
2022.04.01. ~ 2022.06.30.		행동인지 신경과학	김학진	방문 연구원	스위스	University of Zurich / Department of Neuroeconomics	Philippe Tobler	13,000,000원 (정부지원: “2022년도 한-스위스 박사과정생 연수사업”.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교 동시 지원)
2022.06.13 ~ 2022.07.29		행동인지 신경과학	김채연	방문 연구원	오스트리아	University of Vienna / EVA Lab (Empirical Visual Aesthetics Lab)	Helmut Leder, Eva Specker	4,968,400

□ 대학원생의 국제 석학과의 네트워킹 확대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에 게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중임.
- 아울러 국제 석학을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이 국제 석학과 교류하고 연구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표 2-18> 국제 석학 초빙 강연 목록

연 번	강연일자	강연자	직책	소속기관	강연제목
1	2021.09.14	김학진	조교수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Advancing Method to Quantify Clinical Phenotypes and Outcome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2	2022.05.25	김학진	조교수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Music, Language and the Brain
3	2022.06.27. ~ 06.30	김학진	교수	McGill University	행동사회과학을 위한 기계학습 개론
4	2022.07.14	김학진	연구원	MIT	Neuromodulatory control of social engagement and anxiety
5	2022.07.25	김학진	연구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Affective neural functions and connectivity associated with risk and presence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in Brazil
6	2022.07.27	김학진	부교수	University of Missouri - Kansas City	Neuroeconomics of self-control and health-related behaviors
7	2022.08.11	김학진	조교수	Univ of Denver	Neuroscience of Love for Two Generations - Parents and Children

□ 국제화 교육 인프라 증진 및 국제적 기준의 윤리교육 강화

- 국제적 기준의 교육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장면에서의 안전과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학원생들은 교내 주관 '법정 안전교육',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교육' 등은 물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관 '윤리적 연구를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질병관리청 주관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주관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표 2-19> 해당 기간 내 대학원생 윤리교육 현황

주관기관	이수사항	참여대학원생 성명
고려대학교 관리자	교내 법정 안전교육 (2021년 2학기 / 2022년 1학기 포함)	
고려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신입생강좌 연구윤리교육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센터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 (2021년 하반기 / 2022년 상반기 포함)	
	연구윤리교육(온라인 상설, 연구진실성)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질병관리청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 교육	

#### 1.1.4.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교류 및 산학연계 교육 현황

#####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융합연구의 기틀 확립

-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심리학 외 타 학문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융합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중임.
- 또한 대학원생에게 다양한 외부 프로젝트와 강의에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다방면의 사회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학술적 자원을 사회 현장에 투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사회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참조: 표 2-25.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 교육활동).

##### □ 산업체 및 공공기관 정책을 위한 원천지식 창출 교육

######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조기중재센터와 MOU 체결 (2022. 08. 04. ~ )

- 심리학부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조기중재센터(이하 서울시조기중재센터)와 8월 4일 정신증 고위험군 청년 및 청소년 대상 조기중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OU를 체결함.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 국내 최초로 서울시 내 의료기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조기정신증 사업을 시작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제2차 정신건강기본계획(2021)에 따라 청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조기중재센터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로 설치, 2022년 하반기 개소 예정임.

###### ▷ 주식회사 디맨드와 MOU 체결 (2022. 04. 08. ~ 2025. 04. 07.)

- 모바일앱 기반의 정신건강 솔루션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맨드와 고려대 심리학부가 정신건강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재 양성 및 상호 연구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함.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정신건강 분야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모바일앱 기반의 정신건강 솔루션 개발, 인지행동치료(CBT) 기반의 정신건강 콘텐츠 개발,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효과성 등에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업무 협력을 수행할 예정임.

###### ▷ 비보존과 MOU 체결 (2022. 04. 01. ~ 2025. 03. 31.)

-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기업 비보존과 고려대학교 심리학부가 인재양성 프로그램 MOU를 체결함.
- 양 기관은 MOU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교육 설계·운영·평가 등에 있어 상호 자문 및 수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및 원천 기술 콘텐츠 공동개발, 양 기관 우수·전문강사의 공동 활용, 연구시설 및 연구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타 인재개발 관련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의 협력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MOU 체결 (2021. 12. 07. ~ 2024. 12. 06.)

- 심리학부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함께 공공분야 인재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함.
- 양 기관은 공공분야 인재개발 혁신 전략을 모색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설계, 교육 콘텐츠 상호 교류 및 공동 개발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함.
-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공공분야 인재개발 혁신 전략 모색 및 공동 연구, 교육 설계·운영·평가를 위한 상호 자문, 양 기관 우수 전문 강사의 지원, 교육 시설 및 교육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 인재 개발 및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담겨있음.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MOU 체결 (2021. 11. 02. ~ )

- 심리학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함께 11월 3일(수) 오전 11시 고려대 SK미래관에서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근거기반 교육과 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함.
- 양 기관은 우리나라 생명존중문화를 보다 공고히 형성하고,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예방연구,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협력할 예정임.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성화, 근거기반 자살예방연구를 위한 공동협력 체계 마련, 자살예방연구를 위한 정보교육 및 자원활용, 자살사건 사후 대응을 위한 직간접적 심리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됨. (\* 생명지킴이: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 전문가)에 연계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과 MOU 체결 (2021. 05. 13. ~ 2022. 05. 12.)**

- 심리학부는 2021년 1학기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과 교육 및 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한 후 2022년 1학기 5월 12일까지 교육·연구·심리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홍보 및 대상자 참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를 추진하였음.
- 본 협약은 대학과 기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학생의 학업·진로·정서·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연구·심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및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잠재역량과 인성 개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 **교육연구단 창업과 연계된 교육확대**

- 최기홍 교수 연구실의 마음건강케어이유(주)는 2021년 창업 이후 임상 관련 심리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다차원 성격 평가 기술을 활용한 성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본 기관에서는 BK참여대학원생인 박사과정생 2명 ██████████ 석박사통합과정생 2명 ██████████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문제관련 세미나 및 외부 현장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 현황**

-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이해를 돕고자 학계, 산업, 및 사회 등 각 장면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연 및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표 2-20> 4단계 BK21 심리학 교육연구단 강연 및 워크숍 진행 현황

일자	행사구분	강연자	소속기관	강연제목
2021.09.14	강연	██████ 교수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Advancing Method to Quantify Clinical Phenotypes and Outcome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2021.10.15	강연	██████ 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Understanding Normal and Maladaptive Neurocognitive Development ; Genes, Environment and Brain
2021.11.19	강연	██████████	한국리서치 혁신센터	지금 MZ현상은 왜? MZ세대의 인식, 경험 및 소비
2022.05.25	강연	██████ 교수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School of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Music, Language and the Brain
2022.06.27. ~06.30	워크숍	██████ 교수	McGill University, Psychology	행동사회과학을 위한 기계학습 개론
2022.07.14	강연	██████ 연구원	MIT 뇌인지과학과	Neuromodulatory control of social engagement and anxiety
2022.07.25	강연	██████ 연구원	Univ of California, Davis, 심리학과	Affective neural functions and connectivity associated with risk and presence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in Brazil

2022.07.27	강연	■■■■ 교수	Univ of Missouri - Kansas City 심리학과	Neuroeconomics of self-control and health-related behaviors
2022.08.03. ~08.05	워크숍	■■■■ 교수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원	Genetic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2022.08.11	강연	■■■■ 교수	University of Denver 심리학과	Neuroscience of Love for Two Generations - Parents and Children

### 1.1.5. 대학원생 연구수월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 □ “4단계 BK21 심리학 교육연구단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 역량의 강화를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매학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선정된 연구팀에 연구비를 지원함.
- 또한 평점을 적용한 심사를 통해 수상을 구분하고 상금을 지급함.
- 2021년 2학기에는 22개 팀이 지원하였고 대상 1개 팀, 금상 2개 팀을 포함하여 총 19개 팀이 연구를 진행하여 총 16,206,491원을 지원하였으며, 총상금 4,400,000원이 학생들에게 지급됨.
- 2022년 1학기에는 14개 팀이 지원하였고, 현재 모든 팀이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표 2-21> 2021년 2학기 공모전 합격 연구팀 및 연구 제목

연번	세부전공	합격자 명단	팀명	지원 분야	연구제목
1	소비자 및 광고심리	■■■■	웰컴투 그린 메타버스	연구	아바타를 통한 가상환경에서의 친환경 행동이 실제 환경에서의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 실제감에 다른 라이선싱 효과와 라벨링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2	문화사회 성격심리	■■■■	SUSTAINABLE SELVES	연구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 지속가능한 '나', 정체성 확실성의 긍정적 효과
3	문화사회 성격심리	■■■■	Lab #410_V	연구	사회변화에서 주의해야할 요인: 변화 속도(사회불균형 해소)
4	행동인지 신경과학	■■■■	색 지각 연구팀	연구	우울한 사람들의 지각 처리과정: 우울 증상이 색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5	소비자 및 광고심리	■■■■	친환경 어벤져스	연구	목표 유형 (target valence)에 대한 심리적 거리 지각과 메시지 유형의 상호작용이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6	임상 및 상담심리	■■■■	Value-Driven Action	연구	청소년 우울을 위한 비대면 심리적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7	소비자 및 광고심리	■■■■	지속가능한 동화가든	연구	서술적 규범의 유형이 예상되는 감정의 매커니즘을 통해 호텔 방문객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8	문화사회 성격심리	■■■■	코.시.심.	연구	코로나 시대, 여성에게 긍정 정서와 연대를 불러넣는 문학과 연결의 힘: <코로나 시대의 사랑> 트위터 분석 및 설문 연구

9	문화사회 성격심리		운명공동체	연구	차별은 우리가 받는데, 왜 혜택은 당신이 받는가? - 차별지각과 정책 선호의 관계, 그리고 정체성과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10	문화사회 성격심리		의미있는 연구팀	연구	어떤 의미를 추구해야 행복할까:의미원천을 통한 강박열정의 조절된 매개효과
11	소비자 및 광고심리		기부미모어	연구	개인의 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상의 유형과 기부 상황을 중심으로
12	문화사회 성격심리		개미와 배짱이	연구	불안정성의 영역 확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탐구: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13	문화사회 성격심리		WDT	연구	지적 겸손과 타집단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경쟁적 맥락을 중심으로
14	행동인지 신경과학		심별이	교육	유튜브 채널 및 SNS 계정을 통한 청소년 심리학 교육 콘텐츠 제공-집단간 갈등 및 차별 이해
15	임상 및 상담심리		입김조	연구	소수자 스트레스 및 주관적 사회적 상태가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에 미치는 영향
16	행동인지 신경과학		cog413	연구/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증진을 위한 장애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효과검증
17	행동인지 신경과학		동물탐	연구	광유전학 기법을 이용한 고삐핵 중심 영역의 조절이 마우스의 수면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8	임상 및 상담심리		리더스마인드	연구	CEO의 적응기제, 공감 리더십 및 자기상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지표에 미치는 영향:재무성과와 ESG 성과를 중심으로
19	임상 및 상담심리		장*경	연구/교육	IGD 효과 검증과 집단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탐색

<표 2-22> 2022년 1학기 공모전 합격 연구팀 및 연구 제목

	세부전공	참여자 명단	팀명	지원 분야	연구제목
1	소비자 및 광고심리		SCB (Sustainable Consumption Behavior)	연구	자기효능감과 조절초점이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2	문화사회 성격심리		노인 어벤져스	연구	개인 및 사회 활동이 노인기 웰빙에 미치는 영향의 문화 차이
3	소비자 및 광고심리		지속가능한 기술	연구	개인정보 공개 대상으로서 인공지능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소비자 및 광고심리		지속가능한 호모브랜드쿠스	연구	브랜드 맥락에서 의인화가 대리적 면허효과에 미치는 영향

5	문화사회 성격심리 + 소비자 및 광고심리		온 더 보덤(On the Boredom)	연구	브랜드 싫증의 원형 탐색과 척도 개발
6	문화사회 성격심리		CSR	연구	범죄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
7	문화사회 성격심리		전체관람가	연구	한국인의 문화적 인생 각본에 대한 연구
8	문화사회 성격심리		지루함 탈취제	연구	지루함 행동에 대한 지루함과 자기고갈의 관계
9	문화사회 성격심리		똥이	연구	여성 리더의 기대 특성이 인지된 진정성에 미치는 영향:직장 내 성비를 중심으로
10	문화사회 성격심리		Psycho	연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관계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탐구
11	임상 및 상담심리		성격평가를 위한 NLP 단어 사전 개발	연구	성격평가를 위한 NLP 단어 사전 개발
12	임상 및 상담심리		심리학호랑이들	연구	동성에 집단의 자기 낙인과 시각화된 자아상 연구
13	임상 및 상담심리		양털	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개념도 연구
14	임상 및 상담심리		Value-Driven-Action	연구	청소년 우울을 위한 비대면 심리적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 연구관리 시스템 (SONA system) 운영

- 대학원생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융합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심리학부생들에게 실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웹사이트 기반 연구관리 시스템 (SONA system) 을 구축하여 운영함.
- 지난 1년간 총 10편의 연구가 연구관리 시스템 (SONA system)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2학기 총 133명, 2022년 1학기 총 254명의 심리학부생들이 연구에 참여함.

<표 2-23> SONA system 개설 연구 목록

개설학기	연구명	연구자명	실험구분	참여 크레딧
2021년 2학기	삶의 의미 원천에 관한 연구		온라인	1
	온라인 기사의 설득력과 공정성 지각, 태도에 관한 연구		온라인	1
	성격과 진화적 특성		온라인	1
	IPV and Mental representation Study		온라인	1
	Cross Cultural Regret and Domain Specificity		온라인	1
2022년 1학기	범죄보도 기사에 대한 반응 연구		온라인	1
	영상에 대한 정서 반응 연구			1

	사회적 지지 추구 양상 연구		온라인	1
	인생 이야기에 관한 연구		온라인	1
	한국 청년의 역경 극복 서사 연구		온라인	1

□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

- 법학관 구관 2층 강의실(207호)을 확보하여 신입교수 연구실 1실과 대학원 연구 및 실험실 2실로 분리하였으며, 추후 해당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됨(총 면적 98.40m<sup>2</sup>).
- 또한 법학관 구관 지하 일부 공간(B103호, B104호)을 확보한 후 수리하여 대학원생들이 다목적 연구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함(복도 공간 포함 총 면적 194.40m<sup>2</sup>).
- 본 물리적 공간 확보를 통해 그간 공간 협소에 따른 대학원생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미나, 콜로키움, 팀활동, 소규모의 대학원 수업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과 활동을 위한 물리적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교육-연구-사회 간 선순환적 소통 촉진

-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교육-연구-사회 간 선순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심리학 서적의 출간, 대중 강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 개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외부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 또한, 본 교육단에서는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교과목(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을 개설하고 다양한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아울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기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융합연구 및 연구 공모전에 대한 대학원생의 참여를 장려한 결과, 참여대학원생들이 다수의 연구 공모전에 참여, 우수한 성과를 거둠(참조: 표 2-21. 2021년 2학기 공모전 합격 연구팀 및 연구 제목, 표 2-22. 2022년 1학기 공모전 합격 연구팀 및 연구 제목).
- 연구성과를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심리학부 및 BK사업단 홍보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도모함 (<https://www.youtube.com/channel/UCuLc9jZhA0iNm4mPgEoKnhQ>).

1.2.1.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

<표 2-24>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 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 번호/ISBN/인터넷주소 등
1	고영진	10006533	임상 및 상담심리	(복첩터) 책제목: 청소년 발달과 정신의학 (저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출간 부분: Part 4. 청소년 문제의 평가 중(中) Chapter 29 심리평가	9791159557736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관하여 발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학술서임. 대부분의 집필진은 정신의학 전공 교수들이나 본 저자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편찬위원회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대표필진으로 추천하여 북채터의 단독 저자로 참여함.				
2	김채연	10170121	행동인지신경과학	(강연 및 세미나) 2022 통영국제음악제 “Vision in Diversity”에서 “A Diverse Harmony” 개최, 사회 및 대담 진행 영상 및 Diversitas 24호 책자	영상: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_k4_1TJeGpY">https://www.youtube.com/watch?v=_k4_1TJeGpY</a> 책자: <a href="https://diversity.korea.ac.kr/diversity/research/booleet.do?mode=view&amp;articleNo=296544&amp;article.offset=0&amp;articleLimit=10">https://diversity.korea.ac.kr/diversity/research/booleet.do?mode=view&amp;articleNo=296544&amp;article.offset=0&amp;articleLimit=10</a>
	김채연 교수는 2022년 4월 1일 (금), ‘Vision in Diversity’를 주제로 한 통영국제음악제 중 ‘A Diverse Harmony’라는 제목의 학술행사를 기획, 개최하고 진행과 대담을 담당하였음. 본 행사는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와 함께 다양성 교육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해 가기 위해 협업한 행사로, 특히 문화 예술 영역에서의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1부는 다양성에 대한 강연(김경일(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으로, 2부는 음악과 다양성에 대한 대담(진은숙 작곡가(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조은아 교수(피아니스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으로 구성되어있음. 본 행사는 우리 사회의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에 있어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주제로 하여, 학교를 넘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축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한 우수 교육 실적임.				
3	김학진	10133420	행동인지신경과학	(북채터) Encyclopedia of Behavioral Neuroscience 2nd Edition	978-0-12-821636-1
	행동신경과학 백과사전(Encyclopedia of Behavioral Neuroscience)은 인지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신경학, 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행동신경과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쓴 종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저작으로, 인식에서 기억까지 신경학적, 생물학적 행동 기반과 인지 모델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음. 2010년에 출판된 이 책의 초판은 212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경과학, 심리학, 신경학, 정신과학, 인지과학 등 여러 분야의 학생과 전문가에게 독특하고 필수적인 자료이자 행동신경과학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다루는 가장 포괄적인 참고서적 연구였음. 2021년 최신 과학으로 수정되어 출판된 새로운 판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뿐만 아니라 정신 및 뇌 장애뿐만 아니라 뇌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 총 3권, 250채터, 약 2000페이지에 걸친 방대한 이 새로운 판본은, 지난 10년간 발전한 최신 연구로 현재의 모든 채터들을 철저히 업데이트함으로써 초판의 토대를 강화하였음. 또한 행동신경과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한 40개의 새로운 채터들이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행동유전학 및 후성유전학, 인지노화, 신경역학, 사회신경과학, 확산 텐서 이미징 또는 두개내 직류 자극 등 급증한 최신 분야와 기법들이 포함되었음. 뇌와 그 장애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행동신경과학 백과사전 2판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원하는 신경과학 학생, 임상의 및 과학자들에게 완벽한 참고서적이 될 것으로 기대됨. 본 교육연구단 소속인 김학진 교수는 이 책에 접근 학습과 회피 학습 행동 관련 최신 뇌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요약 정리한 새로운 채터를 추가했으며, 접근과 회피 행동 모두 궁극적으로 신체 항상성 유지라는 공통 목표에 기여하며, 이 두 행동들 간의 비대칭성은 win-stay lose-shift 전략과 allostasis의 원리에 따라 단지 외부 환경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함.				
4	김학진	10133420	행동인지신경과학	(강의 개설)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
	2022년 1학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에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수업을 새롭게 기획하여 개설함. 심리학부 소속 9명의 전임교원과 1명의 비전임 연구교원이 참여하여 팀티칭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p>바라본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의하고 학기말에 수강생들의 그룹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였음.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수강생과 강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음.</p>				
5	김학진	10133420	행동인지신경과학	(강연 및 세미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세미나	-
	<p>2021년 2학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개설된 강철희 교수의 세미나 수업의 일부로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제목으로 강의함 (2021년 10월 21일, 온라인 강의). 이 강의에서 뇌과학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이타성에 대해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이타성을 위한 뇌과학적 통찰을 제시함.</p>				
6	김학진	10133420	행동인지신경과학	(강연 및 세미나)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세미나	-
	<p>2021년 2학기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에 개설된 이상훈 교수의 '뇌인지과학의 원리'라는 대학원 대상 세미나 수업에서 "Hierarchical MPFC Function for Social Valuation"라는 제목으로 강의함 (2021년 10월 27일, 온라인 강의). 이 강의에서는 사회적 의사결정 시 가치계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medial prefrontal cortex의 하위 부위들 간의 기능적 분화에 관한 최신 뇌과학적 증거들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신경과학적 모형을 제시함.</p>				
7	김학진	10133420	행동인지신경과학	(강연 및 세미나) 서울대학교 뇌과학의 최신지견	-
	<p>2022년 1학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과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최수희 교수의 '뇌과학의 최신 지견'이라는 세미나 수업에서 "알로스테시스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계산의 뇌기제"라는 제목으로 강의함 (2022년 5월 25일, 온라인 강의). 이 강의에서는 사회적 의사결정 시 가치계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medial prefrontal cortex의 하위 부위들 간의 기능적 분화에 관한 최신 뇌과학적 증거들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신경과학적 모형을 제시함.</p>				
8	김학진	10133420	행동인지신경과학	(강연 및 세미나)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콜로퀴엄	-
	<p>2022학년도 1학기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콜로퀴엄에서 학부교원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알로스테시스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계산의 뇌기제"라는 제목으로 강의함 (2022년 4월 6일, 온라인 강의). 이 강의에서는 사회적 의사결정 시 가치계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medial prefrontal cortex의 하위 부위들 간의 기능적 분화에 관한 최신 뇌과학적 증거들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신경과학적 모형을 제시함.</p>				
9	남기춘	10078491	행동인지신경과학	(저서) 외국어 공부가 쉬워진다: 인지심리학자의 조언	9791165191993
	<p>남기춘 교수는 2021년 11월 10일, 인지심리학 및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외국어의 학습 방식에 대해 다루는 '외국어 공부가 쉬워진다: 인지심리학자의 조언(출판사:박영스토리)'을 출간하였음. 해당 도서는 일반적인 지식의 학습과 구별되는 외국어 학습의 특성에 대해 다룬 다음, 인간의 기억 구조와 원리 및 인지신경과학적 관점에 기반한 후기 제2언어(외국어)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p>				
10	박선웅	11156022	문화사회성격심리	(강연 및 세미나) (2021) 한국심리학회 KPA	참고 주소: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qGf3i0WQf0">https://www.youtube.com/watch?v=iqGf3i0WQf0</a>
	<p>2021년 10월 29일 한국심리학회 KPA 에서 낮은 자존감을 주제로 자존감에 대한 여러가지 통찰과 자존감을</p>				

	높이는 방법들을 제시함. 이는 한국사회의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한국 심리학회 KPA 채널은 심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심리학적 전문지식과 응용기술을 사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심리학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임.				
11	박선웅	11156022	문화사회성격심리	(강연 및 세미나) (2021) 채널 춘천청소년 진로 1,2,3부 특강	참고 주소: <a href="http://media.chuncheon.go.kr/mediaPro/user/detailView?idx=3697">http://media.chuncheon.go.kr/mediaPro/user/detailView?idx=3697</a>
	박선웅 교수는 춘천시 운영 채널인 채널 춘천에서 청소년 교육영상의 목적으로 “동사로서의 꿈, 이야기로서의 삶”이라는 진로 특강을 진행함. 총 3부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1부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부는 미래의 꿈을 명사형 꿈에서 동사형 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3부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 강의함. 이는 현재 진로 선택에 고민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2	최기홍	10149019	임상 및 상담심리	(강의 개설) K-MOOC <현대인을 위한 감정의 심리학> 강좌	인터넷 주소: K-MOOC <a href="http://www.kmooc.kr/courses?search_query=%EC%B5%9C%EA%B8%B0%ED%99%8D">http://www.kmooc.kr/courses?search_query=%EC%B5%9C%EA%B8%B0%ED%99%8D</a>
	2021년 하반기(2021.09.01 ~ 2021.12.29)와 2022년 상반기(2022.03.07~2022.06.27)에 K-MOOC에서 <현대인을 위한 감정의 심리학> 강좌를 개설하였음. 본 강좌는 온라인에 개설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화, 음악, 사회현상 등 평소에 접하기 쉬운 사례에 심리학 이론을 접목시켜 인간이 경험하는 기본 감정과 사회적 감정들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음.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한국 문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본질과 그 의미를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음.				
13	최기홍	10149019	임상 및 상담심리	(저서) 나를 위한 감정의 심리학	9791190499422
	최기홍 교수는 2022년 2월 ‘나를 위한 감정의 심리학(출판사: 국수)’을 출간함. 본 저서는 감정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책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의 경험과 감정의 기능과 작용 등의 내용을 다양한 임상심리학 실험과 그 결과로 탄생한 심리학 이론들, 그리고 심리치료 상담 사례들을 예로 들어 소개함. 본 저서를 통해 일반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매순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14	최은수	11366133	문화사회성격심리	(기고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슈포커포 기고	<a href="http://www.asemgac.org/bbs/bbs/view.php?bbs_no=41&amp;data_no=4198&amp;page_no=1&amp;sub_id=">http://www.asemgac.org/bbs/bbs/view.php?bbs_no=41&amp;data_no=4198&amp;page_no=1&amp;sub_id=</a>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2022 이슈포커스 봄여름호에 소논문 기고. 노인의 정서적/심리적 건강에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연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 작성. 아셈회원국의 노인인권 관련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매체에 접근하는 전문가 및 대중들에게 심리학적 지식을 공유하였음.				
15	허태균	10049703	문화사회성격심리	(강연 및 세미나)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을 위한 세 가지 시선	<a href="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0963&amp;topic=%3Cbr%3E%3Cbr%3E%EC%9D%BC%EB%8B%A8&amp;pp=20&amp;datecount=&amp;recommend=&amp;pg=">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0963&amp;topic=%3Cbr%3E%3Cbr%3E%EC%9D%BC%EB%8B%A8&amp;pp=20&amp;datecount=&amp;recommend=&amp;pg=</a>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을 위한 세 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21년 12월 03일 강연함. 코로나 블루 등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에 생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사회심리학적으로 풀어내고, 특히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한국에서 자살이 일어				

	나는 이유를 밝히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안함.			
16	허태균	10049703	문화사회성격심리	<p>(강연 및 세미나) 자녀와의 공감의 기술</p> <p><a href="https://seoultech.ac.kr/intro/infobox/press/?do=commonview&amp;searchtext=&amp;searchtype=-1&amp;nowpage=1&amp;bnum=6306&amp;bidx=513016&amp;qidx=6306&amp;cate=10&amp;allboard=false&amp;nowpage=1">https://seoultech.ac.kr/intro/infobox/press/?do=commonview&amp;searchtext=&amp;searchtype=-1&amp;nowpage=1&amp;bnum=6306&amp;bidx=513016&amp;qidx=6306&amp;cate=10&amp;allboard=false&amp;nowpage=1</a></p> <p>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자녀와의 공감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21년 12월 09일 강연함.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해결은 부모-자식의 관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 이에 자녀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청중으로 모집하여 대화를 나눔.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관계에 대한 조언을 주는 내용의 강연함.</p>
17	허태균	10049703	문화사회성격심리	<p>(강연 및 세미나) 긍정심리학, 여행, 그리고 행복에 대하여</p> <p><a href="https://site.hanyang.ac.kr/web/hytourism/-10?p_p_id=board_WAR_bbsportlet&amp;p_p_lifecycle=0&amp;board_WAR_bbsportlet_action=view_message&amp;board_WAR_bbsportlet_messageId=677990">https://site.hanyang.ac.kr/web/hytourism/-10?p_p_id=board_WAR_bbsportlet&amp;p_p_lifecycle=0&amp;board_WAR_bbsportlet_action=view_message&amp;board_WAR_bbsportlet_messageId=677990</a></p> <p>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행복여행센터에서 2022년 6월 7일 “행복여행 만들기 명사특강”의 일환으로 “긍정심리학, 여행, 그리고 행복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강연함. 본 강연에서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으로 여행을 분석하고 설명하며, 여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 강연함.</p>
18	허태균	10049703	문화사회성격심리	<p>(강연 및 세미나) 교육회복, 일상을 찾아서</p> <p><a href="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02">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02</a></p> <p>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교육 회복, 일상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22년 06월 28일 강연함. 위드 코로나 단계에 접어들어 일상이 회복을 꾀하는 시기에 교육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강연을 기획, 교육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자신과 타인의 심리를 들여다보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강연함.</p>
19	허태균	10049703	문화사회성격심리	<p>(강연 및 세미나) 위기를 뛰어넘는 힘</p> <p><a href="https://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04">https://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04</a></p> <p>양산상의에서 '위기를 뛰어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22년 07월 26일 강연함.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해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조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p>
20	허태균	10049703	문화사회성격심리	<p>(북챗터) 다름과 어울림: 공존을 위한 사회적 다양성</p> <p>9788962623956</p> <p>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기획의 일환으로 ‘다름과 어울림: 공존을 위한 사회적 다양성(출판사: 동아시아)’을 출판하였으며, 허태균 교수는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챗터의 저자로 참여함. 내용에서 허태균 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 논하고 편견이 사고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기술함.</p>

1.2.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교육관련 콘텐츠 창출 외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함

<표 2-25>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 교육활동

연 번	해당 교수	프로젝트 내용
1	고영진	청년CEO 프로젝트: 스타트업을 창업한 CEO와 예비 창업자 대상 심리평가 진행 후 개별 피드백 및 워크숍 진행 ( [redacted] 참여)
2	김채연	김채연 교수는 AR 광학모듈 및 AR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인 (주)레티널, 디아이엔(주), 맵스로직과 함께 2021년 상반기부터 산학협력연구를 진행중임.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인 [redacted] 석박통합과정생이 참여하고 있음. 해당 연구는 AR 광학모듈 특성에 따른 인체 영향성 평가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는, AR 가상환경에서의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지표를 받을 수 있는 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의 심리생리적 지표를 얻기 위한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이러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토대로 사용자의 어지러움, 피로도 등을 최소화한 AR 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특히 AR 기술이 대중화 되면서 각종 언택트 서비스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AR기술의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김학진	김학진 교수 연구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비대면 형태의 일상 생활 기반 우울장애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여 '생체신호를 이용한 자존감 불균형 알람 모바일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산학연병 간 융합연구로 네이버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비알프레임과 협업하여 클라우드 연계 AI 기반 자존감 불균형 예측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BK21 참여연구원 3명( [redacted] ) 자기보호행동 및 사회 비교를 주제로 본 연구에 참여함. - [redacted] (2021.9.1~2022.8.31), [redacted] (2021.9.1~2022.2.28), [redacted] (2021.9.1~2022.2.28)
4	성용준	성용준 교수는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의 일환으로 지능정보기술이 일상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정보기술의 영향과 사회적 대응 연구를 진행 중. 본 연구는 연구책임자(김성철 고려대/미디어학부) 포함 총 10명의 공동연구진(남찬기/한국과학기술원, 류민호/동아대, 백현대/고려대, 성용준/고려대, 오하나/고려대, 이새롭/경북대, 정운혁/고려대, 최경진/가천대, 최세정/고려대)과 2명의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성용준	성용준 교수는 심리학적 기제를 활용한 교육을 제시하여 국가 공무원의 업무적 역량, 조직적 역량, 개인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임.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연구 영역을 업무, 조직, 개인으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심리적 안녕감과 업무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학적 기제를 파악하고, 향후 이를 반영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본 연구는 연구책임자(성용준 고려대/심리학부) 포함 총 4명의 연구원(허태균/고려대, 박선용/고려대, 최은수/고려대)과 4명의 보조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7	양은주	2021-2학기 상담심리학 특강: GSU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생들과 Virtual Exchange Program Project 진행. 다문화상담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 공유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성 증가로 인한 심리서비스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학습

9	양은주	양은주 교수 연구실의 █████ 학생이 집단간 대화(IGD)를 진행함: 교내 다양성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학내 교양강좌 [다양성과 미래사회]에서 2021-2학기 7회기의 집단 간 대화 보조촉진자, 2022-1학기 7회기의 촉진자를 맡아 진행하였음.
10	양은주	양은주 교수 연구실의 █████ 학생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연구현장과 한국연구재단 조직의 다양성 분석 연구”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
11	최기홍	최기홍 교수 연구팀은 산림청 국립 수목원 및 전국 조경 및 환경 관련 학과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19 시대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정신질환자, 코로나 블루, 노인, 발달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이 정신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더 나아가 추후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가드닝 프로그램의 매뉴얼화 및 배포를 위하여 가드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 중임
12	최기홍	서울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COVID-19으로 인해 활력이 저하된 노년들을 모집하여 노년기 활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년들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13	최기홍	노년기 활력 증진 프로그램을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께 소개하고 교육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임. 본 워크숍을 통해 연구팀에서 개발한 노년기 활력 증진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14	최기홍	노년기 비대면 마음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서울대 평생교육원, 마포노인복지관, 중랑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현장에 계신 전문가 분들을 초청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내용,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등을 파악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필요 서비스들을 조사함.
15	최준식	주식회사 디맨드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자연음향이 청자의 행동 및 무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 결과를 활용하여 디맨드가 개발한 정신건강 관리 앱의 기능 향상, 추천 알고리즘 등에 반영할 계획임. BK 참여 학생인 백인현 학생이 주도하여 추진됨.

##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26>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1년 2학기	4 6	1 1	2 9	8 6
	2022년 1학기	5 6	1 4	3 0	1 0 0
	계	102	25	59	186
배출 (졸업생)	2021년 2학기	4	2		6
	2022년 1학기	7	1		8
	계	11	3		14

##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 2.2.1. 학·석사 연계과정의 운영을 통한 우수 학부생 유치 및 지원

- 우수한 학부생을 조기 선발하고 학생의 연구역량을 초기에 극대화하고자 시행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에 최근 1년간 총 3명의 우수한 학생이 진입하였음.
- 선발된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들은 학업적 우수성뿐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 참여경력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발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연구 기술 교육 참여, 연구 논문 집필, 대학원 과목 수강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연구역량 초기 극대화에 힘쓰고 있음.

### 2.2.2.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한 우수 대학원생 유치 및 지원

-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총 7명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을 선발하였음.
- 선발된 인원은 다양한 세부전공을 배경으로 교내외 연구 및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학술적 성과 및 연구 기량의 증진은 물론 학문의 실용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2.2.3. 우수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장학금 지원

- 지난 1년간 BK21 4단계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통해 2021년 2학기 총 43명 (박사과정 4명, 석박사 통합과정 13명, 석사과정 26명), 2022년 1학기 총 38명 (박사과정 4명, 석박사 통합과정 18명, 석사과정 1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을 지원함.
- 또한, 지난 1년 간 BK21 펠로우십 프로그램 장학금을 통해 2021년 2학기 총 11명 (박사과정 1명, 석박사 통합과정 4명, 석사과정 6명), 2022년 1학기 총 2명 (박사과정 1명, 석박사 통합과정 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BK21 펠로우십 장학금은 구체적으로 교수학습지원팀(교수학습개발원), 인재양성팀(대학원혁신본부), 데이터Hub팀(디지털정보처), 다양성위원회(총장실)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표 2-27> BK21 펠로우십 프로그램 장학금 수혜 내역

연도	과정	성명	장학금액(원)	지원방식
2021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2,000,000	교수학습지원팀(교수학습개발원)
2021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1,000,000	교수학습지원팀(교수학습개발원)
2021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1,500,000	교수학습지원팀(교수학습개발원)
2021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1,500,000	교수학습지원팀(교수학습개발원)
2021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3,000,000	데이터Hub팀(디지털정보처)
2021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3,000,000	데이터Hub팀(디지털정보처)
2021학년도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3,000,000	인재양성팀(대학원혁신본부)
2021학년도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3,000,000	인재양성팀(대학원혁신본부)
2021학년도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3,000,000	인재양성팀(대학원혁신본부)
2021학년도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3,000,000	인재양성팀(대학원혁신본부)
2021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3,000,000	인재양성팀(대학원혁신본부)

2022학년도 1학기	박사과정	██████████	3,000,000	다양성위원회(총장실)
2022학년도 1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	3,000,000	다양성위원회(총장실)

- 지난 1년간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76.3%(전체 278명 중 212명), 총 장학금 지급액은 935,686,438원에 달함.
- 이는 BK21 4단계 사업 시작 전 1년간(2019년 2학기 ~ 2020년 1학기) 장학금 수혜율이 50.8%(전체 181명 중 92명)이고 총 장학금 지급액이 358,319,300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2021년 BK21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19팀 16,206,491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선발하여 연구성과 발표 결과에 따라 총 4,400,000원의 상금을 지원함.
- 2022년 BK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4팀을 선정하였음. 선정된 팀에 대해 연구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추가 연구비 요청이 들어올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함. 연구비는 국내여비, 설문조사비, 자료 분석비, 논문게재료, 학회 참가비 등의 항목으로 지원됨. 2023년2월 결과발표를 예정하고 있음.
- 아울러 우수한 연구역량을 통해 3명의 참여대학원생이 외부 장학금을 지원받음. ██████████ 학생 용운장학재단으로부터 1천만원, ██████████ 학생이 정몽구장학재단으로부터 각각 15,523,000원의 장학금을 수혜함).

<표 2-28> 외부 장학금 수혜 내용

연번	학생 성명	장학금 지원 기관	외부 장학금 세부 내용
1	██████████	현대차 정몽구재단 온드림	██████████ 학생은 현대차 정몽구 장학재단의 온드림 미래산업 인재 장학생 중 멘탈 헬스 케어 분야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21년 2학기과 2022년 1학기에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음. 본 장학금은 지능정보기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을 선발,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 육성을 돕는 장학금으로써, 본 학생들은 1) 등록금 전액 지원, 2) 학기당 1,800,000원의 학습지원비, 3) 국제 학술대회 장학금 및 글로벌 우수 장학금 (연 1회, 250만원이내 전공관련 학회 참가 지원) 등의 지원 받음.
2	██████████	용운 장학재단	본 학생은 2021년 2학기과 2022년 1학기에 용운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혜함. 본 학생은 학업정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학금 학기당 5,000,000원을 지원 받음.
3	██████████	2022년도 한-스위스 박사과정생 연수사업	██████████ 학생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가 동기에 지원하는 ‘2022년도 한-스위스 박사과정생 연수사업’ 으로부터 체재비(CHF 7500)와 왕복 항공료(CHF 2000)를 포함하여 총 약 13,000,000 원을 지원 받음.

#### 2.2.4. 실무 전문가 트랙 관련 현황

##### ▷ 심리융합과학대학원 설립

-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심리학 이론과 지식을 토대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융합교육기관으로 심리융합과학대학원(Graduate School of Psychological Convergence Science)을 설립함[학과명: 심리융합학과(Department of Psychological Science); 2023년 3월 첫 신입생 모집 예정].

- 본 기관에서는 심리과학의 인문사회심리학적 관점과 과학기술적 관점의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재직자(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교육 수요자들을 교육 및 재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기관은 크게 개인심리,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루는 “소셜 인사이트 프로그램(Social Insight Program)” 과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둔 “테크 인사이트 프로그램(Tech Insight Program)” 의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기관의 타겟 그룹은 구체적으로, 소셜 인사이트 프로그램의 타겟 그룹은 인사담당자(HR), 정책개발자/공무원, 컨설턴트, 사회복지전문가, 사회적기업가, 제품매니저(PM), 문화산업컨텐츠 개발자, 과학커뮤니케이터, 기업임원 등이며, 테크 인사이트 프로그램의 타겟 그룹은 소프트/하드웨어 엔지니어, 신약/전자약 개발자, 플랫폼 개발자, UX 디자이너, AI개발자, 메타버스/AR/VR개발자 등임.
- 본 기관은 2년 6개월 (5학기) 야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수하는 자는 심리융합석사(Master of Psychological Science) 학위를 수여받게 됨.
- 개설교과목은 27개 과목을 운영할 예정임.
- 본 기관의 운영을 통해 사회 현장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현실문제 해결 능력과 수행 능력을 고양함으로써 현 사회가 직면한 개인/사회적 위기에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리과학적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2.2.5.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지원사업 활용**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세부전공 중 하나인 행동인지신경과학 전공은 다른 세부전공들과는 달리 “이학석사”와 “이학박사”를 수여하도록 행정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 중인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됨. 본 교육단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현재 총 2명의 전문연구요원 [redacted] 이 복무 중임.

<표 2-29> 전문연구요원 복무 현황

이름	지도 교수	세부전공	소집일	해제(예정)일	연구내용
[redacted]	김학진	행동인지신경과학	2019.09.01	2022.09.06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이 분리 가능한 두 가지의 동기로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음. 행동모델링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거리에 따른 타인에 대한 보상의 감가 정도 (K parameter)와 전반적인 친사회적 성향 (Beta parameter)을 추출할 수 있었음. 이 성향과 관련된 유의미한 스트레스 생리지표는 나타나지 않음. 또한, 뇌영상 분석 결과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동기가 뇌에서 각기 다르게 표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K parameter 는 개인의 내재적 친사회적 동기, motivation signaling 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VS, MPFC지역이 나온 반면 Beta parameter 는 TPJ 와 같이 attention-reorientation and contextual information updating 과 관련된 뇌지역이 나타나게 됨. 현재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parameter에서 나온 뇌영역들간의 연결성 및 뇌영역 결과 validation을 진행 중임.

	최준식	행동인지신경과학	2019.09.01	2022.08.31	<p>“전략적 탐색 신경회로 작동방식에 기반한 가치 지도화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연구”</p> <p>- 전기생리학 기법을 사용하여 설치류 전전두 피질에서 위치표상과 전략적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하고 있음.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다수의 신경세포의 패턴을 분석하고, 행동과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실험을 진행중임.</p>
--	-----	----------	------------	------------	-----------------------------------------------------------------------------------------------------------------------------------------------------------------------------------------

### 2.2.6. 대학원생들의 연구공간 확대

- 법학관 구관 2층 강의실(207호)을 확보하여 신입교수 연구실 1실과 대학원 연구 및 실험실 2실로 분리하였으며, 추후 해당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됨(총 면적 98.40m<sup>2</sup>).
- 또한 법학관 구관 지하 일부 공간(B103호, B104호)을 확보한 후 수리하여 대학원생들이 다목적 연구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함(복도 공간 포함 총 면적 194.40m<sup>2</sup>).
- 본 물리적 공간 확보를 통해 그간 공간 협소에 따른 대학원생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미나, 콜로키움, 팀활동, 소규모의 대학원 수업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과 활동을 위한 물리적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2.2.7. 학부생 및 일반인 대상 홍보활동

- 남기춘, 최준식, 조양석 교수는 2021년 9월 10일 고려대학교 재학생 및 외부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행동인지신경과학 분과 연구실에 대한 전공 설명회를 진행하였음. 연구실의 주요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 후, 현재 연구실을 구성하는 인원들을 보여줌. 이후, 현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예시로 몇 가지 발표하였으며, 연구실 졸업생의 근황과 추후 가능한 진로들을 소개하였음. 발표 후에는 참석 학생들과 Q&A를 진행하여 대학원 진학에 필요 내지는 권장되는 소양, 대학원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사항들, 그리고 연구실 인턴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음. 교내외 학부생 및 졸업생을 포함하여 약 150명의 신청자를 모집하여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이에 행동인지신경과학 전공, 더 나아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허지원 교수는 2022년 5월 10일, 충북대학교 안정광 교수를 초청하여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하였음. 해당 행사는 임상 및 상담 전공학생들의 전문가 자격 수련의 과정 및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인 지견을 제공하고,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해당일의 행사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학부생 및 대학원생 30여명이 참석하였음.

## 2.3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 표 2-30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1년 8월 졸업자 4명, 2022년 2월 졸업자 6명 중 7명이 국내 대학 진학 및 취업을 하였음.
-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졸업자 중 석사 졸업자 국내대학 진학 1명, 석사졸업자 취업 2명이 있었고, 2022년 2월 졸업자 중 박사졸업자 2명과 석사졸업자 2명이 취업하였음.
- 또한, 박사재학자 중 1명이 창업하였음.
- 표 2-31에는 2022년 8월 졸업생과 창업한 재학생이 기재되어있으며, 졸업생 중 진학 및 취업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되었음.

<표 2-30> 2021년 8월 및 2022년 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단위: 명, %)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4	1	0	0	3	67
	박사	0	X		0	0	
2022년 2월 졸업자	석사	4			0	4	67
	박사	2	X		0	2	

<표 2-31> 졸업자 취창업 현황 (해당자만 기록)

연번	성명	졸업 연월	수여 학위 (박사/ 석사)	지도 교수	현 직장 및 직위
					대표 취(창)업 사례의 우수성
1		2021.08	석사	남기춘	한림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박사과정
	<p>조성학 학생은 2021년 8월 석사 학위 취득 후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법 및 범죄심리학연구실 박사과정생으로 진학함. 해당 학생은 '모의 양형 경험이 형사사법체계 공정성, 사법부 신뢰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국 법심리학회 주관 2022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법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정 활동 참여를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p>				
2		2021.08	석사	조양석	UX 컨설팅 회사 pxd
	<p>최하은 학생은 2021년 8월 석사 학위 취득 후 UX 컨설팅 회사 pxd에 취업함. 해당 학생은 인간의 주의조절 매커니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특정 기반의 통계적 학습을 통해 주의조절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들을 진행함. 통계적 학습을 통해 과제 비관련 자극 속성에 대한 주의 억제 를 일으킬 수 있는 훈련 패러다임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본 연구는 해외 저널 Visual Cognition에 투고 되어 revision 과정 중에 있음. 현재는 본인의 세부전공과 관련된 UX 분야에서 다양한 컨설팅 및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p>				
3		2021.08	석사	고영건	라인웍스/데이터 엔지니어
	<p>해당 학생은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처리, 분석, 시각화를 담당함. 또한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부모 관계에 있어 부모에 대한 언어적인 보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연구를 진행함.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의료 데이터 정제에 힘쓰고 있음</p>				
4		2022.02	박사	남기춘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지혜과학연구소 / 연구 교수
	<p>학생은 2022년 2월 박사 학위 취득 후 고려대학교의 심리학부 지혜과학연구소 연구 교수로 취업함. 해당 학생은 한국어 어절정보처리의 좌우반구 협응 기제를 밝히기 위해 좌우시야 분할 연구를 수행하고, 언어정보처리의 좌우반구 협응 반응의 다양한 신경과학적 협응 기제와 관련된 현상을 규명함. 이에, 좌우반구 협응과 관련된 다수의 행동, 뇌파, fMRI 실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언어심리학 분야 연구를 위한 뇌신경과학적 탐구방법의 다양한 실험방법론적 기반자료를 제공하고 있음</p>				
5		2022.02	박사	최기홍	삼성 서울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레지던트 과정
	<p>학생은 2022년 2월 박사 학위 취득 후 삼성 서울 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으로 취업함. 해당 학생은 노년기의 활력을 스마트폰 기반의 EMA기법을 통해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p>				

					발하는 연구를 진행함. 현재 삼성 서울 병원의 노년기 정신 건강 연구팀인 김도관 교수 연구팀에 속해 있으며 임상 심리학자로서 심리 평가 및 심리 치료와 관련한 역량을 갖출 뿐만 아니라 독립된 연구자로서 노년기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6		2022.02	석사	고영진	강북삼성병원/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중. 임상 현장에서 정신과 환자를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 지능검사, 성격검사, 신경심리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심리평가를 진행함.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심리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과 일상생활 적응을 도움.
7		2022.02	석사	최준식	KAIST 생명과학과 / 연구원 학생은 2022년 2월 석사학위 취득 후, KAIST 생명과학과에 석사 후 연구원으로 취업함. 해당 학생은 현재 연구실 내에서 진행되는 연구 과정 대부분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실 운영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머신러닝을 통한 실험 데이터 분석, 코딩, 실험의 설계 및 진행, 논문 작성 등의 작업 전반을 진행하고 있음.
8		2022.08	박사	김채연	박사후연구원/김채연교수연구실 학생은 2022년 8월 박사 학위 취득 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김채연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할 예정임. 해당 학생은 인간의 다중 감각 정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통합된 지각을 형성하는지 그 지각적 기제를 의식과 연결지어 밝히고, 뇌영상기법을 활용하여 신경적 기제를 연구하고 있음. 해당 2건의 연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가 기대됨.
9		2022.08	석사	김학진	BRFrame 데이터분석팀 / 인턴 학생은 2022년 8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으로, 비알프레임의 데이터분석팀 인턴으로 취업함. 해당 학생은 본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사회적 평가 상황의 심리 및 생리반응 예측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자존감 불균형 알림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1, 2차년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상에서의 자존감 불균형 예측을 위한 유의미한 관련 개인 성격, 행동, 생체지표를 주도적으로 분석하였음. 이러한 분석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동일 프로젝트 협력업체인 AI, Automated machine learning 기업체인 BRFrame 의 데이터분석팀의 인턴으로 계약하여 데이터 분석 직무를 수행할 예정임.
10		2022.08	석사	성용준	대학원 진학 Univ of Texas Austin,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진학
11		2022.08	석사	허지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예정(2022.09) 학생은 2022년 8월 석사 학위 취득 후 카이스트 문화기술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이 예정되어 있음. 해당 학생은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대조군과 정서적 작업 기억에서 행동적 및 신경학적 차이를 보인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함. 해당 논문은 해외 저널 투고 예정. 현재는 우울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한 논문들을 종합해 메타분석 및 질적 검토를 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12		2022.08	석사	박선웅	대학원 진학 학생은 2022년 8월 석사 학위 취득 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할 예정임. 서강대 심리학과 내에 신설되는 <희망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박사과정 공부를 병행할 예정임. 만성통증에 관한 석사 논문은 현재 외국 학술지 출판을 목표로 수정 중에 있음.

		2022.07	박사 재학	고영진	도토리코리아(주) / 대표
13		<p>학생은 2016년 2월 석사 학위 취득 후 국가 및 학회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 자격(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을 모두 취득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았음. 이후 지자체, 학교, 기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심리자문, 심리평가, 심리교육,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경험을 쌓아왔으며 박사 과정도 수료하면서 연구 활동도 지속해옴. 현재 공인된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 맞춤형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p>			

## 2.4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정보 제공

<p><input type="checkbox"/> 제 1회 ‘잡 페어 (Job Fair)’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학부 교우회(회장: 최재명)와 심리학부의 공동 개최로 2021년 12월 22일 온라인상에서 개최함.</li> <li>- 본 행사에는 120여명의 심리학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참석하였으며, 1부는 심리학부 졸업생들의 강연으로, 2부는 6개의 주제별 질의응답 소모임으로 진행됨.</li> <li>- 1부에서는 WeWork Singapore 이재운 HR 디렉터 (인사/조직), 제일제당 김숙진 상무(마케팅), 마크로밀엠브레인 윤덕환 이사(광고/조사),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 (플랫폼/빅데이터),뱅크샐러드 김서경 UX리서처(AI, UX/인간공학), 삼성서울병원 마음건강상담실 김경희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상담)의 강연을 80여분 간 진행함.</li> <li>- 2부에서는 라인플러스 김규원 C&amp;B매니저, 이노션 이일호 제작본부장,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김원경 데이터인텔리전스파트장, EA코리아 최혁준 피파 온라인 총괄프로듀서, 삼성전기 마음건강센터 김득환 책임상담사, 삼성전자 열린상담센터 채중민 책임상담사, 이해와 공감 심리상담센터 조영은 소장이 참여하여 1부의 강연자들과 함께 각 분야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100여분간 진행함.</li> <li>- 또한 최근배(심리교우, 87학번) 헤드헌터의 참여로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이루어짐.</li> </ul>
-------------------------------------------------------------------------------------------------------------------------------------------------------------------------------------------------------------------------------------------------------------------------------------------------------------------------------------------------------------------------------------------------------------------------------------------------------------------------------------------------------------------------------------------------------------------------------------------------------------------------------------------------------------------------------------------------------------------------------------------------------------------------------------------------------

## 3. 대학원생 연구역량

### 3.1. 대학원생(졸업생) 연구실적(대표연구업적물)

<p><input type="checkbox"/>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I 및 국제저명학술지: 본 교육연구단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지원과 참여교수들의 긴밀한 지도를 통해, 지난 1년간 참여대학원생은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amp;HCI)에 28편, 국내등재 학술지에 15편, 국내기타학술지에 1편 총 4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li> <li>- 이 중 본 교육연구단 주제 관련 여부와 객관적 우수성 지표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된 대표연구 업적물과 본 업적물들의 BK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li> </ul>
---------------------------------------------------------------------------------------------------------------------------------------------------------------------------------------------------------------------------------------------------------------------------------------------------------------------------------------------------------------------------------------

<표 2-32> 참여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및 대표연구업적물의 BK사업과의 연관성

연번	학생성명 (지도교수)	학술지구 분	대표연구업적물 정보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BK사업과의 연관성
1	김상엽 (남기춘)	국제저명 학술지	Kim, S., Koo, M., & Nam, K. (2022). Game experience leads to improvement in cognitive functioning of the early middle-aged adults in	본 연구는 게임 경험이 연령에 따라 나뉘어진 집단(젊은층, 초기 중년층)의 인지기능 향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탐구한 연구임. 인지기능은 공간 작업기억과제(spatialmemory span	인간의 인지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게임 경험과 연령이라는 요인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contrast with the young-aged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29, 107153. doi.org/10.1016/j.chb.2021.107153	task), 주의력과제(attentional network task), 문제해결과제(tower of london task), 그리고 충동조절과제(balloon analogue risk task)를 통해 측정하였음. 실험 결과, 게임 경험이 있는 초기 중년층(30대 후반-40대 초반)은 게임 경험이 있는 젊은층(20대 초중반)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에서 향상을 보임. 이는 게임 경험으로 인한 인지 능력의 향상은 연령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본 연구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BK 연구사업의 목표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와 부합하였음을 의미함. (IF = 8.957,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97.22 in Psychology, Experimental)	영향에 대해서 탐구하였음. 이는 BK 연구사업 목적인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간의 인지 기능을 이해하는 것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게임'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김준우 (남기춘)	국제저명 학술지	Kim, J., Kang, J., Kim, J., & Nam, K. (2022). Temporal dynamics of form and meaning in morphologically complex word processing: An ERP study on Korean inflected verbs. Journal of Neuro Linguistics, 64, 101098. doi.org/10.1016/j.jneuroling.2022.101098.	본 연구는 한국어 동사 어절 재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위 어휘 요인 및 어휘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반응시간 및 오류율 등 행동 반응과 더불어 뇌파를 이용하여 사건 관련 전위의 변화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행동 반응에서 형태소와 어휘 요인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중, 저빈도 어절에서만 어간 길이가 짧은 경우 반응시간이 빠르게 나타났음. 뇌파 분석 결과, 어절 빈도는 재인 과정의 초기인 N100 성분부터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형태소 효과는 이후 N250 성분부터 P600까지 유의하게 나타났음. 행동 반응에서의 두 요인 간 상호작용은 N400 성분에 반영되었으며, 이 역시 중, 저빈도 어절에서만 유의한 형태소 효과가 발견되었음. 본 연구는 인도유럽어와 달리 교착어적 성질을 지닌 한국어 어절 재인 시,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독일어, 영어와 달리 하위 어휘 요인인 형태소와 어휘 정보의 동시 활성화가 이루어짐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IF = 2.373,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79.64 in Linguistics)	본 연구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에 따른 한국어 정보처리의 신경생리학적 기제를 조사함으로써,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콘텐츠 제작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당 BK 사업단의 목표인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에 부합함.
3	임가현 (김학진)	국제저명 학술지	Lim, G., & Kim, H. (2022). Distinctive roles of MPFC subregions in forming impressions and guiding social interaction based on others' social behaviour.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13. doi.org/10.1093/scan/nsac037	본 연구는 불공정성에 대한 타인의 반응 행동(불공정성의 수용 혹은 거절) 및 행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관찰했을 때, 관찰자의 사회적 지각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해 행동 및 신경학적 처리 과정을 알아본 연구임. 사람들은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사람이더라도 불공정성을 수용하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지각하였고 거	불공정성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 및 그 근간이 되는 심리/사회적 불균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불공정성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특히 본 연구는 불공정한 상황만이 아니라 해당 상황에 반응하는

				<p>절하는 사람은 유능하게 지각하는 경향성을 보임. 또 불공정성에 대한 반응이 느낄수록 따뜻하게 지각하였음. 반응 시간의 효과는 불공정성을 거절하는 사람에서만 차이가 더 유의하였음. 이 때 가치 계산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전두엽 피질이 하위 영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리 과정에 기여하는 것을 밝힘. 타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각의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배측 영역이 관여하였고, 반응 유형에 따른 지각된 따뜻함의 주효과 차이는 복측 영역과 상관을 보임. 전략적으로 관찰 대상에 대해 추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고려할 때에는 입측 영역이 관여하였음. 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대한 해석에 사람들이 행동 결과 만이 아니라 행동 시간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고려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전전두엽 피질의 복측-배측 경사의 하위 영역이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 확인하였음.</p> <p>(IF = 4.235,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57.12 in Neurosciences)</p>	<p>행동 유형이 관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행동 및 신경학적으로 확인하였음. 즉, 동일한 사회적 불균형 상황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지를 파악하는데 기여하여 추후 불공정성이 유도하는 사회적 갈등을 이해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어 BK 연구 사업의 목표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에 부합함.</p>
4	김진일 (김학진)	국제저명 학술지	<p>Kim, K. I., Jung, W. H., Woo, C. W., &amp; Kim, H. (2022). Neural signatures of individual variability in context-dependent perception of ambiguous facial expression. <i>NeuroImage</i>, 258, 119355. doi.org/10.1016/j.neuroimage.2022.119355.</p>	<p>본 연구는 개인이 상대방의 감정 추론함에 있어 맥락정보 고려 정도의 개인차의 신경 기전을 본 연구이다. 여섯가지 기본 감정의 기반으로 연구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을 혁파하는, 감정 인식에 대한 predictive coding 이론에 대한 첫 번째 증거 중 하나로써 맥락정보를 활용한 개인의 얼굴 표정을 추론함에 있어 맥락 정보를 많이 고려하는 사람일수록 맥락정보와 관련된 내부상태 표상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많이 표상하여 상대의 감정을 추론한다는 연구임.</p> <p>(IF = 7.4,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89.29 in Neuroimaging)</p>	<p>이 연구는 개인의 감정이 맥락정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써 사회 불균형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의 원론적 해석을 제시할 수 있음.</p>
5	채지환 (김학진)	국제저명 학술지	<p>Chae, J., Kim, K., Kim, Y., Lim, G., Kim, D., &amp; Kim, H. (2022). Ingroup favoritism overrides fairness when resources are limited. <i>Scientific reports</i>, 12(1), 1-11. doi.org/10.1038/s41598-022-08460-1</p>	<p>본 연구는 집단 간 자원 분배과정에서 자원의 양이라는 상황적인 맥락이 개인의 분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임. 이 때에 주된 동기인 내집단 편향과 공정성 욕구 모두가 의사결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자원의 양이 적어지는 경우에 내집단 편향이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해당 결</p>	<p>집단 간 자원분배의 의사결정은 사회의 자원 분배 및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임. 특히,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사회적 불균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님.</p>

				<p>과는 건설적인 사회자원분배를 위한 기초적인 인간 욕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따라서 건설적 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본 연구결과는 Scientific Report에 게재 됨. (IF = 4.996,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74.66 in Multidisciplinary Sciences)</p>	
6	양예지 (최기홍)	국제저명 학술지	<p>Yang, Y., Ro, E., Lee, T. J., An, B. C., Hong, K. P., Yun, H. J., ... &amp; Choi, K. H. (2022). The Multi-Sites Trial on the Effects of Therapeutic Gardening o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i>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i>, 19(13), 8046. doi.org/10.3390/ijerph19138046.</p>	<p>본 연구는 맹검평가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근거-기반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코로나 기간 동안 가드닝 프로그램의 치유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함. 10개 기관 111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울, 불안, 활력, 삶의 질, 마음챙김 5가지 변인의 변화를 분석함. 우울, 불안, 활력은 2주에 1번씩 총 8회 검사를 실시하였고, 삶의 질과 마음챙김은 사전/사후 2회 검사를 실시하였음.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드닝 프로그램 전/후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 불안, 활력, 삶의 질, 마음챙김 5개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됨. 우울, 불안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활력, 삶의 질, 마음챙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 (효과크기 (Cohen's d) 차례대로 0.84, 0.72, 0.61, 0.64, 0.40). 특히 가드닝의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성인보다는 노인에게, 정신질환자보다는 비정신질환자에게 높게 나타남.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이 코로나 기간동안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한 적용 가능하고 유망한 자연 기반 개입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IF = 4.614,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64.34 in Environmental Sciences)</p>	<p>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노인,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등으로 구성됨. 가드닝 프로그램 동안의 낮은 탈락률과 정신 건강 및 웰빙 변인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들도 손쉽게 참여가 가능한 자연 기반의 치유 개입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추후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법의 일환으로 치유적 가드닝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7	노은빈 (최기홍)	국내등재 학술지	<p>노은빈, 김현진, 최기홍 (2022) 게재예정). 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 기준, 핵심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제화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p>	<p>본 논문에서는 심리사(psychologist)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자격 기준을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대표 국가들(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을 참고하여 제안함. 또한 이러한 자격 기준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심리사들의 핵심역량(심리적 지식, 기술, 윤리성, 다양성 존중 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핵심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담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한 알아보았음. 이는 현재 코로나 19로 우울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심리서비스에</p>	<p>본 논문은 심리서비스에 대한 정보 불균형으로 효과 있는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담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음. 이는 우울, 불안,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꼭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p>

				대한 관심이 증가된 상황에서 질 높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음. (KCI 우수 등재 학술지) (IF = 2.47)	
8	윤서원 (최기홍)	국제저명 학술지	Yoon, S., Yang, Y., Ro, E., Ahn, W. Y., Kim, J., Shin, S. H., ... & Choi, K. H. (2021). Reliability, an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gaming disorder scale: a meta-analysis. <i>Frontiers in Psychology</i> , 12, 764209. doi.org/10.3389/fpsyg.2021.764209	본 논문에서는 게임이용장애 평가도구가 게임행위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다른 심리적 변인과는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 결과 게임이용장애는 게임이용행위 외에도 정신병리, 심리사회적 변인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게임이용장애가 정신병리를 야기하는 것인지, 다른 정신병리나 심리적 어려움이 게임 행위로 이어지는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 필요함. 게임이용장애에 널리 사용되는 척도들의 신뢰도, 변별 및 수렴타당도에 대해 메타분석으로 검증하여 게임이용장애 진단에 대한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음. (IF = 4.232,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76.53 in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게임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취미이며, 사회경제적 상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임. 최근 ICD-11에서는 과도한 게임이용을 장애로 규정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게임이용에 대한 진단기준을 검토중에 있음. 청소년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도 적절하고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게임을 장애로 볼 수 있는 근거와 그렇지 않은 근거에 대해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제언하였음.
9	조은실 (최기홍)	국내등재 학술지	조은실, 이지영, 차윤지, 백인규, 양은주 (2022). 한국 상담자의 발달과 관련된 수퍼비전 요소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i>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i> , 34(2), 259-285.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퍼비전을 주제로 한 질적연구를 메타요약하여 상담자 발달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수퍼비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음.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상담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수퍼비전 요소는 수퍼바이저 요소, 수퍼바이지 요소, 수퍼비전 시스템/환경 요소임을 확인함. 둘째,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지의 상담역량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상담자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셋째, 편안하고 진솔한 수퍼비전 관계가 전체될 때 이와 같은 발달과 성장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음. 넷째,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개인의 대처(예, 개인 분석 등)가 상담자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수퍼비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양질의 수퍼비전 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IF = 3)	본 연구는 상담자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퍼비전의 요소들을 질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 나은 수퍼비전 모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이는 결과적으로 심리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여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0	장지희 (최기홍)	국제저명 학술지	Jang, J., Yoon, S., Son, G., Kang, M., Choeh, J. Y., & Choi, K. H. (2022). Predictin	본 연구는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성격을 컴퓨터 과학, 특히 머신러닝 분석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최근 설명 가능한 (explainable)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g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 Study Protocol. <i>Frontiers in Psychology</i> , 13, 865541. doi: 10.3389/fpsyg.2022.865541.	연구 과정에 대한 프로토콜 연구로, 기존의 작은 데이터 세트와 검증되지 않은 모델링 관행으로 인해 심리학 이론과 컴퓨터 과학 사이의 부족한 설명력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문항 개발 및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대표성을 띄지 못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와 달리 심리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성격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성격 특성과 개인의 발화, 언어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과학적 분석 방법인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띠고 할 수 있음. (IF = 4.232,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76.53 in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상황에서, 머신러닝 기법 적용을 통한 정량적인 분석과 정신건강 및 심리학 분야의 임상경험 및 이론의 통합을 시도하는 본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건강 수준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성격의 기능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BK 연구사업의 핵심 목표인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해결방안 연구 중 하나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구라 판단됨.
11	이주희 (최기홍)	국제저명 학술지	Lee, J., & Choi, K. H. (2022). Mother-Child Social Cogni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i>Frontiers in Psychiatry</i> , 13, 883212. doi: 10.3389/fpsyg.2022.883212.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어머니의 사회인지 능력이 자녀의 사회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자녀의 사회적 기능 및 정서조절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서인지 능력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살펴보았음.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자녀의 사회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가능한 어머니 변인을 탐색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인지 훈련 도입하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음. (IF = 5.435,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73.59 in Psychiatry)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인지능력을 평가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의 정서인지능력이 아동의 정서인지능력에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지 탐색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부모 대상으로 정서인지능력 평가를 타당화 및 보편화함으로써 보다 적절하고 접근성 높은 정서교육 및 심리사회적 개입의 발판을 제공하고 심리서비스(심리평가 및 심리적 개입)에 대한 이들의 제한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2	표소휘 (양은주)	국내등재 학술지	표소휘, 이슬아, 장애경, 이준우, 이은비, 양은주 (2022). 국내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i>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i> , 28(2), 241-272.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질적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이질적인 질적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함. 국내 질적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이러한 요인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고, 심리적 적응을 돕는데 중요함.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 질적 연구들이 제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연구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목적이 있어 심리학교육연구단의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에 해당함.

				<p>시한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성소수자들의 정체체성 수용과 통합, 더 나아가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관여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요약함.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연구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 심리학교육연구단의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에 해당함. (IF = 2)</p>	
13	강민지 (양은주)	국내등재 학술지	<p>강민지, 김지민, 이지예, 양은주 (202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 변화유형과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 청소년연구, 33(2), 137-162.</p>	<p>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된 어려움 중 하나인 진로불안에 관해 검증한 연구로,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진로불안의 중단적 변화를 확인하고, 변화양상의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시점의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했습니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진로결정이라는 인지적 과정이 아닌 진로불안이라는 정서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불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수준의 개입보다는 사회 전체의 변화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 라는 연구단 주제와도 밀접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집단인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균형과 그 심리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IF = 2.89)</p>	<p>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 라는 연구단 주제와도 밀접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집단인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균형과 그 심리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p>
14	안정용 (성용준)	국제저명 학술지	<p>Ahn, J., Kim, J., &amp; Sung, Y. (2022). The effect of gender stereotyp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commend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41, 50-59. doi.org/10.1016/j.jbusres.2021.12.007.</p>	<p>본 연구는 인공지능 추천 평가에 미치는 성별 고정관념의 효과를 조사함. 구체적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인간-AI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실용 제품과 쾌락 제품에 대한 인공지능 추천의 설득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검증함. 본 연구는 성별 고정관념이 인간-AI 상호작용과 AI 에이전트 추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 (IF = 10.969,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89.29 in Business)</p>	<p>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이 점차 증가하고,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 윤리는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특히,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 문제는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본 연구는 실험연구를 통해 고정관념이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의사</p>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
15	김정원 (성용준)	국제저명 학술지	Kim, J., & Sung, Y.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Is Safer for My Privacy: Interplay Between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gents on Perceived Privacy Risk and Concerns. <i>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i> , 25(2), 118-123. doi.org/10.1089/cyber.2021.0076.	본 연구는 개인이 수집된 개인 정보의 종류와 이를 수집하는 에이전트에 따라 프라이버시 위협과 걱정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인간 에이전트와 인공지능 에이전트 각각에게 어떤 종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프라이버시 위협을 심층적으로 알아봄. 수집되는 개인 정보의 종류와 정보를 수집하는 에이전트가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걱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의 탐색이 중요함을 밝혔으며,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IF = 6.135,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90.00 in Psychology, Social)	본 연구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방식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윤리적인 소비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BK 사업목적인 지속가능성과 연관성이 있음.
16	김정원 (성용준)	국내등재 학술지	김정원, 박소연, 성용준 (2022).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 추출과 구매, 사용, 폐기 행동 간의 관계. <i>소비문화연구</i> , 25, 105-131.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하여 개인의 내재적, 외재적 제약 요인을 살핌으로써 소비자가 긍정적인 인식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소비가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저해되는 제약 요인을 밝히고, 각 요인이 소비 단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봄. 본 연구는 포괄적인 개념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구매, 사용, 폐기의 단계로 나누어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실무적으로는 기업과 정부가 지속가능한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과 마케팅 전략을 제안함. (IF = 1.32)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방해하고 제약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추후 개입하는 지점 및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요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BK 사업의 목적인 지속가능성과 연관성이 있음.
17	백인규 (고영건)	국내등재 학술지	조은실, 이지영, 차윤지, 백인규, 양은주 (2022). 한국 상담자의 발달과 관련된 수퍼비전 요소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i>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i> , 34(2), 259-285.	본 연구는 국내의 심리상담 수퍼비전을 주제로 한 질적연구를 메타요약하여 상담자 발달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수퍼비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음. 이를 통하여 상담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수퍼비전 요소가 수퍼바이저 요소, 수퍼바이지 요소, 수퍼비전 시스템/환경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수퍼비전이 수퍼바이지의 상담역량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상담자의 전반적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함. 또한 편안하고 진솔한 수퍼비전이 전체될때 이러한 발달과 성장이 가능하며,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개인의 대처가 상담자의 전반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발표	심리상담자 양성 과정에서 상담자 교육 ‘수퍼비전’은 필수적임. 그러나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는 간간히 있어왔으나, 그 간의 연구를 토대로 상담자 발달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수퍼비전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음. 심리상담자가 되는 수련 과정에서 교육생(수퍼바이지)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내담자를 언어적으로 치료하는 심리상담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불안과 어려움에 마주하기 때문에,

				<p>된 연구를 종합하여 향후 상담자 발달을 다루는 슈퍼비전 연구 및 실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요인을 확인하고, 향후 수련체계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BK 연구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개인과 사회의 불균형 해소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심리상담 수련생들에게 어떠한 심리상담 슈퍼비전이 제공되어야 하는 가이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같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슈퍼비전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는 선행연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IF = 3)</p>	<p>그를 지도하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비전의 역할을 매우 영향력이 큰 활동임. 그러나 심리상담 수련생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취약군으로써 상담자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도움과 교육을 제공 받지 못해서, 취약군인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상담수련생 자신 또한 수련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음.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상담자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기존 연구 문헌에 근거하여 정리함으로써,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에게 좋은 슈퍼비전과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가 있다고 하겠음.</p>
18	민해원 (고영건)	국제저명 학술지	<p>Min, H., Kim, J., Moon, K., Lee, S., Kim, J. Y., &amp; Ko, Y. G. (202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VID-19 Impact Scale. <i>BMC psychology</i>, 10(1), 1-10. doi.org/10.1186/s40359-022-00793-w</p>	<p>현재까지 코로나의 심리적 영향을 측정하는 척도는 팬데믹 초기 급성 반응에 초점을 맞춰 공포, 불안, 트라우마 등의 병리 증상에 기반하여 개발되었거나, 일상 기능 문제를 제외한 정서적 불편감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반영하여 COVID-19으로 인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불편감과 일상 기능의 어려움을 함께 측정함과 동시에 반복 측정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컴팩트한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타당성과 신뢰성 등의 심리 측정적 요소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 척도를 통해 장기화되는 COVID-19으로 인해 개인이 일상 중 경험하는 정서적, 기능적 어려움을 간편하게 측정하고 적기에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이 투고된 학술지는 학계에 오픈 액세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저널 전문 출판업체의 심리학 분야 저널이며, 피인용지수(IF)가 2.91로 양호하게 보고된다. (IF = 2.588,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62.14 in Psychology,</p>	<p>대규모 스트레스 사건은 심리적 영향을 지속시키는 경우가 많아 여러 국가는 이를 선제적으로 변별하고 개입하고자 노력함. 현재 장기화된 팬데믹도 사회적 혼란과 개인의 부적응이 지속되는 사회적, 심리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지속되는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본 척도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개인의 주관적 스트레스를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간편하게 측정함으로써 팬데믹 관련 심리적 문제와 불균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선개입이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논문 출판을 통해 척도</p>

				Multidisciplinary)	타당화가 마무리됨으로써 본 척도를 사용한 후속 연구 진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여겨짐. 후속 연구를 통해 팬데믹 하에서 정서적, 기능적 어려움을 겪으며 취약한 집단을 추적, 분석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9	박수연 (박선웅)	국내 등재 학술지	박수연, 박유빈, 박선웅 (2021). 불안정 애착과 외도: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5(4), 1-25.	본 연구는 부부관계에서 성인애착유형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실제 외도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두 변인 사이에서 관계육구 충족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함. 연구결과, 실제 부부들 사이에서 불안애착이 높은 성인은 관계육구가 충족되지 않아 외도를 하며 회피애착이 높은 성인은 전반적으로는 외도를 하지 않으나 관계육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외도를 한다는 것을 보여줌. 본 연구는 애착에 따른 외도 동기를 검증함에 따라, 사회 차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외도로 인한 부정적 상황들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해당 논문은 KCI 우수등재 논문으로 지정됨. (IF = 1.44)	외도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다수의 부부가 외도로 인한 이혼을 경험하며, 외도의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겪을 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 우울증, 그리고 높은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함. 또한, 부부는 아이들이 사회 가치를 배우는 근본이 되는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모의 외도는 가족 공동체안에서 아이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침. 본 연구는 외도의 시발점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부부관계에 가져오는 여러 부정적 상황들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음. 이는 더 나아가 BK 연구사업의 핵심 목표인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해결방안 연구 중 하나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로, 이혼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균형과 지속가능한 웰빙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
20	이수은 (허지원)	국제저명 학술지	Lee, S. E., Yim, M., & Hur, J. W. (2022). Beneath the surface: clinical and psychosocial correlates of posting nonsuicidal self-injury content online among female young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2, 107262. doi.org/10.1016/j.chb.2022.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를 수행하는 젊은 연령층의 경우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자해 관련 포스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자해 콘텐츠를 온라인에 포스팅하는 것은 해당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및 낙인은 사회의 불균형에 일조하는 요소 중 하나임. 이에 본 연구는 자해 포스팅을 하는 이들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하였다고 할 수 있음.

			107262.	음. 연구 결과를 계기로, 자해 포스팅을 하는 이들을 소위 ‘관중’으로 낙인찍는 시선이 완화되고 또,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임상적 고위험군을 선별 및 개입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기를 기대함. (IF = 8.957,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97.22 in Psychology, Experimental)	
21	문혜리 (허지원)	국제저명 학술지	Moon, H., Nam, G., & Hur, J. W. (2022). Neural correlates of affective theory of mind in medication-free nonsuicidal self-injury: An fMRI study. <i>Frontiers in psychiatry</i> , 1567. doi.org/10.3389/fpsyt.2022.850794.	본 연구는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군의 정서적 마음이론에 관한 연구로, 정서적 마음이론이 일어나는 과제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를 사용하여 기능적 뇌영상을 찍고 그를 바탕으로 수집한 행동 데이터들(정서조절곤란척도, 감정표현불능증척도) 간의 관련성을 밝혀낸 논문임.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군에서 올라간 medial superior frontal gyrus activation이, 낮아진 right angular gyrus activation이 관찰됐고 또한 우측 angular gyrus의 활성화도와 두 척도간의 부적 연관성이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서조절곤란, 감정표현불능증과 연관있는 angular gyrus가 잠재적인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을 알 수 있음. (IF = 5.435,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73.59 in Psychiatry)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는 사회경제적 상태의 영향을 받을 뿐더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으로 번지고 있음.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균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임상군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음.
22	김하은 (허지원)	국제저명 학술지	Kim, H., & Hur, J. W. (2022). What’s Different About Those Who Have Ceased Self-Injury? Comparison Between Current and Lifetime Nonsuicidal Self-Injury. <i>Archives of suicide research</i> , 1-16. doi.org/10.1080/13811118.2022.2064256.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경험이 있는 성인 중, 자해를 중단한 집단과 지속하고 있는 집단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자해 중단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과 자해의 유지에 영향을 주는 자해 기능에 대한 지각의 차이, 및 여러 임상 증상과 심리적 자원에서의 차이를 탐색함. 그 결과, 연령이 어릴수록 NSSI를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NSSI를 지속하고 있는 개인들이 NSSI의 개인 내 기능에 대해 더 많이 보고함. 심리적 변인의 측면에서는, NSSI를 지속하고 있는 개인들이 자해를 중단한 개인들에 비해 더 높은 지각된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지각된 스트레스, 감정불능증, 정서반응성, 자살사고를 보이며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보고하며, 자존감, 고통감내력, 회복탄력성 등의 심리적 자원의 경우 NSSI를 중단한 개인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본 연구는, 자해의 시작과 유지와 관련된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행동은 자살 의도가 없이 행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자살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음이 알려진 만큼 많은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자해를 지속하는 개인들이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어려움과 임상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혀내었으며, 여러 심리적 고통감을 다룰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자원 또한 부족함을 밝힘. 이를 통하여 자해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들의 심리적 불균형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으며, 자해의 중단을 위한 개입을 위해 관련된 임상증상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통감내력, 회복탄력성 등 심리적 고통감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개입

				<p>특성들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던 자해 중단과 관련한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음. 특히, 본 연구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BK연구사업의 핵심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로, 자해를 지속하는 개인들의 심리적 불균형을 조망하였으며, 자해의 중단과 관련한 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추후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자해 행동의 중단을 위한 개입의 개발을 위한 학문적 토대에 기여하였음.</p> <p>(IF = 2.833, JIF quartile = Q3, JIF percentile = 39.79 in Psychiatry)</p>	또한 필요할 것을 확인함.
23	정지훈 (최준식)	국내등재 학술지	<p>정지훈, 조양석, 최준식 (2021). 자극의 불확실성이 연합 학습에 미치는 영향: 수리모델간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33(4), 265-279.</p>	<p>본 연구는 수리적 연합학습 모델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사용하여 동물과 사람의 행동데이터와의 합치성을 본 연구임. 연합학습 모델간 비교 분석을 위하여 Rescorla-Wagner 모델, Mackintosh 모델, Pearce-Hall 모델, Schmajuk-PH 모델, Esber-Hasselgrove 모델, 그리고 Temporal Difference 모델의 총 다섯가지의 모델을 수리적으로 구현하여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KUCS를 만들었음.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기존 연합학습 모델에서 관찰되었던 강점과 한계점을 재확인하였고, Mackintosh 모델의 경우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한계점을 찾아낼 수 있었음.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모델에서 구현하지 못한 2차적 조건화를 어떻게 TD 모델이 구현하는지 확인하였음. 마지막으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자극에 대해서 보상이 불확실하게 주어질 때 동물의 연합학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였고, EH 모델이 가장 설명력이 높음을 확인함.</p> <p>(IF = 0.35)</p>	<p>자극에 따라 동물의 연합 학습이 변하는 양상을 인간의 행동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수리적 모델의 강점과 한계를 확인하였음. 이는 동물을 이용한 행동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고 인간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p>
24	송지원 (김채연)	국제저명 학술지	<p>Song, J., Shin, H., Park, M., Nam, S., &amp; Kim, C. Y. (2022). Complex Shapes Are Bluish, Darker, and More Saturated; Shape-Color Correspondence in 3D Object Perception. <i>Frontiers in Psychology</i>, 13, 854574. doi: 10.3389/fpsyg.2022.854574.</p>	<p>본 연구는 3D 형태의 복잡도와 색의 교차감각 연관성에 대해 알아본 연구로, 복잡도를 패러메트릭하게 조작하였고 색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음. 연구 결과, 복잡한 형태와 푸른 계열의 색상과 연관성이 높고, 또한 복잡한 형태는 높은 채도 및 어두운 밝기와 잘 어울린다고 평가되었음. 복잡도와 색을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정교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선행연구 결과들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또한, 시각과 햅틱 두 가지 감각 양태에 대해 알아볼 수</p>	<p>BK 연구사업의 핵심 목표인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해결 방안 연구 중 하나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로, 기초학문적 이해를 도모하는데서 나아가 브랜딩, 디자인, 마케팅 등 산업 현장에 이양가능한 지식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p>

				<p>있는 3D 형태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형태의 다감각 속성에 집중하여 형태와 색의 교차감각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했음. 마지막으로, 기초학문적 지식에서 나아가 브랜딩이나 마케팅에도 적용가능한 응용 가능성이 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p> <p>(IF = 4.232,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76.53 in Psychology, Multidisciplinary)</p>	
25	김수연 (최은수)	국제저명 학술지	<p>Kim, S., Won, E., Jeong, H. G., Lee, M. S., Ko, Y. H., Paik, J. W., ... &amp; Han, K. M. (2022). Gender discrimination in workplace and depressive symptoms in female employees in South Korea. <i>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i>, 306, 269-275. doi.org/10.1016/j.jad.2022.03.050.</p>	<p>본 연구는 201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를 통해 여성 직장인의 직장 내 성차별 인식과 우울간의 관계를 분석함. 분석 결과, 여성 직장인이 인식한 성차별이 높을수록 우울 또한 유의미하게 높았고, 나이, 학력, 직종, 직무 자율성 등의 요인과 성차별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함. 본 연구는 성차별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한 반면, 이전까지 그 악영향에 대한 완충요인으로 여겨졌던 고학력이 오히려 여성이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의 정신건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음. 또한 직무유형, 사업장 크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성차별의 영향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음.</p> <p>(IF = 6.533,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86.56 in Clinical Neurology)</p>	<p>본 연구는 직장 내 성차별이라는 사회적 불균형의 한 측면에서 여성 직장인의 우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인식된 성차별이 다양한 하위요인에 따라 여성의 우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별 문제의 해소는 물론 성차별 경험과 우울간의 연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의의를 제시한 바 있음.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성이라는 BK사업의 목표와 일관적인 연구임.</p>
26	김가람 (최은수)	국제저명 학술지	<p>Kim, G., Seong, S. H., Hong, S. S., &amp; Choi, E. (2022). Impact of face masks and sunglasses on emotion recognition in South Koreans. <i>PLoS one</i>, 17(2), e0263466. doi.org/10.1371/journal.pone.0263466.</p>	<p>본 연구는 동아시아인의 표정 인식에서 마스크의 파괴적 영향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고, 피험자를 통제하기 어려운 온라인 실험이 아닌 대면 실험을 진행했다는 의의가 있음.</p> <p>(IF = 3.752,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60.96 in Multidisciplinary Sciences)</p>	<p>여러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고 있는 시기, 지속가능한 표정 인식을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음. 특히 표정 인식에 대한 연구가 서양에 집중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의가 있음.</p>
27	김가람 (최은수)	기타국내 학술지	<p>성소현, 김가람 (2021). 일과 여가를 바탕으로 살펴본 발달장애인의 삶: 그들을 가두는 투명상자의 본질. 장애의 재해석연구, 2(1), 133-180.</p>	<p>발달장애인을 직접 인터뷰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직접 인터뷰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통계적인 확인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혼합한 연구임. 또한 본 논문으로 장애의 재해석 연구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이사장상)을 수상하였음.</p> <p>(IF = 정보없음)</p>	<p>연구 장면에서 소외되어 있던 발달장애인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심리학적 연구에서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p>

### 3.2.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발표실적(대표발표실적)

<p>□ 참여 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실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교육연구단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지원과 참여교수들의 긴밀한 지도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지난 1년간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에서 총 52편을 발표함.</li> <li>- 본 업적물들의 주요 내용 및 BK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li> </ul>
--------------------------------------------------------------------------------------------------------------------------------------------------------------------------------------------------------------------------------

<표 2-33>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대표발표실적의 우수성 및 BK사업과의 연관성

연번	학생성명 (지도교수)	발표 형식 (구두/포스터)	학술대회 대표실적 상세내용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BK사업과의 연관성
1	김상엽 (남기춘)	포스터	Kim, S., Saito, S., & Nam, K. (2021). Syllabic constraint effect on the serial order control revealed by Korean non-word speech production. Words in the World, Online: Zoom, gather.town:: Canada.	본 연구는 한국어 말 산출(speech production) 시에 계열적 순서 처리(serial order control)를 확인하여 음절의 통제 효과(syllabic constraint effect)를 탐구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비단어를 사용한 발화 오류 유도 실험법(speech error induction technique)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결과, 한국어 음절의 초성(onset)과 중성(nucleus)과 달리 종성(coda)에서 더 많은 발화 오류를 범하였음. 이는 한국어 음절의 음운적 구조(phonological structure)가 초성과 중성이 강하게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를 발화할 때 나타난 음운적 구조에 대해 탐구하여 한국어 음절의 음운적 표상을 이해하는 것에 기여하였음. 이는 BK 사업의 목적인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중요한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 한국어의 음운적 학습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 기여하여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기반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음.
2	김준우 (남기춘)	포스터	김준우, 강진원, 이솔빈, 선주경, 남기춘 (2022). Temporal dynamics of lexico-semantic processing of spoken Korean homonyms. Psychonomic Society 62nd Annual Meeting. Online: U.S.A.	본 연구는 한국어 청각 단어 재인 과정에서 의미 및 어휘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빈도가 다양한 동음동철이의 어절, 또는 단어 어절에 대한 행동반응 및 뇌파(사건관련전위)를 측정, 분석을 진행하였음. 행동 반응 분석 결과, 고빈도 어절에서는 중의 어절에 대한 반응시간이 느리고, 오류율이 높은 중의성 비이득 효과가 발생한 반면, 저빈도에서는 어절의 의미 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상호작용이 발견되었음. 사건 관련 전위 분석 결과, 어절 빈도에 의한 뇌파 반응이 초기 단계인 100ms대에 나타났으며, 이후 N400 성분에서 고빈도와 저빈도의 상반된 중의성 효과가 발견되었음. 이는 한국어 단어 재인 과정, 특히 청각 언어 처리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어절이 사용되는 빈도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이후에 의미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어휘 중의성에 따른 효과를 한국어 어절에서 발견하였으며, 행동 반응뿐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기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 중의성 해소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음. 이는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연구로서,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 가능성 추구"라는 본 사업 취지 및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임.
3	이솔빈 (남기춘)	포스터	Solbin Lee, Eun Ha Lee, Jinwon Kang, Jeahong Kim, Sangyub Kim,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어절을 구성하는 음절들의 빈도 중 누적 출현 횟수에 해당하는 토큰(token) 빈도와 가짓수에 해당하는 타입(type) 빈도	본 연구 결과는 어절을 구성하는 첫 음절 빈도가 어절의 재인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 연구 결

			Changwhan Lee and Kichun Nam (2021). Comparison type and token syllable effect in Korean morphologically complex words. Words in the World. Online: Zoom, gather.town: Canada.	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첫 음절 토큰 빈도는 기존 연구와 달리 한국어 어절 재인에 대해 촉진 효과를 보였으나 타입 빈도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음절 기반 이웃들의 활성화에 따른 억제효과가 한국어 어절에서는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음절 빈도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과를 보임. 이러한 첫 음절 빈도는 특정 어절과 철자 및 음운 단위를 공유하는 여러 이웃 어절 간의 연결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언어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언어 구조화 방식을 유추할 수 있고 주로 활용되는 표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한국어 표현들의 목록을 추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의 효율을 높여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4	선주경 (남기춘)	포스터	선주경, 조양석, 남기춘 (2022). 동시에 등장한 유쾌한 자극과 불쾌한 목표자극의 정서적 처리.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온라인(서울): 대한민국.	인지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요소 중 하나인 감정의 방해효과를 사람 얼굴 자극을 사용하여 관찰한 연구임.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감정이 혹은 강도 두 요소 중 어느 것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아보고자 했고, 결과는 얼굴 자극을 사용한 경우 감정이나 강도에 의한 영향 보다 화난 얼굴 우수성 효과가 보고됨. 화난 얼굴이 자극으로 등장하는 경우 다른 감정 자극들이 등장했을 때 보다 더 우수 반응 속도와 정확도를 보여줌.	연구 결과를 통해, 특정 자극을 사용하였을 때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정 감정은 방해효과가 아닌 인지 관련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본 연구는 인지 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감정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인지통제 능력 향상을 꾀함
5	선주경 (남기춘)	포스터	윤정선, 선주경, 강동현 (2022). 학교상담 활성화 효용성 검증: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공공데이터학술대회온라인(대구): 대한민국.	EDSS 주최하는 교육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육과 관련된 여러 동향을 살펴보는 학회임. 중등교육에서 주요 화두중 하나인 학교 상담 교사의 효용성을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본 연구는 이탈율, 학교 폭력 및 상담 건수, 수학능력 성적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상담 교사가 배치된 학교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 보았음. 또한, 남고, 여고, 남녀공학, 자율형 학교 등 학교 형태에 따른 차이도 살펴 봄.	상담교사의 효용성을 학생들의 중도이탈율, 학교 폭력 및 수학능력 지표를 사용하여 검증하여 중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에서 생기는 중도 이탈 및 학교 폭력등의 문제를 상담 교사 확충을 통한 완화하고자 하므로,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본 사업 취지 및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임.
6	권서연 (남기춘)	포스터	권서연, 김준우, 선주경, 남기춘 (2022). 주관적 수면의 질과 암묵기억 간의 관계.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온라인(서울), 대한민국.	기억은 크게 외현기억과 암묵기억으로 나뉨. 기존 연구에 따르면, 외현기억은 수면을 통해 응고화되고 수면의 질과 지속 시간에 따라 그 응고화 정도에 차이를 나타냄. 그러나 암묵기억과 수면 간의 관계를 알아본 논문은 적은 실정임. 이에 해당 발표는 수면의 질에 대한 평정 점수와 암묵기억 형성 간의 관계를 알아	국내에서 수면 장애를 진단받는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저하된 수면의 질은 개인의 정서 뿐만 아니라 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이는 수면 장애가 유무에 따라 인지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 이에 본 연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구에서는 수면의 질 저하가 인지의 여러 기능 중 암묵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격차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함.
7	김유리 (김학진)	포스터	김유리, 김건일, 김학진 (2022). Social Observation Differentially Affects Prosocial Learning of Selfish and Prosocial People. Society for Affective Science. Online: U.S.A.	본 연구는 사회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관찰 상황이 개인의 이타적 가치 계산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개인의 기저의 이타적 성향에 따라 관찰 상황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Society for Affective Science 학회는 정서과학 전반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는 국제적 학회로서, 개인을 넘어 집단 수준의 정서에 대해 연구하고 사회적 갈등, 편견, 차별 등의 완화를 실천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단의 목표인 지속가능성과 연관 깊은 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상황적 맥락이 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다양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 상황과 개인적 성향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를 도와 본 연구단의 목표인 사회적 갈등 및 지속가능성 추구에 기여하였음.
8	강혜란 (김학진)	포스터	강혜란, 김주영, 김대은, 김학진 (2022). 계급 상황에서의 불공정성 대물림. 2022년 한국 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온라인: 대한민국.	본 연구는 계급적 상황에서 불공정성 대물림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아보고자 함. 특히 공정성과 상대방의 계급이라는 요인에 초점을 맞춰 실험을 진행했고, 파트너1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분배가 이와 무관한 파트너2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파트너2의 계급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불공정한 처치는 반사되어 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상위계급보다 하위계급에게 더 많이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리고 이는 자존감이라는 개인의 성격변인과의 연관성을 파악함. 한국 인지및생물 심리학회는 인지, 지각, 학습, 기억, 언어 및 생물적, 신경심리적 연구 및 그 응용분야의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학회임.	본 연구는 공정성과 계급이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설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BK사업 취지에 부합함. 실제로 불공정성이 전파되며 이것이 하급자에게 더 강하게 전파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잘 설명한 연구임. 더 나아가 이러한 불공정성 대물림이라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떤 처치를 가해야 하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간주됨.
9	이미승 (김학진)	포스터	이미승, 김진희, 김학진. (2022). 사회적 평가로 유발된 자기방어행동 예측 생체신호 예측 탐색 연구. 2022년 한국 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온라인. 대한민국.	기존의 자기방어행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관련한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특성을 다면적으로 밝힘으로서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평가 위협 상황에 따른 자기방어행동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실제 예측 모델을 탑재한 어플 개발을 통한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의 함의를 가진다.	사회적 불균형 및 갈등 상황 속의 개인이 경험하는 여러 자아의 위협에 대하여 개인의 심리적 및 생리적 반응을 실제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BK 사업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10	정다운 (최기홍)	포스터	<p>정다운, 박기호, 서동기, 최기홍 (2021). EMA를 활용한 노년기 하루 생활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 2021년 가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온라인: 대한민국.</p>	<p>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 EMA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노년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상 생활속에서의 경험을 수집하여, 어떤 요소들이 종합적인 노년기 하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음.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느낀 긍정정서와 스스로가 느끼는 활동에 대한 가치만이 하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노년층에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수면, 식사, 학습, 운동, 관계 요소는 모두 하루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중 학습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음. 노년기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신체적 운동이나 사회적 관계에 치중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 특히 사소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려는 노력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음.</p>	<p>본 연구는 어떤 요소들이 노년기 일상생활에서 하루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지 탐색한 연구로, BK 연구 사업의 핵심 취지인 지속가능성 추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음.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곧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p>
11	정다운 (최기홍)	포스터	<p>정다운, 최주희, 박수현, 최기홍 (2022). 노년기 활력 증진 프로그램: 적용가능성 연구. 2022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온라인: 대한민국.</p>	<p>노년기 정신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으로서 자서전적 기억을 활용하여 지난 삶에서 개인적 가치를 찾고 그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활성화하는 통합적 심리 개입 방법을 개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상황에서 노년기에게 온라인으로 해당 개입이 가능할지 살펴보았음. 그 결과 프로그램 탈락률은 18% 정도였고,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개인의 부정정서가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함. 또한 사전, 사후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본 프로그램이 노년기 인지기능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본 연구는 노년기 활력 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심리학적 개입의 적용 가능성과 COVID-19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기반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p>	<p>본 연구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심리적, 인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큰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로, 노년 집단의 인지기능 및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였고, 온라인 환경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년 집단에게 온라인으로 심리치료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BK 연구사업의 핵심 취지인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음.</p>
12	이은별 (최기홍)	포스터	<p>이은별, 조수린, 이주희, 손가은, 노은빈, 양예지, 최주희, 홍은택, 강보영, 김현진, 최기홍 (2022).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행동활성화</p>	<p>근거 기반 치료인 행동활성화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 검증한 것과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용이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p> <p>본 연구는 우울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행동활성화치료(iBA)의</p>	<p>학업과 낙인으로 인해,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비대면 행동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에, 이는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p>

			<p>치료의 적용가능성: 사례연구. 2022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온라인: 대한민국.</p>	<p>적용 가능성 및 치료효과를 최초로 검증하였고, 국내 우울장애 청소년 을 대상으로 iBA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이 시사되었음. 본 연구는 해 당 학회(2022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E-poster 최우수 상을 수상하였음.</p>	<p>될 수 있기에 서울,경기 지역 이외의 심리치료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지속 가 능할 것으로 보임. 우울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들의 경우, 여러 사회경제적 불균형요인(예, 물리적 거리, 경제적 비용, 사회적 낙인, 코로나19와 같 은 공중보건위기 등)으로 인 해 근거기반치료에 대한 접 근성이 제한되어 있음. 강력 한 근거기반치료인 행동활성 화치료를 비대면으로 제공하 는 예비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접근성이 제한된 계층 및 상 황에서 지속가능한 원격 심 리치료의 가능성을 검증함.</p>
13	표소휘 (양은주)	포스터	<p>표소휘, 김나라 (2022). A pattern association study for seeking advice online under restrictive abortion law in Korea. 2022 National Multicultural Virtual Conference and Summit. Santa fe, U.S.A.</p>	<p>‘A pattern association study for seeking advice online under restrictive abortion law in Korea ‘ 연구는 낙태법 개정 이후 여성의 성 과 재생산 건강을 향상시키고, 성 재생산 관련된 의료 지식을 온라인 으로 찾아볼 수 밖에 없는 소수자 (청소년,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의 문제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탐색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입 니다. 특히 기혼 여성 집단과 비교 하여 미혼 여성과 청소년 집단이 임 신 상황에서 요청하는 심리적이고 제도적인 도움에 초점을 맞추어 본 교육연구단의 사업 목표인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실질적 문제해결이라 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 다.</p>	<p>소수자 집단인 미혼 여성과 청소년이 임신 상황에서 요 청하는 심리적이고 제도적인 도움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본 교육연구단의 사업 목표 인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실 질적 문제해결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p>
14	김정원 (성용준)	구두	<p>김정원, 박소연, 성용준 (2021).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 한국광고학회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ESG경영 특별 세미나, 서울: 대한민국.</p>	<p>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가능한 소 비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실제 로 지속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인식 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를 저 해하는 제약 요인을 밝히고 각 요인 이 소비 단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 는지 살펴봄.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내재적, 외재적 제약 요인을 살핌으로써 소비자가 긍정적인 인식 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소비가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 를 탐색함. 그 결과 연구 결과 지속 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은 무력감, 어려움, 무관심, 의심, 기반의 부족, 경제성의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음.</p>	<p>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소비 를 방해하고 제약하는 요인 을 탐색하고 추후 개입하는 지점 및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요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는 점 에서 BK사업의 목적인 지속 가능성과 연관성이 있음.</p>

				또한 추출된 제약요인은 소비의 구매-사용-폐기 행동 단계와 각각 다른 관계를 보임.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비자 관점에서 구매, 사용, 폐기를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 의의가 있음.	
15	진형록 (성용준)	구두	진형록, 황재희, LUO BINGQIN, 김태연, 성용준 (2021). 아바타를 통한 가상환경에서의 친환경 행동이 실제 환경에서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 실제감과 라이선싱 효과를 중심으로. 2021 한국광고학회 추계학술대회, 부산: 대한민국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서 사용하는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수준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친환경 행동 이후 실제 세계에서 라이선싱 효과의 일환으로 친환경 행동 의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이러한 라이선싱 효과가 자기실재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메타버스에서의 행동이 실제 세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함.	아바타에 대한 자기실재감 수준에 따라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친환경 행동이 실제 환경에서의 친환경 행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대안으로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시 유의해야 할 문제점을 제기함에 본 BK 사업과의 연관성을 지님.
16	김정원 (성용준)	구두	김정원, 이동화, 성용준 (2021). 서술적 규범의 유형과 감정 소구 유형이 친환경 행동 설득에 미치는 영향. 2021 한국광고학회 추계학술대회, 부산: 대한민국.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광고 메시지 전략을 제안하고 개인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기존 다수를 강조하는 서술적 규범과 함께 소수를 강조하는 서술적 규범의 효과를 새롭게 비교함으로써 죄책감과 자부심의 감정 소구 유형에 따라 서술적 규범의 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 특히 소수 서술적 규범의 경우 죄책감 소구 메시지를 함께 적용할 경우 다수의 서술적 규범만큼 효과적일 수 있음을 검증하며, 소비자들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 전략을 제안함.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 전략을 제안하고, 개인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BK사업과의 연관성을 지님.
17	김정원 (성용준)	구두	김정원, 성용준 (2021). 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정보 유형과 개인 정보 제공 대상을 중심으로. 2021 한국광고학회 추계학술대회, 부산: 대한민국.	본 연구는 두 개의 실험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밝히고자 하였음. 첫 번째 연구 연구에서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다양한 개인 정보들에 대해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로 인식하는 정도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 정보 유형을 확인하였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은 자발적으로, 혹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본 연구는 개인 정보 유형에 따라 프라이버시 문제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프라이버시 권리 문제를 조명하여 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BK 사업과의 연관성을

				<p>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인정보 유형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 정보 유형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나아가 본 연구는 실무자들에게도 개인 정보 유형에 따라 프라이버시 문제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p>두 번째 연구는 첫 번째 연구에서 밝힌 개인정보 유형과 함께 개인정보 제공 대상을 고려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프라이버시 위험과 염려 평가를 살펴보았음.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평가는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유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언택트 기술의 상용화로 사람들은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인간 직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에이전트와도 개인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음. 본 연구는 개인정보 제공 대상을 인간과 인공지능 직원으로 구분해 사람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제공 대상에 따라 프라이버시 위험과 염려의 평가 차이를 밝힘.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고, 기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권리 문제를 조명하여 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 의의가 있음.</p>	<p>지님.</p>
18	박소연 (성용준)	구두	<p>박소연, 성용준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대상과 자아존중감이 아바타이상화 (Avatar Idealization)에 미치는 영향 2022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1 2022, 서울, 한국</p>	<p>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아바타 이상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만나는 사람 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함. 구체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자아존중감은 아바타 이상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아바타를 실제 자아보다 더 이상적으로 만들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아바타를 실제 자아에 더 가깝게 만든다는 것 검증함. 본 연구는 현재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하여 아바타를 통한 자아 표현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메타버스에</p>	<p>자아존중감은 인간 행동과 생활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건전한 성격발달 및 정신 건강에 기반이 되어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게 하는 필수 요건임. 본 연구는 메타버스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현재 자아존중감을 고려하여 더 나은 메타버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BK 사업과의 연관성을 지님.</p>

				서 만나는 대상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아바타 이상화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함.	
19	김정원 (성용준)	구두	김정원, 성용준 (2022). 개인정보 공개 대상으로서 인공지능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022 한국광고학회 글로벌 콜로키움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강화 심포지움. 속초: 대한민국.	본 연구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 대신 인공지능이 이용자와 상호작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음. 신뢰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영향 요인은 크게 1) 신탁자(이용자), 2) 수탁자(인공지능), 3) 환경(인공지능 이용 맥락)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신탁자 차원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 전반적 기술에 대한 인식과 대인관계 관련 개인 특성이 포함되었음. 수탁자 차원의 요인으로는 감정 관련, 능력 관련, 윤리 관련 특성들이 포함되었고, 환경 차원에는 이용 상황과 관련된 특성(예를 들어, 공개 방식, 개인정보 유형 등)과 규제 관련 특성들이 포함되었음.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개인정보 공개 상황에서 기존 인간 직원과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 직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용자-인공지능의 신뢰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높였음.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인공지능 차원의 특성과 함께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 규제 등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 또한 존재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은 이용자와 더 빈번히 상호작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인공지능 차원의 특성과 함께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 규제 등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본 BK사업과의 연관성을 지님.
20	진형록 (성용준)	구두	진형록, 성용준 (2022). 사회적 라벨로서 에코배지가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라벨링 효과와 책임감 분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2 한국광고학회 글로벌 콜로키움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강화 심포지움, 속초: 대한민국.	본 연구는 사회적 라벨로서 에코배지의 역할을 밝히고, 책임감 분산에 따라 라벨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했음에 이론적 의의가 있음. 또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배지와 같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용함에 따라 쇼핑과 같은 서비스의 핵심 활동 외에도 다양한 소비자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배지 부여를 통한 라벨링 효과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배지를 받았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게 주의해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에코배지가 사회적 라벨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라벨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계조건을 탐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에코배지의 활용을 제안함에 본 BK 사업과의 연관성을 지님.
21	민승 (성용준)	포스터	민승, 이동화, 성용준 (2002). 브랜드 맥락에서 의인화가 대리적 면허효과에	본 연구는 브랜드 맥락에서 대리적 면허효과의 발생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써 의인화 효과를 제안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 제안에서는	해당 연구 제안은 최근 기업 및 브랜드의 도덕적 행동 및 친환경 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에 부응하여

			<p>미치는 영향.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대학원생 세미나, 속초: 대한민국.</p>	<p>의인화 효과가 가진 분리감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대리적 면허효과의 발생 요인인 대상과의 동일시를 의인화효과가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브랜드 맥락에서의 대리적 면허효과를 억제하는 요인을 탐구하고자 함. 본 연구는 대리적 면허효과가 브랜드의 의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탐구함으로써 기존의 대리적 면허효과 이론을 확장하고, 기존에 존재되어 있는 의인화 효과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를 통합한다는 학문적 의의가 존재함. 또한, 기업 및 브랜드의 도덕적 행동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도덕적 행동이 감소할 수 있는 대리적 면허효과를 억제하는 요인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도덕적 행동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함의 또한 존재함.</p>	<p>기업 및 브랜드의 관련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부정적 결과인 대리적 면허효과에 따른 소비자의 도덕적 행동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BK 사업과의 연관성을 지님.</p>
22	박소연 (성용준)	포스터	<p>박소연, 성용준 (2022). 자기효능감과 조절 초점이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대학원생 세미나, 속초: 대한민국.</p>	<p>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의 유형과 조절 초점 메시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여 친환경 캠페인 태도와 참여 의도, 친환경 행동에 더 효과적인 인지를 확인하고자 함.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인 무력감과 어려움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이전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의도와 행동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가 있음.</p>	<p>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인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속가능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소비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의 실천을 장려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의 의도와 행동의 간극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로 본 BK 사업과의 연관성을 지님.</p>
23	민해원 (고영건)	포스터	<p>민해원, 박영지, 고영건 (2022).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의 대학생 정신건강: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 서울: 대한민국.</p>	<p>코로나 팬데믹이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정신장애와 증상에 기반하여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을 정신장애와 증상에 기반하여 이해하는 일원론으로는 정신건강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신적 웰빙을 포함하여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이원론적 관점 즉,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에 기반하여 코로나 팬데믹 발생 초기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집단이 팬데믹 대처에서 더욱 취약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p>	<p>장기화된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적 혼란과 개인의 부정적 반응이 지속되는 심리적, 사회적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은 현재부터 취약한 집단을 변별하고 선제 개입하는 것에 주의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집단은 발달 상 청소년기 정서적 불안정성의 말미에 있음과 동시에 미래의 직업 장면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중요 과업을 안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활동과 대인교류를 중단시킨 팬</p>

				<p>가 발표된 학술대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 분과에서 주최되는 공인 행사이며,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 취득과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학술대회이다.</p>	<p>데믹이 대학생 집단에 대해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팬데믹이 대학생 집단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이후 지속되는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시발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p>
24	김시황 (고영건)	포스터	<p>김시황, 이지예, 정예원, 고영건 (2022). 시각화된 자기상과 일상적 스트레스 간 관계: 메타정서의 조절효과.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 서울: 대한민국.</p>	<p>자기상(Self image)이란 자기 자신의 신체 정신적 기능 사회적 태도 일상생활 적응 등에 대한 주관적 지각의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정적인 자기상은 우울 등의 정신병리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긍정적인 자기상은 낮은 스트레스 및 긍정 정서를 비롯한 심리적 웰빙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Moon 등 (2020)은 Brinkman 등(2017)이 제시한 역상관 (reverse correlation RC) 기법을 이용하여 자기 범주 이미지 (self classification image self CI)를 산출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정신적 표상 즉 자기상을 시각화하고 시각화된 자기상의 긍정값이 자존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사회불안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자기상이 정신건강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개인차가 보고되는 바 자기상과 정신건강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메타정서 (meta emotion)에 주목하고자 한다 메타정서는 정서에 대한 정서로서 정서에 대한 근원적인 정서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메타정서 수준은 정서경험의 주관적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메타정서는 심리적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한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낮은 메타정서 수준은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메타정서는 자기상과 개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개인차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p>	<p>자기상은 다양한 집단에서 정신병리 및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자기상을 객관적이고 암묵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도구를 제안하고, 자기상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메타정서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메타정서의 측정 역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시각화된 자기상의 특정 차원과 메타정서의 긍정성이 일관될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두 변인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 집단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학적 개입 과정에서 자기상의 긍정성 수준에 따라 메타정서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심리적 개입의 측면에서 단순한 심리적 고통의 일시적 경감이 아니라 메타정서라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건강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입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제안하여 심리학 연구의 지표를 확장하였다.</p>
25	임예지 (박선웅)	포스터	<p>임예지 (2022). 기성세대의 개인차</p>	<p>본 연구는 본 연구는 기성세대의 개인차 변인이 MZ 세대에 대한 태도</p>	<p>선행연구들이 세대갈등의 문제를 MZ세대와 기성세대의</p>

			<p>변인과 MZ 세대 특성의 인식이 MZ 세대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 연구. 022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온라인: 대한민국.</p>	<p>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둘 간의 관계를 기성세대가 인식하는 MZ 세대 특성이 매개 및 조절하는지 확인한 연구이다. 이를 2022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양성과 확립, 사회 및 성격심리학 연구의 촉진 및 정보교환을 도모하며, 사회 및 성격심리학 관련 전문직 활동의 지원과 회원의 권익 보호하며 학술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이다.</p>	<p>특성차이 또는 MZ세대 특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성세대의 개인차변인을 중심으로 MZ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MZ 세대를 더 잘 이해하고 직장 내 세대 갈등을 완화할 방법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내에서 세대갈등으로 나타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른 세대들의 조화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
26	김소울 (박선웅)	구두	<p>김소울 박수연 박선웅 (2022). 인생 책, 영화, 드라마와 정체성 발달. 2022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온라인: 대한민국.</p>	<p>본 연구는 책, 영화, 드라마가 개인의 정체성 발달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심리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책, 영화, 드라마가 개인에게 내면화된 정도와 심리적 웰빙에 대한 정체성 발달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2022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실시간 구두 발표를 하였다.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양성과 확립, 사회 및 성격심리학 연구의 촉진 및 정보교환을 도모하며, 사회 및 성격심리학 관련 전문직 활동의 지원과 회원의 권익 보호하며 학술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이다.</p>	<p>본 연구는 인생 책, 영화, 드라마가 초기 성인기 정체성 발달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심리적 웰빙을 증진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책, 영화, 드라마 등의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이 초기 성인기 정체성 발달에 기여하는 다양한 경험 중 하나임을 시사하며 개인의 심리적 웰빙 향상을 통한 심리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웰빙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
27	성소현 (허태균)	포스터	<p>성소현, 김가람, 허태균 (2022). What make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atisfied with their lives?: focusing on the Work and Leisure. SPSP Annual Convention, San Francisco: U.S.A.</p>	<p>발달장애인들의 일과 여가를 포함한 삶의 전반을 인터뷰 및 대규모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음</p>	<p>발달장애를 가진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함</p>
28	신혜민 (허지원)	포스터	<p>신혜민, 김규명, 문혜리, 허지원 (2021). Neural Correlates of Emotional Working Memory in Nonsuicidal</p>	<p>NSSI의 기능 중 정서 조절 곤란 및 정서 반응성의 문제는 흔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 처리 문제들은 NSSI의 작업 기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p>	<p>Society for Neuroscience 2021, the 50th Annual Meeting는 1969년 설립되어 현재 95개국 이상에서 36,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뇌와</p>

			Self-Injury. Society for Neuroscience 2021, the 50th Annual Meeting, Virtual Conference: U.S.A.	NSSI의 작업기억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신경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음. 본 연구는 정서적 자극이 포함된 작업 기억 과제중, 정서가 나타나는 얼굴 자극을 무시하면서 N-back 과제를 수행하는 EFNBACK 과제를 사용하여 NSSI를 하는 개인의 정서적 작업 기억 능력을 살펴보고, 그것의 신경학적 상관관계를 조사함. 연구 결과는 NSSI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과제 반응시간 및 정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fMRI 데이터 분석 결과 height threshold .005 수준에서 유의한 영역들이 존재했음. 이 결과는 NSSI는 정서적(특히 부정적)인 자극이 존재하는 경우, 즉, NSSI를 가진 개인이 과도한 인지 자원이 요구될 때 HC와 다른 뇌 활동을 보여 주었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NSSI의 정서 조절 곤란 및 정서 반응성에 기여하는 신경 병리 생리학에 대한 문헌을 확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신경계를 이해하기 위한 세계 최대의 신경과학 학회임. 특히 신경과학의 획기적인 발견을 촉진하고 과학적 발전의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인간의 뇌와 신경계, 더 나아가 건강을 개선하는 과학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음. 신경 과학은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강력한 새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과학적 지식, 새로운 기회와 공공정책, 사회적 이익 및 지속적인 과학적 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문임. 본 연구단의 목표인 지속가능성은 인간의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보다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학회는 뇌과학을 통한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9	이수은 (허지원)	포스터	이수은, 신혜민, 김규명, 문혜리, 허지원 (2021). Subjective Pain, Emotion Regulation Function, and Regional Brain Volume Reduction in Nonsuicidal Self-injury. Society for Neuroscience 2021, the 50th Annual Meeting, Virtual Conference: U.S.A.	본 연구에서는 자해 군과 통제군의 회백질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회백질의 부피 차이가 자해의 특성(ex. 자해할 때의 고통, 빈도, 기능 등)과 연관이 있음을 규명하였음. 자해하는 내담자들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치료 개입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규명된 뇌 신경학적인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음.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여러 정신질환 및 관련 증상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특히 본 연구를 발표한 국제 학회는 신경과학의 획기적인 발견을 촉진하고 과학적 발전의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인간의 뇌와 신경계, 더 나아가 건강을 개선하는 과학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 BK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30	조수민 (허지원)	구두	배진태, 조수민, 김영서, 윤병연 (2021).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한국 우울 담론의 사회적 구성 탐구. 한국사회학회 2021 정기사회학대회. 온라인: 대한민국.	저명한 학술단체인 한국사회학회의 연례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연구발표를 진행하였다. 사회학과와 교육학과 등 타 분과 연구원들과의 협업으로 다각도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유의미한 사회적 함의를 담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언론 보도자료를 자연어처리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우울 담론의 형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담론의 형성에 중심에 있는 주요 행위자들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우울이 인지되고 경험되는 방식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정신건강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 밝혀내

					고자 하였다.
31	조은진 (허지원)	포스터	Eunjin Jo, Gyumyoung Kim, Ji-Won Hur (2021). Asthma, Allergic Rhinitis,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e Attempts. Neuroscience 2021-50th annual meeting, 온라인: 대한민국.	SFN(Society for Neuroscience)은 2000년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학회로, 2021년에는 95개 이상의 국가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9000개 이상의 초록이 제출되었다. 동물과 인간 대상 연구를 아울러, 뇌 과학과 접목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진들이 본 학회에 참여한다. 본 학회에서 발표된 결과는 공중보건의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에 있어서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 최초로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의 위험 요인을 탐색하여 관련된 정량적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추후 미래 세대에서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에 대한 연구가 연속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쌓고 임상 장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개입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김하은 (허지원)	포스터	김하은, 허지원 (2021). The Cessation of Nonsuicidal Self-Injury: Comparison between Current and Lifetime NSSI. 2021 IASR/AFSP International Summit on Suicide Research, Virtual Conference: U.S.A.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경험이 있는 성인 중, 자해를 중단한 집단과 지속하고 있는 집단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자해 중단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과 자해의 유지에 영향을 주는 자해 기능에 대한 지각의 차이, 및 여러 임상 증상과 심리적 자원에서의 차이를 탐색함. 그 결과, 연령이 어릴수록 NSSI를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NSSI를 지속하고 있는 개인들이 NSSI의 개인 내 기능에 대해 더 많이 보고함. 심리적 변인의 측면에서는, NSSI를 지속하고 있는 개인들이 자해를 중단한 개인들에 비해 더 높은 지각된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지각된 스트레스, 감정불능증, 정서 반응성, 자살사고를 보이며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보고하였으며, 자존감, 고통감내력, 회복탄력성 등의 심리적 자원의 경우 NSSI를 중단한 개인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본 연구는, 자해의 시작과 유지와 관련된 특성들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던 자해 중단과 관련한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음. 특히, 본 연구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BK연구사업의 핵심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로, 자해를 지속하는 개인들의 심리적 불균형을 조망하였으며, 자해의 중단과 관련한 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추후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자해 행동의 중단을 위한 개입의 개발을 위한 학문적 토대에 기여하였음.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행동은 자살 의도가 없이 행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자살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음이 알려진 만큼 많은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자해를 지속하는 개인들이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어려움과 임상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혀내었으며, 여러 심리적 고통감을 다룰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자원 또한 부족함을 밝힘. 이를 통하여 자해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들의 심리적 불균형에 대해 탐색할수 있었으며, 자해의 중단을 위한 개입을 위해 관련된 임상증상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통감내력, 회복탄력성 등 심리적 고통감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개입 또한 필요할 것을 확인함.
33	김규명	포스터	김규명, 허지원 (2021).	본 연구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	NSSI 행동은 자살사망의 위험

	(허지원)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Young Adults. 2021 IASR/AFSP International Summit on Suicide Research, Virtual Conference: U.S.A.	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중 특히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상태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위가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Nonsuicidal self-injury, NSSI)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함. 연구 결과는 낮은 객관적 사회경제적 상태와는 독립적으로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이 NSSI에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냄. 이를 통해 정신 건강 문제에 있어 사회경제적 요인의 객관적, 계량적 지표 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심리적 인식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요인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자살사고나 구체적 자살행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에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임.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예방 및 조기 개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34	정지훈 (최준식)	포스터	정지훈, 최준식 (2021). Temporal neural ensemble decoding of approach-avoidance behavior in prelimbic and infralimbic cortex. Neuroscience 2021, Virtual Conference: U.S.A.	neuroscience 2021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신경과학분야 학회인 SfN에서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임. 본인은 mPFC 영역에서 단위신경기록 방법으로 수집한 신경활동 데이터와 접근-회피 갈등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이를 국제 학회에 발표하였음.	위협과 보상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동물 모델을 사용해 진행한 이 연구는 차후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신경생리학적인 해석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극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공존과 지속성을 위한 의사결정에 응용될 수 있음.
35	이재용 (최준식)	포스터	Jae Yong Lee, June-Seek Choi (2022). Optogenetic inhibition of the central amygdala at discrete time points modulate the approach behavior of foraging rat under risk of robot attack. The 2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Songdo: South Korea.	편도체는 기존에 많이 연구된 것과 같이 부정적 정서가를 포함하는 자극에 대한 처리와 방어행동의 형성에 관여하는 것 외에 최근 긍정적 정서가를 포함하는 자극의 현저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작용에도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음. 본 연구는 접근동기를 유발하는 보상과 회피동기를 유발하는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편도체 중심핵영역의 억제 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억제가 가해지는 시점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임.	단순히 보상 혹은 위협만 존재하는 단순한 실험실 상황과는 다르게 다변화되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자극들이 공존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임. 특히 과도한 보상추구나 불안수준 등은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행동을 야기하며 이것이 누적되면 사회적 불균형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 갈등 상황에서 뇌의 회로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 증진은 부적응적인 행동치료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36	편경희 (조용상)	포스터	Gyeong Hee Pyeon, Yong Sang Jo (2022). Suppression of addictive-like behavior by activating CGRP neurons in the parabrachial nucleus. The 2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s,	본 연구는 원하지 않지만 중독성 있는 행동을 없애기 위해 관련된 뇌회로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음. 최근에, 상완 주위 핵 (Parabrachial nucleus)의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가 통각 통증 신호를 제공하고 뇌의 다른 기질에 통증 유사 정보 신호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기에서 우리는 CGRPPBN 뉴런의 자극이 그러한 효과를 모방할 수 있고 중독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 기존에 사용되던 행동수정 및 교정의 방법들 중 가장 효과적인 신체적 처벌은 그 효과에 비해 동반되는 부작용이 크기에 사용이 제한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짐. 반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뇌의 정보 신호의 경우 신체적 고통이나 정서적 고통을 동

			Songdo: South Korea.	성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함. 종합적으로, CGRPPBN의 자극이 중독성 행동을 강력하게 없애고 진행 중인 행동을 차단하는 통증과 같은 경보 신호를 뇌에서 생성함을 확인함.	반하지 않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행동수정 방식으로써 연구되고 개발될 가치가 있음.
37	편경희 (조용상)	포스터	Gyeong Hee Pyeon, Yong Sang Jo (2022). Extinction of addictive-like behavior induced by stimulation of CGRP neurons in the parabrachial nucleus.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온라인: 대한민국.	본 연구는 원하지 않지만 중독성 있는 행동을 없애기 위해 관련된 뇌회로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음. 최근에, 상완 주위 핵 (Parabrachial nucleus)의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PBN)가 통각 통증 신호를 제공하고 뇌의 다른 기질에 통증 유사 경보 신호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기에서 우리는 CGRPPBN 뉴런의 자극이 그러한 효과를 모방할 수 있고 중독성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함. 종합적으로, CGRPPBN의 자극이 중독성 행동을 강력하게 없애고 진행 중인 행동을 차단하는 통증과 같은 경보 신호를 뇌에서 생성함을 확인함.	기존에 사용되던 행동수정 및 교정의 방법들 중 가장 효과적인 신체적 처벌은 그 효과에 비해 동반되는 부작용이 크기에 사용이 제한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짐. 반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뇌의 경보 신호의 경우 신체적 고통이나 정서적 고통을 동반하지 않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행동수정 방식으로써 연구되고 개발될 가치가 있음.
38	편경희 (조용상)	포스터	Gyeong Hee Pyeon, Jaeyong Lee, June-Seek Choi (2021). Sex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defensive behavior of rats under chasing threat paradigm. Society for Neuroscience, Chicago: U.S.A.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불안과 공포 관련 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보고되어왔지만 그러한 성차에 기저하는 생물학적인 기전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음. 본 연구에서는 로봇을 활용하여 생태학적인 타당도를 높인 스트레스 측정 패러다임과 불안측정 패러다임, 그리고 공포반응 측정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쥐가 보이는 스트레스 반응 및 불안행동에서 성차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러한 차이를 조절하는 요인으로써 암컷 쥐의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확인함.	사회적으로 집단 간의 불이해와 이로 인한 갈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걸림돌임.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차에 대한 이해로 생물학적 접근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9	고창범 (최준식)	포스터	고창범 (2022). 시상 실방핵 손상이 접근-회피 갈등 상황에서 행동 최적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온라인: 대한민국.	해당 발표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시상 실방핵의 주된 역할에 대한 연구로서, 이점이 있는 분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자연적인 접근-회피 갈등을 유발하는 포식자 로봇을 사용함. 그 결과 시상 실방핵의 주된 역할은 학습과 동기 모두를 포함하며, 손상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보상과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을 실험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마주하는 실제 자연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음. 다양한 자극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데, 특히 과도한 보상 추구(risk taking)나 불안수준 등은 생존적,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행동을 야기함. 적절한 판단과 행동에 기여하는 뇌 영역과 그 기능을 밝힘으로써 적응적 삶을 방해하는

					충동성, 위험감수성향, 혹은 과도한 불안, 공포증에 영향을 미치는 뇌 메커니즘과 치료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는 부적응적인 행동치료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0	박민선 (김채연)	포스터	박민선, 김채연 (2022). Decoding audio-visual direction congruency in the visual cortex. Vision Science Society, St. Pete Beach: U.S.A.	본 학술대회는 Vision science 분야의 오랜 명성을 지닌 곳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목적 및 방법적 최신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칩. 발표 연구는 시각과 청각 정보 간 통합이 일어나는 신경적 기제를 밝히고자 뇌영상기법 및 머신러닝 방법을 활용하여, 시각신경과학 분야에 감각기관의 확장의 관점에서 기여하였음.	BK 연구사업의 핵심 목표인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에 부합하는 연구로, 다양한 감각 정보 간 결합 문제(binding problem)에 대한 기초적 탐구를 바탕으로 추후 노화로 인한 감각 손실, 학생 교육 증진 프로그램 등 응용적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41	송지원 (김채연)	포스터	송지원, 홍상욱, 김채연 (2022). Enhanced blue-yellow sensitivity in individuals with depressive symptoms. Vision Science Society, St. Pete Beach: U.S.A.	본 연구는 정신물리학 방법을 통해 우울한 사람들의 색지각에 대해서 알아본 연구임. 적녹과 청황 색으로 색 조건을 분류하여 각 조건에서 색 지각 민감도를 측정된 결과,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청황 색에서 색민감도가 증진됨을 확인하였음. Vision Science Society (VSS) 학회는 시지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1,200개 이상의 포스터 발표와 200개 이상의 구두 발표가 이루어지는 권위 있는 대규모 학술대회임. 색안에서도 밝기를 제외한 색도에 따른 영향만을 선별하여, 우울 증상과 색도 지각 간의 관련성을 실험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점을 해당 학회에서 높이 평가받았음. 또한 본 연구는 실험에서 얻은 색 민감도 지표를 우울 지표로 활용하면, 우울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여 조치할 수 있다는 실용적 의의도 가짐. 시지각 처리 과정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우울의 속성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로, 임상 심리와 지각 심리 두 분야의 융합성이 강조되는 연구라는 점에서의 새로움과 차별성도 인정받았음.	우울증은 범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매우 높고 다양한 기능장애를 동반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진단이 매우 중요함. 본 연구에서 추출된 색 민감도 지표는 우울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우울 진단 지표로 개발되어, 우울증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진단하여 예방 및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음. 이는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님. 또한 임상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울한 사람들의 초기 시각 처리 시스템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됨.
42	송지원 (김채연)	포스터	송지원, 김채연 (2021). Art expertise and aesthetic preference for visual properties. Society for Neuroscience, Chicago(Online): U.S.A.	본 연구는 시각 속성에 대한 미적 선호와 예술 전문성에 대해 알아본 리뷰 연구로, 대표적인 시각 속성 3가지 곡률, 복잡도, 대칭을 선정하여 각 시각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이끌어냈음. 분석 결과, 시각 속	본 연구는 폭넓은 문헌조사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미적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 간에 상호작용을 선명하게 정리하였고, 미적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에 공헌하였음. 특히 BK

				<p>성에 대한 선호와 예술 전문성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전문가들의 증진된 지각 유창성과 비정형성에 대한 인지적 추구로 인한 결과로 해석됨. 최근 미적 감상 모델이 주목하고 있지 않았던 지각 처리 단계에서 전문성의 영향에 주목하여, 하나의 일관된 설명으로 통합하였고, 그 결과 미적 경험 전반에 걸쳐 예술 전문성이 미적 감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님. Society for Neuroscience (SfN) 학회는 신경과학, 심리학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약 15,000개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술대회로 손꼽힘. 해당 연구에 대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활발히 소통하였음.</p>	<p>연구사업의 핵심 목표인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해결방안 연구 중 하나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로, 미적 경험 형성 과정을 심도 깊게 탐색하여 해당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p>
43	박시온 (김채연)	포스터	<p>박시온, 김채연 (2022). Eye responses reflect spatial congruency and perceptual bias in audiovisual interaction. Vision Science Society. St. Pete Beach: U.S.A.</p>	<p>본 연구는 복화술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시각과 청각의 통합을 알아본 연구로, 이러한 지각적 변화를 동공의 크기 변화 및 미세환속운(microsaccade)와 같은 눈의 반응을 활용하여 살펴보았음. 그 결과, 동공의 크기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의 위치가 같을 때 보다 다른 위치에서 제시가 되었을 때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을 확인함. 또한 시청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각적 경험의 차이를 미세환속운동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는 미세환속운동이 시청각 통합을 관찰하는데 있어 유효한 간접적 생체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p>	<p>본 연구가 BK 연구사업의 핵심 목표인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지만, 시청각 통합에서의 지각적 변화를 간접적인 안구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해당 측정 방법은 기존 인체 정보를 측정하는 지표에 비해 비교적 사용이 용이하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후 심리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p>
44	박시온 (김채연)	포스터	<p>박시온, 김채연 (2021). The impacts of audiovisual spatial congruency on pupil dilation. Society for Neuroscience, Chicago(Online): U.S.A.</p>	<p>본 연구는 복화술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시각과 청각의 통합을 알아본 연구로, 이러한 지각적 변화를 동공의 크기 변화 및 미세환속운동(microsaccade)와 같은 눈의 반응을 활용하여 살펴보았음. 그 결과, 동공의 크기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의 위치가 같을 때 보다 다른 위치에서 제시가 되었을 때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을 확인함. 이는 시청각 통합 연구에서 조건간 차이를 간접적인 안구 지표를 활용하여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p>	<p>본 연구는 BK 연구사업의 핵심 목표인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에 부합하는 연구로, 시청각 정보의 통합에 대한 기초적 탐구를 간단하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간접적인 안구 지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추후 지속가능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p>
45	이지은,	포스터	Jieun Lee, Nahyun	AHFE는 인간요소 (Human Factor)와	모빌리티 산업의 최근 기술

	이나현, 주장규 (조양석)		Lee, Jangkyu Ju, Jihwan Chae, Jiyeon Park, Hoe Sung Ryu (2022). Simple Is the Best! Visual Complexity of Head-Up Display in Automobiles Modulates Attentional Tunneling and Driving Performanc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AHFE 2022) and the Affiliated Conferences, New York: U.S.A.	인간공학(Ergonomics)를 다루는 학문적, 응용적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세계적 학회임. 본 연구는 BK주최 RCP융복합연구기반프로그램을 통해 간학문적(심리학과-인공지능학과)으로 결성된 팀이 Head-Up Display(HUD)의 시각적 복잡도가 사용자의 주의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연구 결과로 시각적 복잡도가 낮은 HUD를 사용했을 때 운전자 전체시야(중심시야, 주변시야)에 대한 주의 자원의 분배가 가장 이상적임을 밝힐 수 있었으며, 시각적 복잡도가 높은 HUD는 중심 시야로의 주의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린 결과임.	발전 동향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 인간중심적 공학 설계의 필요성을 알림. 더 나아가 안전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증진에 기여함.
46	이지은 (조양석)	포스터	Jieun Lee, Yang Seok Cho (2021). The Size of Task-Switching Cost Does Not Predict the Cross-Task Congruency Sequence Effect. Psychonomic Society 2021 62nd Annual Meeting, Virtual Conference: U.S.A.	Psychonomic society 는 6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5600명 이상의 세계 석학 회원들로 구성된 인지 실험 심리학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 가운데 하나임. A, B 2개 과제를 AABB 방식으로 전환해가며 수행하게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과제 사이에 인지통제가 나타날지와 과제 전환 비용은 상관없이 있음을 밝힌 연구임. 과제 관련 차원의 일치하는 과제 전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인지통제의 범위를 결정하지는 않고, 서로 다른 과제 사이에 하나의 인지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과제 무관한 차원에 의해 일어남을 보여줌. 이를 통해 인지통제의 범위는 과제 관련보다는 과제 무관한 차원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함.	인지적 갈등을 해소하는 인지통제는 끊임없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제임.
47	이나현 (조양석)	포스터	Nahyun Lee, Yang Seok Cho (2021). Cognitive Control in Location- and Arrow-based Simon Tasks. Psychonomic Society 2021 62nd Annual Meeting, Virtual Conference: U.S.A.	Psychonomic society 는 6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5600명 이상의 세계 석학 회원들로 구성된 인지 실험 심리학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 가운데 하나임. 본 연구는 공간정보를 전달하는 서로 다른 공간정보 유형 간에 동일한 표상을 공유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됨. 위치정보와 화살표정보를 사용하는 Simon 과제를 수행하게 했을 때, 이전 시행의 갈등이 현 시행의 다른 공간정보유형의 갈등해소에 도움을 주는 순차합치효과를 발견했으며, 따라서 두 과제 간의 갈등 완화 기제가 공유되고 있음을 밝힘.	공간정보처리하는 개인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인지처리능력으로, 공간정보의 습득과 통제 기제에 대한 이해는 정보 사용성에 대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48	주장규 (조양석)	포스터	Jangkyu Ju, Yang Seok Cho (2021). Distinctive	Psychonomic society 는 6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5600명 이상의 세계	불확실성에 대한 주의 편향은 끊임없이 급변하는 현대

			Effects of Entropy and Variance of Reward in Value-Driven Attentional Capture. Psychonomic Society 2021 62nd Annual Meeting, Virtual Conference: U.S.A.	<p>석학 회원들로 구성된 인지 실험 심리학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 가운데 하나임. 본 연구는 자극과 연합된 보상의 불확실성에 따라 자극에 대한 가치 기반 주의 포획이 조절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정보 엔트로피와 분산이라는 두 지표로 나누어 각 지표가 주의 포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 높은 엔트로피를 가진 보상과 연합된 자극에 대하여 강한 주의 포획이 일관되게 확인되었고, 낮은 엔트로피를 가진 보상과 연합된 자극은 주의 포획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보상의 분산은 주의 포획의 정도를 조절하지 못했음. 따라서, 보상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보 엔트로피가 우세한 작용을 보임이 확인되었고, 더 나아가 인간의 보상 관련 주의가 정보의 양을 최대로 내포하고 있는 자극에 자동적으로 할당됨이 밝혀짐.</p>	<p>사회에서 인간의 주의 배분이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기여하므로 개인 수준 및 사회 전체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p>
49	이운서 (조양석)	포스터	Yoon Seo Lee, Yang Seok Cho (2021). The Congruency Sequence Effect Transfers Across Different Task Representation. Psychonomic Society 2021 62nd Annual Meeting, Virtual Conference: U.S.A.	<p>Psychonomic society 는 6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5600명 이상의 세계 석학 회원들로 구성된 인지 실험 심리학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 가운데 하나임. 본연구는 항상성 유지를 위한 인지통제 시스템의 범위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지통제의 범위는 과제와 관련된 Task-Set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주장함.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해당 이론을 검증해보고자 task-set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조작해, task-set이 달라도 과제 간 인지통제가 전이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그 결과, 과제 간 task-set이 달라도 인지통제가 전이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task-set이 인지통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전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임을 시사함.</p>	<p>본연구는 다양한 조절 매커니즘에서도 갈등처리에 핵심적인 영역중 하나인 인지통제 (cognitive control)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음. 특히 순차합치효과 (Congruency Sequence Effect)를 통해 심리적 불균형을 일으키는 방해자극에 대한 처리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인지통제 기제의 통합모형을 구축해 항상성 유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순차합치효과를 통한 인지통제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을 대변하는 불안신경증이나 ADHD등의 정신병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임.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집단과 건강한 통제집단 간에 인지적 유연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심리적 불균형에 인지통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p>
50	김은지 (최은수)	구두	한주연(성균관대학교), 김은지 (2022). Review of emotional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ical	<p>APA 분과 학회 중 질적 연구 학회에 해당되는 SQIP에서 한중일 워킹맘 대상 사회적 지원과 웰빙에 관한 연구 발표를 수행함.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아시아 3개국이 공동 프로</p>	<p>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지 오래임. 본 연구를 통해 현 한국사회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p>

			research 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experiences for postnatal working mothers in Korea. 2022 SQIP Annual Conference. Virtual Conference.	젝트를 진행하여, 기혼여성의 육아와 웰빙에 관한 각국의 서로 다른 사회적 현상과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진 발표임.	층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웰빙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됨.
51	김은지 (최은수)	포스터	김은지, 박연주, 차현진, 김수연, 최은수 (2022). What sources of meaning make life happier?: The moderation effect of age. 2022 SPSP Annual Convention, San Francisco, U.S.A.	본 연구는 20대-60대까지의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는 원천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국제 학술대회에서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한국인의 웰빙에 대한 논의를 펼쳐나갔음.	본 연구는 전 연령대의 심리적 웰빙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세대별 가치관과 문화가 상이한 한국사회에서 세대에 따른 심리적 차이를 살피는 데 기여한다.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 나이에 따라 심리적 웰빙에 도움이 되는 원천들을 조사해볼 수 있으며, 삶에서 지속적으로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52	이호정 (최은수)	포스터	이호정, 김수연, 최은수 (2022). Regrets Over 'Me' versus Regrets Over 'Us' : The Influence of Culture on Action versus Inaction Regrets. 2022 SPSP Annual Convention, San Francisco, U.S.A.	사회심리학계에서 가장 큰 학회인 Society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SPSP) 학회에서 발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후회 감정의 문화 차를 밝힘	문화마다 다른 후회 양상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감정 이해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향후 보건, 광고 등 다양한 장면에서 설득을 위해 적용될 수 있음

### 3.3. 대학원생 기타 연구 관련 실적

- 기타 실적으로, 대학원생들은 연구 결과를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우수한 연구성과와 발표 능력을 인정받아 총 4건의 상을 수여 받음.
-------------------------------------------------------------------------------

<표 2-34> 대학원생 학술대회 수상실적

연번	지도교수	학생성명	수상명 / 수여기관 및 행사	연구 제목
1	김채연		우수 논문 발표상 / 2022 한국 인지 및 생물 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2022. 2. 18)	3차원 물체의 형태와 색 간의 내재적 연합 연구
2	김학진, 조양석		우수 논문 발표상 / 2022 한국 인지 및 생물 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2022. 2. 18)	Head-Up Display의 시각적 복잡도가 운전 수행이 미치는 영향
3	최기홍		E-poster 최우수상 / 2022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행동 활성화 치료의 적용가능성:

			(2022. 3. 12.)	사례연구
4	최은수		2021 ‘장애의 재해석’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이사장상) / 한국장애인재단 (2021. 12. 20.)	일과 여가를 바탕으로 살펴본 발달장애인의 삶 : 그들을 가두는 투명상자의 본질

#### 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 본 교육연구단은 2022년 4월부터 연구단 소속 신진연구인력으로 조명현 박사와 김미림 박사를 임용하였으며,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음. 또한 초기 신진연구인력으로 활동했던 최승혁 박사와 김태연 박사의 경우, 교육연구단에서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로 임용되는 쾌거를 이루었음.

##### ▷ 최승혁 박사

- 현재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됨.

##### ▷ 김태연 박사

- 현재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전임교수로 임용됨.

##### ▷ 조명현 박사

- 현재 4편의 논문이 평가 해당 기간 동안 KCI 저널에 게재 확정되었으며, 그 중 2편은 9월(평가 기한 외)에 게재 예정으로 되어있음.

안도연, 조명현\* (9월 게재확정).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샤덴프로이데 경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조명현 (9월 게재확정). 정서적 인지적 공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재평가의 매개효과. 감성과학.

조명현 (2022). 노년기 적극적 활동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31(4), 491-505.

조은산, 정희준, 조명현\* (2022). 대학생의 학업 동기가 부정행위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31(2), 203-217.

( \* 교신저자 )

- 현재 2편의 논문이 심사 중에 있음.

조명현, 안도연 (심사중). 청소년의 샤덴프로이데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조명현, 김향숙 (심사중). 노년기의 참여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변산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 현재, 논문 1편 ‘노년기 정서인식명확성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Emotional Clarity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among senior citizens)’을 SSCI 저널에 게재하기 위해 연구 진행 중임.
- 현재, 논문 3편( ‘청소년의 자기인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노년기 정서인식명확성이 삶의 만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감정표현불능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격 5요인의 조절효과’)을 KCI 저널에 게재하기 위해 연구 진행 중임.

▷ 김미림 박사

- 현재 1편의 논문이 SCOPUS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됨.

Li, Y., Kim, M., & Palkar, Jay. (2022). Using Emerging Technologies to Promote Creativity in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Open*. 3 (2022): 100177. DOI: 10.1016/j.ijedro.2022.100177

- 현재 6편의 논문이 SSCI급 학술지에 심사 중에 있음.

Kim, M. & Yoon, M. (under review). Testing the Factorial Invariance of Zero-Inflated Measures Using a Two-Part Factor Model.  
 Kim, M., & Han, S. J. (under review).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Team Mindsets in Project Teams.  
 Kim, M., Han, S. J., & Kim, J. Y. (under review).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hort-form of Team Mindset Scale: Using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tems.  
 Kim, M. & Hsiao, Y-Y. (under review). Effect of Zero-inflation on Testing Factorial Invariance.  
 Han, S. J., Kim, M.\*, & Beyerlein, M. (under review). The Mediating Effect of Team Members' Perceived Tru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Team Performance.  
 Han, S. J., Park, J. & Kim, M.\* (under review). Effects of Two Types of Creative Mindsets on a Change in Perceptions of Team Creativity.

- 심리측정 및 방법론 전공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심리학교육연구단 내에서는 크게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예: 팀마인드셋 척도 개발 연구, 수형자들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링, 키워드 분석과 사회망 분석을 이용한 코로나 블루 현상 고찰 등)와 측정 타당화 및 편향에 대한 연구(예: 비정규 분포 자료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한 접근법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국외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도 응용 연구와 방법론 연구로 나뉘며, 응용 연구로는 Texas A&M University와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연구진들과의 ‘Cyber Cell VR’ 연구 프로젝트가 있음. 이 프로젝트는 의학 현장에서 낮 모양 적혈구(sickle cell) 환자들에게 VR을 이용하여 질병과 치료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질병에 대한 이해 수준과 치료법 참여율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측정학자와 방법론학자의 시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연구 설계와 분석을 담당함. 방법론 연구로는 Texas A&M University와 University of New Mexico 연구진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며, 현재는 영과잉 자료(zero-inflated)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자료가 외생변수로 작용할 때, 혹은 측정 모형을 설정할 때의 적절한 접근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 최근 교육 현장에서 창의성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첨단 공학 도입과 관련한 연구들을 체계적 리뷰(systematic review)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게재하였고(Li, Y., Kim, M., & Palkar, Jay. (2022). Using Emerging Technologies to Promote Creativity in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Open*. 3 (2022): 100177. DOI: 10.1016/j.ijedro.2022.100177), 현재 주저자 논문 6편이 SSCI 국제전문학술지에 심사 중임.

##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저서]

#### ▷ 외국어 공부가 쉬워진다: 인지심리학자의 조언 (남기춘 교수)

- 남기춘 교수는 2021년 11월 10일, 인지심리학 및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외국어의 학습 방식에 대해 다루는 ‘외국어 공부가 쉬워진다: 인지심리학자의 조언(출판사: 박영스토리)’을 출간하였음. 해당 도서는 일반적인 지식의 학습과 구별되는 외국어 학습의 특성에 대해 다룬 다음, 인간의 기억 구조와 원리 및 인지신경과학적 관점에 기반한 후기 제2언어(외국어)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 본 저서는 외국어 학습과 인지심리학을 접목시켜, 외국어 학습의 문제를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입장에서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였음. 또한 외국어 공부에 관심있는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인 학습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특히 외국어 학습과 교육과 관련하여 교양서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유익한 읽기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분량과 난이도를 조절하여 집필하였음. 구체적으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외국어 학습의 특성과 외국어 학습이 다른 종류의 학습에 비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억의 인지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외국어 학습을 설명함. 마지막 부분에서는 외국어 학습관련 연구를 소개하면서 추후 외국어 학습과 교육 장면에서의 계획에 필요한 요인들에 대해 제안하였음. 본 저서는 외국어 학습을 단순히 언어적 시각에서뿐 아니라 심리학의 인지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제 간 연구로서도 우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 나를 위한 감정의 심리학 (최기홍 교수)

- 최기홍 교수는 2022년 2월 ‘나를 위한 감정의 심리학(출판사: 국수)’을 출간함. 본 저서는 감정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책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의 경험과 감정의 기능과 작용 등의 내용을 다양한 임상심리학 실험과 그 결과로 탄생한 심리학 이론들, 그리고 심리치료 상담 사례들을 예로 들어 소개함. 본 저서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 불안, 두려움, 분노, 질투, 시기와 같은 감정들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며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독자로서 하여금 다양한 감정들이 주는 각각의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의 본질과 감정과 이성의 역할,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 감정 조절 방법, 감정의 기능 등을 설명함. 본 저서를 통해 감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학술적 차원에서 벗어나 전공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매순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볼 수 있음.

### [교과 운영]

#### ▷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PSY1108) 교과 운영 (김학진 교수)

- 2022년 1학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대학원에 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수업을 새롭게 기획하여 개설함. 심리학부 소속 9명의 전임교원과 1명의 비전임 연구교원이 참여하여 팀티칭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의하고 학기말에 수강생들의 그룹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였음. 본 강의를 통해 다양한 세부 전공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심리학부 대학원생뿐 아니라 미디어 학부, 디자인 조형학부, 교육학과 소속 대학원생 50명이 참여하였음. 본 강의를 통해 서로 다른 전공 분야 대학원생들 간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여 융합적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팀티칭 형식의 세미나 수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심리적 웰빙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세부 심리학 분야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관점과 해석을 접하고, 이

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 학기 동안 지속 가능한 심리적 웰빙이라는 주제에 공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음.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수강생과 강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음.

#### [온라인 교과 개설]

##### ▷ K-MOOC <현대인을 위한 감정의 심리학> 강좌 운영 (최기홍 교수)

- 2021년 하반기(2021.09.01 ~ 2021.12.29)와 2022년 상반기(2022.03.07~2022.06.27)에 K-MOOC에서 <현대인을 위한 감정의 심리학> 강좌를 개설하였음. 본 강좌는 온라인에 개설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화, 음악, 사회현상 등 평소에 접하기 쉬운 사례에 심리학 이론을 접목시켜 인간이 경험하는 기본 감정과 사회적 감정들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음.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한국 문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본질과 그 의미를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음.

#### [다양성 교육]

##### ▷ 2022 통영국제음악제 다양성 토크 콘서트 “A Diverse Harmony” 개최 (김채연 교수)

- 김채연 교수는 2022년 4월 1일 (금), 'Vision in Diversity'를 주제로 한 통영국제음악제 중 'A Diverse Harmony'라는 제목의 학술행사를 기획, 개최하고 진행과 대담을 담당하였음. 본 행사는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와 함께 다양성 교육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해 가기 위해 협업한 행사로, 특히 문화 예술 영역에서의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 1부에서는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다양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김채연 교수의 진행으로 진은숙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과 조은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다양성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음. 본 행사는 우리 사회의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에 있어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주제로 하여, 학교를 넘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한 우수 교육 실적임.

##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 6.1. 국제 공동 연구 현황

#### 6.1.1.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대학원생 연구 참여 기회 확대

- 본 연구단에서는 지난 1년간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대하였음.
- 구체적으로,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Florida Atlantic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Salk Institute, University of Washington, Wesleyan University,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프랑스 Paris Descartes University, 오스트리아 University of Vienna,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The University of Zurich), 일본 리즈메이칸대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에게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1년간 13개의 국제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학원생들이 참여함(참조: 표 2-14. 국제 기관과의 공동연구).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최신의 연구 트렌드를 접하고 학습할 기회와 함께 정교한 연구 진행을 위한 수준 높은 실험 및 분석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음.

#### 6.1.2. 대학원생 국제 교류 활성을 위한 장, 단기 해외 연수 현황

- 국제 학계에서 학술활동에 요구되는 언어적 역량을 강화는 물론 국제적 수준에서의 학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장단기 해외 연수 기회를 안내하고 실질적 경비를 지원함.
- 지난 1년간 총 14명의 학생들에게 단기연수(예, 국제학회 참여)를 지원하여 국제학회에서 학술 연구 발표에 대한 동기를 증진하였고, 국제학회 참여시 다양한 교수 워크숍과 해외 대학원생들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 등을 접하면서 해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참조: 표 2-16. 해외 단기연수 지원). 이러한 물재적 지원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과 범위를 국제적 수준에 발맞추어 진행하도록 유도함.
- 또한, 지난 1년간 1명의 대학원생에게 해외 장기연수(체류 기간 15일 이상)를 지원하였고, 1명의 대학원생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아 해외 장기연수를 받음(참조: 표 2-17. 해외 장기연수 BK지원 및 정부지원). 해당 학생들은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지정 지도교수와 함께 세부적인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방법과 절차, 분석 과정 등을 익히며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함.

### 6.1.3. 국제 석학과의 네트워크 확대

-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에게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1년간 13개의 국제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16명의 대학원생들(중복참여 포함)이 참여함(표 2-14 참조). 이를 통해 해외 기관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과 교류를 증진하고 연구 장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원을 접하고 얻을 기회를 가짐.
- 또한 지난 1년간 진행된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의 강연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총 7회에 걸쳐 국제 석학을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이 국제 석학과 교류하고 연구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참조: 표 2-18. 국제 석학 초빙 강연 목록).
- 아울러, 해외석학 전임교원 및 객원교수를 적극 유치하여, 김소현 교수(Weill Cornell Medical College)를 전임교원으로, 김은주 교수(University of Washington)를 객원교수로 초빙하여 국제적 연구 및 교육 성과를 기대함(참조: 표 2-15. 전임교원 및 객원교수 유치 현황).

### 6.1.4. 국제화 교육 인프라 증진 및 국제적 기준의 윤리교육 현황

- 국제적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물리적 노력으로, 기존에 부족했던 교육 및 연구공간을 확보 및 재단장하여 교수의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교수 및 대학원생의 학술 연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 구체적으로, 법학관 구관 2층 강의실(207호)을 확보하여 신입교수 연구실 1실과 대학원 연구 및 실험실 2실로 분리하였으며, 법학관 구관 지하 일부 공간(B103호, B104호)을 확보한 후 수리하여 대학원생들이 다목적 연구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복도 공간 포함 총 면적 194.40m<sup>2</sup>), 추후 해당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됨(총 면적 98.40m<sup>2</sup>). 본 물리적 공간 확보를 통해 그간 공간 협소에 따라 물리적 제약을 받았던 대학원생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미나, 콜로키움, 팀활동, 소규모의 대학원 수업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과 활동을 위한 물리적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장면에서 전제해야하는 국제적 수준의 안전지침과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적합한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이에 대학원생들은 교내 주관 ‘법정 안전교육’, ‘연구윤리 및 생명 윤리 교육’ 등은 물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관 ‘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질병관리청 주관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주관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참조: 표 2-19. 해당 기간 내 대학원생 윤리교육 현황).

## □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 논문: Park, H., In, S., & Hur, J. W. (2022). Association of socioeconomic status with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Korean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8(5), 1127-1134 (허지원 교수)

- 해당 연구는 청년 인구의 자해 행동에 사회경제적 상태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살 생각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냄. 자살 의도가 없이 자해를 반복하는 국내 청년 414명과 대조군 200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섯 단계(상, 중상, 중, 중하, 하)로 분류하여 청소년 자해의 위험성을 분석함.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수준에 속하는 청년들에 비해, '중하'와 '하' 수준에 속하는 청년들은 자해의 위험성이 각각 3.8배, 5.5배 높았음.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 생각을 유도하는 여러 위험 요인(여성 성별, 자해의 심각도 등)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에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에 개입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를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연구 결과는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IF = 10.472)에 게재되었음.

□ 저서: **청소년 발달과 정신의학 (군자출판사, 2021년) (고영건 교수)**

- 청소년들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아동과 성인에게 적용하는 임상 기법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평가를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현재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심리평가 도구가 개발되었지만, 실제 청소년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면, 심리평가 도구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평가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우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임상적인 접근이 필요함. 고영건 교수가 집필한 북 챗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함. 청소년의 심리평가를 위해서는 청소년 수검자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이해를 통해 심리적 문제를 명료화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음. 최종적으로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까지도 포함하여 심리평가의 과정을 소개함.

해당 저서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관하여 발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학술서임. 대부분의 집필진은 정신의학 전공 교수들이지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편찬위원회는 고영건 교수를 임상심리학 분야의 대표로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북챗터 집필에 단독으로 참여함.

□ **사회문제 해결: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최기홍 교수)**

- 최기홍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시대에 특히 취약한 사회적 약자(정신질환자, 코로나 블루, 노인, 발달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을 권장하기 위한 연구에 참여했음. 구체적으로, 산림청 국립수목원 및 전국 조정 및 환경 관련 학과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이 정신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음. 연구 결과,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은 우울, 불안, 삶의 질, 마음챙김, 활력 등 정신건강 및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결과는 SCI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게재되었음 (IF = 4.614).

학술적인 의미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적 연구라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음.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은 접근과 참여가 쉽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 후속 연구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도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 중이며, 가드닝 프로그램의 매뉴얼화 및 배포를 위하여 가드닝 프로그램의 구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 정부 연구비 수주: ‘중추 도파민 시스템의 다중 주기성 : 뇌과학적 기전 규명 및 뇌기능 조절 활용기술 연구’ 프로젝트 (연구 기간: 2022.04.01.~2022.12.31.) (조용상 교수)

- 본 연구과제는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로 기초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심리적 불균형과 관련된 속성의 기제를 밝히고 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중추 도파민 분비와 관련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로 중추 도파민 시스템의 다중 주기성 조절 기전 규명 및 그 활용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여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3억원의 연구비 지원이 계획됨. 연구팀은 도파민 신경망의 일주기 및 아일주기적 조절 기전을 규명하고 그 기능적 유의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생체시계 제어를 통한 수면 및 중독 장애 개선 기술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신규분자 생체시계 제어 선도물질 1종 이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외 기관 연구비 수주: ‘The geography of philosophy: an interdisciplinary cross-cultural exploration of university and diversity in fundamental philosophical concepts’ 프로젝트 (연구 기간: 2018.06.01.~2022.02.28.) (김학진 교수)

- University of Pittsburgh는 김학진 연구팀이 2017년 7월에 기획한 연구 계획에 대하여 4년간 \$261,338 (71,653,310원)의 연구비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유럽, 에콰도르, 인도, 일본, 모로코, 페루, 남아프리카, 한국, 캐나다, 영국 등 총 9개의 국가 연구팀과 함께하는 다국적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임. 구체적으로는, 이해(Understanding), 지혜(Wisdom), 지식(Knowledge)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개념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인지과학에서 문화 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10개의 학술논문 게재를 진행 하고 있음.

□ 국내 학술 활동: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 발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ESG경영 특별세미나, 한국광고학회: 2021.10.01.) (성용준 교수)

-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가능 소비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관심과 대비하여 그에 대한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임.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을 밝히고 각 요인이 소비 단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봄. 구체적으로, 개인의 내재적, 외재적 제약 요인을 살핌으로써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탐색함. 연구 결과, 지속 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은 무력감, 어려움, 무관심, 의심, 기반의 부족, 경제성의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음. 또한 추출된 제약 요인은 소비의 구매-사용-폐기 행동 단계와 각각 다른 관계를 보임.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구매-사용-폐기 행동 단계 외에도 지속 가능한 소비를 저해하는 제약들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 의의가 있음.

□ 국제 학술 활동: 'Hierarchical MPFC Function for Social Valuation' 발표 (Shenzhen University 초청 강연: 2021.11.25.) (김학진 교수)

- 중국 Shenzhen에 위치한 Shenzhen University에서 김학진 교수에게 사회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측 전두엽 (medial prefrontal cortex)의 처리 과정에 대한 강연을 주제로 초청하였으며, 팬데믹을 반영하여 VooV Meeting을 이용하여 온라인 강연을 시행함.

강연에서는 사회적 의사결정 시 가치계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내측 전두엽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내측 전두엽 하위 부위들 간의 기능적 분화에 관한 최신 뇌과학적 증거들을 소개하였음.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신경과학적 모형을 제시함.

## 1. 참여교수 연구역량

### 1.1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69건; 4,844,410	25건; 3,699,273	-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9건; 148,124	0건	-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3건; 645,594	1건; 143,307	-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15명; 375,875	14명; 274,470	-
참여교수 수	15명	14명	-

### 1.2 연구업적물

#### ①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 현재 본 교육연구단은 14명의 전임교원이 임상 및 상담심리학, 행동인지 신경과학, 문화사회성격심리학,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등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심리과학 연구에 임하고 있으며, 국제화 교육 인프라 증진을 위해 임상 및 상담심리학 분야의 국제학자(김소현 교수)를 새로이 교원으로 임용하였음.
- 본 교육연구단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연구과제 육성, 연구지원 시스템의 선진화, 연구참신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교류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계획하여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교원 연구의 질적 향상과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역량을 향상하였음.
- 심리교육연구단은 질적·양적인 연구역량의 지속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학문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 성과들이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1.2.1. 최근 1년간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개별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교수와 대학원생들을 선발 및 교육하여 연구의 질적·양적 향상을 꾀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년간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14인은 국제 저명 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48편(IF평균 = 4.40), 기타 국제 학술지에 1편(IF = 1.44), 국내 등재지에 13편(IF평균 = 1.46), 그리고 국내 등재 후보지에 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그밖에 저서 및 북챗터 편찬 수가 4건 있고, 특히 출원 및 등록된 심리연구 기반의 기술로는 19건이 있음.

〈표 3-2〉 최근 1년간 참여교수 대표 연구 업적물 실적

연번	참여 교수명	세부 전공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고영건	임상 및 상담심리	북챗터	고영건 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21) 청소년 발달과 정신의학 군자출판사, ISBN: 9788930318853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관하여 발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 학술서임. 저자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편찬위원회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대표필진으로 추천하여 북챗터의 단독 저자로 참여함.
2	고영건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 학술지	Kim, J., Moon, K., Lee, J., Jeong, Y., Lee, S., & Ko, Y. G. (2022). Online learning performance and engage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pplication of the dual-continua model of mental health. <i>Frontiers in Psychology</i> , 4228, <a href="https://doi.org/10.3389/fpsyg.2022.932777">https://doi.org/10.3389/fpsyg.2022.932777</a>	본 연구는 정신건강 2요인 모델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적응과 정신 건강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정신적 웰빙과 정신장애가 각각 독립적으로 온라인 학습 참여도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참여도와 학습패턴을 측정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주관적인 보고 이외에도 LMS 로그 데이터와 학점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심리적 및 학업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의 경감 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 증진에도 별도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입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교육심리 및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LMS 로그 데이터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IF = 4.232,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76.53 in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3	김채연	행동인지 신경과학	국제 학술지	Song, J., Shin, H., Park, M., Nam, S., & Kim, C. Y. (2022). Complex Shapes Are Bluish, Darker, and More Saturated; Shape-Color Correspondence in 3D Object Perception. <i>Frontiers in Psych</i>	본 연구는 3D 형태의 복잡도와 색의 교차감각 연관성에 대해 알아본 연구로 복잡도를 패러메트릭하게 조작하였고 색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음. 연구 결과, 복잡한 형태와 푸른 계열의 색상과 연관성이 높고, 또한 복잡한 형태는 높은 채도 및 어두운 밝기와 잘 어울린다고 평가되었음. 복잡도와 색을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

				<p>ology, 854574, <a href="https://doi.org/10.3389/fpsyg.2022.854574">https://doi.org/10.3389/fpsyg.2022.854574</a></p>	<p>써 선행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정교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선행연구 결과들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또한, 시각과 햅틱 두가지 감각 양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3D 형태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형태의 다 감각 속성에 집중하여 형태와 색의 교차감각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했음. 마지막으로, 기초학문적 지식에서 나아가 브랜딩이나 마케팅에도 적용 가능한 응용 가능성이 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p> <p>(IF = 4.232,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76.53 in Psychology, Multidisciplinary)</p>
4	김학진	행동인지 신경과학	국제 학술지	<p>Lim, G., &amp; Kim, H. (2022). Distinctive roles of MPFC subregions in forming impressions and guiding social interaction based on others' social behaviour. <i>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i>, nsac037 <a href="https://doi.org/10.1093/scan/nsac037">https://doi.org/10.1093/scan/nsac037</a></p>	<p>본 연구는 불공정성에 대한 타인의 반응 행동 (불공정성의 수용 혹은 거절) 및 행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관찰했을 때, 관찰자의 사회적 지각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해 행동 및 신경학적 처리 과정을 알아본 연구임. 사람들은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사람이더라도 불공정성을 수용하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지각하였고 거절하는 사람은 유능하게 지각하는 경향성을 보임. 또 불공정성에 대한 반응이 느릴수록 따뜻하게 지각하였음. 반응 시간의 효과는 불공정성을 거절하는 사람에서만 차이가 더 유의하였음. 이때 가치 계산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전두엽 피질이 하위 영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리 과정에 기여하는 것을 밝힘. 타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각의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배측 영역이 관여하였고, 반응 유형에 따른 지각된 따뜻함의 주효과 차이는 복측 영역과 상관을 보임. 전략적으로 관찰 대상에 대해 추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고려할 때에는 입측 영역이 관여하였음. 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대한 해석에 사람들이 행동 결과 만이 아니라 행동 시간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고려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전전두엽 피질의 복측-배측 경사의 하위 영역이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 확인하였음.</p> <p>(IF = 4.235,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71.64 in Neuroscience).</p>
5	김학진	행동인지 신경과학	국제 학술지	<p>Kim, K. I., Jung, W. H., Woo, C.-W., &amp; Kim, H. (2022). Neural signatures of individual variability in context-dependent perception of a ambiguous facial expression. <i>NeuroImage</i>, 258, 119355, <a href="https://doi.org/10.1016/j.neuroimage.2022.119355">https://doi.org/10.1016/j.neuroimage.2022.119355</a></p>	<p>본 연구는 개인이 상대방의 감정 추론함에 있어 맥락정보 고려 정도의 개인차의 신경 기전을 본 연구임. 여섯가지 기본 감정의 기반으로 연구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을 혁파하는, 감정 인식에 대한 predictive coding 이론에 대한 첫째 증거 중 하나로써 맥락정보를 활용한 개인의 얼굴 표정을 추론함에있어 맥락정보를 많이 고려하는 사람일수록 맥락정보와 관련된 내부상태 표상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많</p>

					이 표상하여 상대의 감정을 추론한다는 연구임 (IF = 7.4,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89.29 in Neuroimaging).
6	김학진	행동인지 신경과학	국제 학술지	Chae, J., Kim, K., Kim, Y., Lim, G., Kim, D., & Kim, H. (2022). Ingroup favoritism overrides fairness when resources are limited,. Scientific reports, 12(1), 1-11.	본 연구는 집단 간 자원 분배과정에서 자원의 양이라는 상황적인 맥락이 개인의 분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임. 주된 동기인 내집단 편향과 공정성 욕구 모두가 의사결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자원의 양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내집단 편향이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해당 결과는 건설적인 사회자원분배를 위한 기초적인 인간 욕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따라서 건설적 분배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본 연구 결과는 Scientific Report에 게재 됨. (IF = 4.996,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74.66 in Multidisciplinary Sciences )
7	남기춘	행동인지 신경과학	저서	남기춘 (2022). 외국어 공부가 쉬워진다: 인지심리학자의 조언. 박영스토리. ISBN: 9791165191993	본 저서는 인지심리학 및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외국어의 학습 방식을 다룬 도서임. 해당 도서는 우선 일반적인 지식의 학습과 구별되는 외국어 학습의 특성에 대해 다룬 다음, 인간의 기억 구조와 원리 및 인지신경과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 논 의함. 생애 초기 자연스럽게 습득이 이루어져 자유롭게 구사가 가능한 모국어와 달리, 외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 과정이 필요함. 외국어 학습은 해당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과 언어심리 정보처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외현기억 및 암묵기억을 통해 학습됨. 외국어 학습 초기에는 의식적 수준의 기억인 외현기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외국어의 언어 지식 및 언어심리 정보처리 기술이 외현기억에서 암묵기억으로 전이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외국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이미 모국어를 습득하고 난 다음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대부분의 후기 제2언어(외국어) 학습자들은 외국어 학습 과정에 투자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실질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 따라서 본 서적은 이러한 후기 제2언어 학습자들을 위해, 그간의 언어심리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원리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됨.
8	남기춘	행동인지 신경과학	국제 학술지	Kim, S., Koo, M., & Nam, K. (2022). Game experience leads to improvement in co gnitive functioning of the e arly middle-aged adults in contrast with the young-ag	본 연구는 게임 경험이 다른 연령 집단(젊은층과 초기 중년층)의 인지기능 향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탐구한 연구임. 인지기능은 공간작업 기억과제(spatialmemory span task), 주의력과제(attentional network task), 문제해결과제(tower of london task), 그리고 충동조절과제(balloon

				ed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29, 107153, <a href="http://doi.org/10.1016/j.chb.2021.107153">http://doi.org/10.1016/j.chb.2021.107153</a>	analogue risk task)를 통해 측정하였음. 실험 결과, 게임 경험이 있는 초기 중년층(30대 후반~40대 초반)은 게임 경험이 있는 젊은층(20대 초중반)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에서 향상을 보임. 이는 게임 경험으로 인한 인지 능력의 향상은 연령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본 연구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BK 연구사업의 목표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와 부합하였음을 의미함 (IF = 8.957,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97.22 in Psychology, Experimental).
9	남기춘	행동인지 신경과학	국제 학술지	Kim, J., Kang, J., Kim, J., & Nam, K. (2022). Temporal dynamics of form and meaning in morphologically complex word processing: An ERP study on Korean inflected verbs. Journal of Neurolinguistics, 64, 101098, <a href="http://doi.org/10.1016/j.jneuroling.2022.101098">http://doi.org/10.1016/j.jneuroling.2022.101098</a>	본 연구는 한국어 동사 어절 재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위 어휘 요인 및 어휘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반응시간 및 오류율 등 행동 반응과 더불어 뇌파를 이용하여 사건 관련 전위의 변화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행동 반응에서 형태소와 어휘 요인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중, 저빈도 어절에서만 어간 길이가 짧은 경우 반응시간이 빠르게 나타났음. 뇌파 분석 결과, 어절 빈도는 재인 과정의 초기인 N100 성분부터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형태소 효과는 이후 N250 성분부터 P600까지 유의하게 나타났음. 행동 반응에서의 두 요인 간 상호작용은 N400 성분에 반영되었으며, 이 역시 중, 저빈도 어절에서만 유의한 형태소 효과가 발견되었음. 본 연구는 인도유럽어와 달리 교착어적 성질을 지닌 한국어 어절 재인 시,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독일어, 영어와 달리 하위 어휘 요인인 형태소와 어휘 정보의 동시 활성화가 이루어짐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IF = 2.373,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79.64 in Linguistics).
10	박선웅	문화사회 성격심리	국내 학술지	박수연, 박유빈, 박선웅 (2021). 불안정 애착가 외도: 관계욕구 충족의 간접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5(4), 1-25. <a href="http://doi.org/10.21193/kjspp.2021.35.4.001">http://doi.org/10.21193/kjspp.2021.35.4.001</a>	본 연구는 부부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실제 외도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두 변인 사이에서 관계욕구 충족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연구 결과, 실제 부부들 사이에서 불안 애착이 높은 성인은 관계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외도를 하며 회피애착이 높은 성인은 전반적으로는 외도를 하지 않으나 관계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외도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본 연구는 애착에 따른 외도 동기를 검증함에 따라, 사회 차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외도로 인한 부정적 상황들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해당 논문은 KCI 우수등재 논문으로 지정되었음(IF = 1.44).
11	박선웅	문화사회	국내	문현, 이다예, 김소을,	본 연구는 McAdams가 제안한 성격 3수준 이론

		성격심리	학술지	박선웅 (2022) 심리적 웰빙에 대한 서사정체성의 증분타당도: McAdams의 성격 3수준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1), 1-24. <a href="http://doi.org/10.21193/kjspp.2022.36.1.001">http://doi.org/10.21193/kjspp.2022.36.1.001</a>	을 바탕으로 서사 정체성이 심리적 웰빙에 대해 가지는 추가적인 설명력, 즉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서사 정체성이 성격 1, 2수준 변인 통제 후에도 심리적 웰빙과 관련이 있었으며 심리적 웰빙에 대해 증분 타당도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해당 논문은 KCI 우수등재 논문으로 지정되었음(IF = 1.44).
12	박선웅	문화사회 성격심리	국제 학술지	Park, S.W., Moon, H. (2022). Assessing identity formation via narratives. <i>Current Psychology</i> , 41, 4066-4078, <a href="https://doi.org/10.1007/s12144-020-00926-7">https://doi.org/10.1007/s12144-020-00926-7</a>	본 연구는 정체성 형성을 위한 내러티브 코딩 시스템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했으며, 코딩된 내러티브와 다른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음. 연구 결과, 코딩 시스템을 사용하여 내러티브에서 코딩된 정체성 형성은 심리적 웰빙과 정적 관련이 있고 우울증과 부적으로 관련되었음이 나타났으며, 정체성 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명확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 (IF = 2.387, JIF quartile = Q3, JIF percentile = 50 in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13	박선웅	문화사회 성격심리	국제 학술지	Park, S. W., Kim, S., Moon, H., & Cha, H. (2021). Incremental validity of narrative identity in predi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in Korean adults. <i>Narrative Inquiry</i> , <a href="https://doi.org/10.1075/ni.21047.par">https://doi.org/10.1075/ni.21047.par</a>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심리적 웰빙을 예측하는 데 서사 정체성의 증분 타당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복제하고 확장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내러티브에서 코딩된 독자성과 심리적 웰빙은 다른 변수를 통제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정적 관계가 나타났음.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심리적 웰빙에서 서사 정체성이 증분 타당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였음. (IF = 1.289, JIF quartile = Q4, JIF percentile = 11.17 in Communication)
14	성용준	소비자 및 광고심리	국내 학술지	김정원, 박소연, 성용준 (2022).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 추출과 구매, 사용, 폐기 행동 간의 관계. <i>소비문화연구</i> , 25(1), <a href="http://dx.doi.org/10.17053/jcc.2022.25.1.005">http://dx.doi.org/10.17053/jcc.2022.25.1.005</a>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관련하여 개인의 내재적, 외재적 제약 요인을 살핌으로써 소비자가 긍정적인 인식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가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저해되는 제약 요인을 밝히고, 각 요인이 소비 단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봄. 본 연구는 포괄적인 개념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구매, 사용, 폐기의 단계로 나누어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들을 제시하며, 실무적으로는 기업과 정부가 지속 가능한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과 마케팅 전략을 제안함(IF = 1.32).
15	성용준	소비자 및 광고심리	국내 학술지	Lee, E., Lee, J., & Sung, Y. (2021). Alexa, Please Do Me a Favor: Motivations and Perceived Values Involved in Using AI Assistant. <i>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i>	본 연구는 사람들이 AI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이유와 지각된 가치가 AI 어시스턴트의 지속적인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사람들은 자기 표현, 삶의 질, 오락, 정보, 화합의 5가지 사회적 심리적 동기를 가지고 AI어시스턴트를 사용하며, 지각된 가치, 정보성, 오락성, 신뢰도는 인공지능 비서의 이용 의도를 긍정적으

				Culture Technology, 9(4), 329-344, <a href="https://doi.org/10.17703/IJACT.2021.9.4.329">https://doi.org/10.17703/IJACT.2021.9.4.329</a>	로 예측함. 본 연구는 AI 어시스턴트의 사용 동기를 밝히고, 지각된 가치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IF = 0.47).
16	성용준	소비자 및 광고심리	국제 학술지	Ahn, J., Kim, J., & Sung, Y. (2021). AI-powered recommendations: the roles of perceived similarity and psychological distance on persuasion. <i>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i> , 40(8), 1366-1384, <a href="https://doi.org/10.1080/02650487.2021.1982529">https://doi.org/10.1080/02650487.2021.1982529</a>	본 연구는 추천 에이전트로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의 설득력을 인식된 유사성과 심리적 거리를 통해 알아봄.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됨에 따라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설득력 향상이 필요함에 따라, 심리적 거리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설득력에 대한 인지된 유사성과 메시지 타입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사람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에서 심리적 거리의 중요한 역할을 도출한 데에 의의를 가짐. 연구 결과는 SSCI급 저널인 <i>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i> 에 게재되었음. (IF = 5.888,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60.71 in Business).
17	성용준	소비자 및 광고심리	국제 학술지	Kim, J., & Sung, Y.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Is Safer for My Privacy: Interplay Between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gents on Perceived Privacy Risk and Concerns. <i>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i> , 25(2), 118-123, <a href="https://doi.org/10.1089/cyber.2021.0076">https://doi.org/10.1089/cyber.2021.0076</a>	본 연구는 개인이 수집된 개인 정보의 종류와 이를 수집하는 에이전트에 따라 프라이버시 위협과 걱정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인간 에이전트와 인공지능 에이전트 각각에게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프라이버시 위협을 심층적으로 알아봄.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정보를 수집하는 에이전트가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걱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의 탐색이 중요함을 밝혔으며,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본 연구 결과는 SSCI급 저널인 <i>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i> 에 게재되었음. (IF = 6.135,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90 in Psychology, Social).
18	성용준	소비자 및 광고심리	국제 학술지	Ahn, J., Kim, J., & Sung, Y. (2022). The effect of gender stereotyp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recommendations. <i>Journal of Business Research</i> , 141, 50-59, <a href="https://doi.org/10.1016/j.jbusres.2021.12.007">https://doi.org/10.1016/j.jbusres.2021.12.007</a>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성별에 따라 사람들이 지각하는 인공지능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 인공지능 평가에도 성(gender) 고정관념이 적용될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음. 나아가 인공지능 쇼핑 에이전트의 성별과 추천하는 제품의 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를 밝힘으로써 남성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실용적 제품을 추천할 때, 소비자들이 추천 결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함. 본 연구 결과는 SSCI급 저널인 <i>Journal of Business Research</i> 에 게재되었음. (IF = 10.969,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89.29 in Business).
19	양은주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 학술지	Lee, Y., Kim, Y., Im, S., Lee, E., & Yang, E. (2022). Longitudinal associations	본 연구는 다차원적 진로 정체성 과정과 외적/내적 진로 목표간 상호호혜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음. 연구 결과 진로 정체성

				<p>between vocational identity process and career goal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9(3), 569-584, <a href="https://doi.org/10.1177/0894845320955237">https://doi.org/10.1177/0894845320955237</a></p>	<p>의 몰입 차원은 내적 진로 목표와 서로 영향을 주며, 내적 진로 목표는 이후 더 깊이 있는 탐색을 촉진하고 진로에 대한 의심을 낮춤으로써 진로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발달의 과정(진로 정체성)과 내용(진로 목표)가 서로 관련될 것이라고 상정한 이론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며, 진로 상담 실무에 있어서 내담자의 내적 가치가 반영된 진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음. (IF = 2.424, JIF quartile = Q3, JIF percentile = 34.34 in Psychology, Applied)</p>
20	조양석	행동인지 신경과학	국내 학술지	<p>정지훈, 조양석, 최준식 (2021). 자극의 불확실성이 연합학습에 미치는 영향: 수리모델간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33(4), 265-279, <a href="http://dx.doi.org/10.22172/cogbio.2021.33.4.004">http://dx.doi.org/10.22172/cogbio.2021.33.4.004</a></p>	<p>본 연구는 주요 학습 모델 6가지 모델들 (Rescorla-Wagner, Mackintosh, Pearce-Hall, Schmajuk-Pearce-Hall, Esber-Haselgrove, Temporal-Difference)을 수식화하여 정량화하고, 질적 비교 분석이 가능한 스크립트로 변환하였음. 더 나아가 다양한 학습 계획과 파라미터 분석을 위한 GUI 기반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음. 연구1에서 이러한 스크립트와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양한 학습 현상에 대한 6가지 모델들의 설명력을 검증하였고, 한계점을 수리적으로 분석하였음. 연구2에서는 모델들의 부분 강화 계획 패러다임 예측을 비교 분석함. 이를 위해 무조건 자극을 지속 강화 조건과 부분 강화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의 연합 결과를 비교함. 또한, 동물과 인간 연구실험에서 공통으로 추출된 학습 계획을 사용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학습 상황에서 실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한계점을 논의함(IF = 0.35).</p>
21	최기홍	임상 및 상담심리	저서	<p>최기홍 (2022). 나를 위한 감정의 심리학. 국수. ISBN: 9791190499422, <a href="https://doi.org/10.979.1190499/422">https://doi.org/10.979.1190499/422</a></p>	<p>본 저서는 고려대학교의 인기 교양 강좌인 &lt;현대인을 위한 감정의 심리학&gt;의 내용을 책으로 정리하여 출간한 것임.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등 고통스럽고 불편한 감정들의 존재의 이유, 본질, 역할, 기능 등에 대해 심리학 이론과 실험들, 심리치료 및 상담 사례들을 예로 들어 서술하고 있음. 고통스런 감정들이 생겨난 이유와 본래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일반인들이 이러한 감정에 대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 또한 불편한 감정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감정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익혀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와 삶의 목표를 알아차리고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p>
22	최기홍	임상 및 상담심리	국내 학술지	<p>노은빈, 김현진, 최기홍 (2022). 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 기준, 핵심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제화</p>	<p>본 논문에서는 심리사(psychologist)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자격 기준을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대표 국가들(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을 참고하여 제안함. 또한 이러한 자격 기준을 통</p>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3), 243-255.	해 얻고자 하는 심리사들의 핵심 역량(심리적 지식, 기술, 윤리성, 다양성 존중 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핵심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담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또한 알아보았음. 이는 현재 코로나19로 우울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심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상황에서 질 높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음(IF = 2.47).
23	최기홍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 학술지	Yang, Y., Ro, E., Lee, T. J., An, B. C., Hong, K. P., Yun, H. J., ... & Choi, K. H. (2022). The Multi-Sites Trial on the Effects of Therapeutic Gardening o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i>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i> , 19(13), 8046, <a href="https://doi.org/10.3390/ijerph19138046">https://doi.org/10.3390/ijerph19138046</a>	본 연구는 맹검 평가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근거-기반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코로나 기간 동안 가드닝 프로그램의 치유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함. 10개 기관 111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울, 불안, 활력, 삶의 질, 마음챙김 5가지 변인의 변화를 분석함. 우울, 불안, 활력은 2주에 1번씩 총 8회 검사를 실시하였고, 삶의 질과 마음챙김은 사전/사후 2회 검사를 실시하였음.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드닝 프로그램 전/후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 불안, 활력, 삶의 질, 마음챙김 5개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됨. 우울, 불안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활력, 삶의 질, 마음챙김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 (효과크기(Cohen's d: 차례대로 0.84, 0.72, 0.61, 0.64, 0.40). 특히 가드닝의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성인보다는 노인에게, 정신질환자보다는 비정신질환자에게 높게 나타남.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한 적용이 가능하고 유망한 자연 기반 개입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IF = 4.614,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64.34 in Environmental Sciences).
24	최기홍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 학술지	Yoon, S., Yang, Y., Ro, E., Ahn, W. Y., Kim, J., Shin, S. H., Chey, J. & Choi, K. H. (2021). Reliability, an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gaming disorder scales: a meta-analysis. <i>Frontiers in psychology</i> , 764209, <a href="http://doi.org/10.3389/fpsyg.2021.764209">http://doi.org/10.3389/fpsyg.2021.764209</a>	본 논문에서는 게임이용장애 평가도구가 게임 행위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다른 심리적 변인과는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 결과 게임이용장애는 게임이용행위 외에도 정신병리, 심리사회적 변인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게임이용장애가 정신병리를 야기하는 것인지, 다른 정신병리나 심리적 어려움이 게임 행위로 이어지는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 필요함. 게임이용장애에 널리 사용되는 척도들의 신뢰도, 변별 및 수렴타당도에 대해 메타분석으로 검증하여 게임이용장애 진단에 대한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음. (IF = 4.232,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76.53 in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25	최기홍	임상 및	국제	Jang, J., Yoon, S., Son, G.,	본 연구는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성

		상담심리	학술지	Kang, M., Choeh, J. Y., & Choi, K. H. (2022). Predicting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 Study Protocol. <i>Frontiers in Psychology</i> , 865541, <a href="http://doi.org/10.3389/fpsyg.2022.865541">http://doi.org/10.3389/fpsyg.2022.865541</a>	격을 컴퓨터 과학, 특히 머신러닝 분석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연구 과정에 대한 프로토콜 연구로, 기존의 작은 데이터 세트와 검증되지 않은 모델링 관행으로 인해 심리학적 이론과 컴퓨터 과학 사이의 부족한 설명력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문항 개발 및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대표성을 띄지 못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와 달리 심리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성격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성격 특성과 개인의 발화, 언어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과학적 분석 방법인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음. (IF = 4.232,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76.53 in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26	최기홍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 학술지	Lee, J., & Choi, K. H. (2022). Mother-Child Social Cogni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i>Frontiers in Psychiatry</i> , 13, 883212, <a href="http://doi.org/10.3389/fpsyt.2022.883212">http://doi.org/10.3389/fpsyt.2022.883212</a>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어머니의 사회인지 능력이 자녀의 사회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자녀의 사회적 기능 및 정서 조절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 본 연구는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정서 인식 능력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살펴보았음.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자녀의 사회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가능한 어머니 변인을 탐색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인지 훈련 도입하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음. (IF = 4.232,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76.53 in Psychology, Multidisciplinary)
27	최은수	문화사회 성격심리	국제 학술지	Kim, G., Seong, S. H., Hong, S. S., & Choi, E. (2022). Impact of face masks and sunglasses on emotion recognition in South Koreans. <i>PLoS one</i> , 17(2), e0263466, <a href="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63466">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63466</a>	본 연구는 정서 지각의 주요한 신호를 제공하는 표정이 마스크나 선글라스로 인하여 일부 가려졌을 때, 정서 지각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가 된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주는 연구임. 일곱 가지의 기본정서와 중성적인 얼굴이 표정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라고 알려진 입과 눈이 가려졌을 때, 각각 어떠한 효과 크기로 인식의 해가 일어나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임. BK 참여학생 김가람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함. 연구 결과는 국제전문학술지 PLOS One에 출판함. (IF = 3.752,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60.96 in Multidisciplinary Sciences).
28	최은수	문화사회 성격심리	국제 학술지	Kim, S., Won, E., Jeong, H. G., Lee, M. S., Ko, Y. H.,	본 연구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018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3190명의 여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p>Paik, J. W., ... &amp; Han, K. M. (2022). Gender discrimination in workplace and depressive symptoms in female employees in South Korea. <i>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i>, 306, 269-275, <a href="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63466">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63466</a></p>	<p>여섯 가지의 직장내 성차별 경험이 우울증상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함. 그 결과, 직장내 성차별을 많이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우울 증상을 보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음 (OR=1.87). 직장내 성차별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흥미롭게도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에게 더 두드러짐. 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직장내에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다는 기존 연구와 일관된 결과임.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임. 직장내 겪는 성차별은 임금격차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불리함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 연구로 의의가 있음. BK 참여학생 김수연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하였고, SSCI 분야 랭킹상위 20%에 해당하는 <i>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i> 에 출판됨. (IF = 6.533,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86.56 in Clinical Neurology)</p>
29	최준식	행동인지 신경과학	국내 학술지	<p>최준식. (2022). 심리학 및 행동생물학적 연구에서 동물 로봇의 활용과 전망. <i>Journal of Korea Robotics Society</i>, 17(1), 086-092, <a href="https://doi.org/10.7746/jkros.2022.17.1.086">https://doi.org/10.7746/jkros.2022.17.1.086</a></p>	<p>행동신경과학(behavioral neuroscience) 분야에서는 로봇을 이용해서 실험실 상황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이고 대상 동물들이 최대한 자연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행동 생물학과 실험 심리학의 장점을 모두 구현하고자 함. 특히 동물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나 포식자의 위협에 대한 방어반응의 연구는 로봇의 도입으로 독창적인 실험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음. 본 논문에서는 엔지니어링 측면이 아닌 동물실험 연구자의 관점에서 로봇을 도입한 실험실 연구들의 범위와 특징들을 살펴보고 추후 행동신경과학적 연구들이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발전될 수 있는 전망과 개선점을 논의하였음(IF = 0.48).</p>
30	최준식	행동인지 신경과학	국제 학술지	<p>Park, E. H., Kim, N. S., Lee, Y. K., &amp; Choi, J. S. (2022). N-Methyl-D-Aspartate (NMDA) Receptors in the Prelimbic Cortex Are Required for Short-and Long-Term Memory Formation in Trace Fear Conditioning. <i>Life-Basel</i>, 12(5), 672, <a href="https://doi.org/10.3390/life12050672">https://doi.org/10.3390/life12050672</a></p>	<p>내측 전전두엽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변연전 피질이 공포 반응의 획득에 관여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변연전 피질에서의 NMDA 수용체 의존적 신경전달이 단기적, 장기적 추적 공포 기억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연구하였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추적 공포 조건화 전 단계에 변연전 피질에 전기분해적 손상을 가하여 해당 영역이 추적 공포 기억 형성에 필요하지 확인하였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변연전 피질에 d,l-2-amino-5-phosphonovaleric acid (APV)를 주입하여 변연전 피질에서의 NMDA 수용체 의존적 신경전달이 단기적, 장기적 추적 공포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음. 추가적으로, 변연전 피질의 비활성화가 전기충격에 대한 민감성과 이동성 활동 수준에는 영향을 미</p>

					<p>치지 않는 결과를 통해 변연전 피질에서의 NMDA 수용체 의존적 신경전달이 추적 공포 기억 형성에 요구됨을 밝혀내었음. 본 연구는 SCI 저널에 해당하는 Life-Basel에 등재되었음. (IF = 3.251,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52.65 in Biology).</p>
31	허지원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 학술지	<p>Lee, S. E., Yim, M., &amp; Hur, J. W. (2022). Beneath the surface: clinical and psychosocial correlates of posting nonsuicidal self-injury content online among female young adults. <i>Computers in Human Behavior</i>, 132, 107262, <a href="https://doi.org/10.1016/j.chb.2022.107262">https://doi.org/10.1016/j.chb.2022.107262</a></p>	<p>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를 수행하는 젊은 연령층의 경우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자해 관련 포스팅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자해 콘텐츠를 온라인에 포스팅하는 것은 해당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음. 연구 결과를 계기로, 자해 포스팅을 하는 이들을 소위 ‘관중’으로 낙인찍는 시선이 완화되고 또,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임상적 고위험군을 선별 및 개입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기를 기대함. 본 논문은 실험 심리 및 다학제 심리학 분야의 SCI급 국제전문학술지 ‘Computers in Human Behavior’에 게재됨. (IF = 8.957,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97.22 in Psychology, Experimental)</p>
32	허지원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 학술지	<p>Kim, B. R., Hur, J. W., Park, D. S., Moon, H. R., &amp; Choi, S. W. (In Press). Increased neural responses to negative facial emotion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dysfunctional attitudes among unmedicated individual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i>Current Psychology</i>, 1-12, <a href="https://doi.org/10.1007/s12144-022-03144-5">https://doi.org/10.1007/s12144-022-03144-5</a></p>	<p>본 연구에서는 총 25명의 주요우울장애(MDD)군과 23명의 통제군을 대상으로 얼굴 표정 인식 fMRI 연구를 시행하였음. fMRI 조건은 happy, neutral, sad였으며, 이 외에 우울 및 역기능적 태도를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음. 연구 결과, MDD군 참여자들은 슬픈 얼굴을 보았을 때 정서를 처리하는 특정 뇌의 영역에서의 활성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볼 수 있었음. 이러한 뇌 활성화 패턴은 역기능적 태도와 관련이 있었음. 이에 따라, 주요우울장애군의 신경학적 및 심리적인 이상성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였음. (IF = 2.387, JIF quartile = Q3, JIF percentile = 50 in Psychology, Multidisciplinary)</p>
33	허지원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 학술지	<p>Kim, H., &amp; Hur, J. W. (In Press). What’s Different About Those Who Have Ceased Self-Injury? Comparison Between Current and Lifetime Nonsuicidal Self-Injury. <i>Archives of suicide research</i>, 1-16, <a href="https://doi.org/10.1080/13811118.2022.2064256">https://doi.org/10.1080/13811118.2022.2064256</a></p>	<p>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NSSI: Nonsuicidal self-injury) 경험이 있는 성인 중, 자해를 중단한 집단과 지속하고 있는 집단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자해 중단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과 자해의 유지에 영향을 주는 자해 기능에 대한 지각의 차이, 및 여러 임상 증상과 심리적 자원에서의 차이를 탐색함. 그 결과, 연령이 어릴수록 NSSI를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NSSI를 지속하고 있는 개인들이 NSSI의 개인 내 기능에 대해 더 많이 보고함. 심리적 변인의 측면에서는, NSSI를 지속하고 있는 개인들이 자해를 중단한 개인들에 비해 더 높은 지각된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지각된 스트레스, 감정불능증, 정서 반</p>

				<p>응성, 자살사고를 보이며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보고하였으며, 자존감, 고통감내력, 회복탄력성 등의 심리적 자원의 경우 NSSI를 중단한 개인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본 연구는, 자해의 시작과 유지와 관련된 특성들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던 자해 중단과 관련한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음. 특히, 본 연구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BK연구사업의 핵심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로, 자해를 지속하는 개인들의 심리적 불균형을 조망하였으며, 자해의 중단과 관련한 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추후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자해 행동의 중단을 위한 개입의 개발을 위한 학문적 토대에 기여하였음.</p> <p>(IF = 2.833, JIF quartile = Q3, JIF percentile = 39.79 in Psychiatry).</p>
34	허지원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 학술지	<p>Park, H., In, S., &amp; Hur, J. W. (In Press). Association of socioeconomic status with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Korean adults. <i>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i>, 68(5), 1127-1134, <a href="https://doi.org/10.1177/00207640221104691">https://doi.org/10.1177/00207640221104691</a></p> <p>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해 위험성에 기여하는 양상을 규명함. 자살 의도가 없이 자해를 반복하는 국내 청년 414명과 대조군 2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섯 단계(상, 중상, 중, 중하, 하)로 분류했음.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수준에 속하는 청년들에 비해, '중하'와 '하' 수준에 속하는 청년들은 자해의 위험성이 각각 3.8배, 5.5배 높았음.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수준보다 낮을수록 자해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을 뜻함. 본 연구는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이 자살생각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이는 자살생각의 여러 위험 요인(여성 성별, 자해의 심각도 등)을 모두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에 확인한 결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자살적 자해 행동' 뿐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는 청년들의 자살 위험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함.</p> <p>(IF = 10.472, JIF quartile = Q1, JIF percentile = 91.90 in Psychiatry).</p>
35	허지원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 학술지	<p>Nam, G., Moon, H., Lee, J. H., &amp; Hur, J. W. (2022). Self-referential processing in individuals with nonsuicidal self-injury: An fMRI study. <i>NeuroImage-Clinical</i>, 103058, <a href="https://doi.org/10.1016/j.nicl.2022.103058">https://doi.org/10.1016/j.nicl.2022.103058</a></p> <p>비자살적 자해 행동자들은 내적인 부정 정서를 해결하고자 자해 행동을 함. 선행연구들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 행동자들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self-esteem) 및 높은 자기 비난 성향(self-criticism)을 지님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비자살적 자해 행동자의 자기참조과정을 알아보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행동자를 대상으로 긍정적, 부정적 자기참조과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비자살적 자해 행동군은 통제군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자살사고를 나타냈으며,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나타냄. 특히 비자살적 자해 행동군은 통제군과 비교하여 긍정적 정서 단어를 자신과 관련 없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정서 단어를 자신과 관련이 있</p>

					는 것으로 평가함.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나타낸 영역 중, 열성 두정엽(right inferior parietal lobe)의 활동성은 비자살적 자해 행동군의 자살 사고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냄. (IF = 4.891,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70 in Neuroimaging).
36	허지원	임상 및 상담심리	국제 학술지	Moon, H., Nam, G., & Hur, J. W. (In Press). Neural correlates of affective theory of mind in medication-free nonsuicidal self-injury: An fMRI study. <i>Frontiers in psychiatry</i> , 1567.	본 연구는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군의 정서적 마음이론에 관한 연구로, 정서적 마음이론이 일어나는 과제(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를 사용하여 기능적 뇌영상을 찍고 그를 바탕으로 수집한 행동 데이터들(정서조절곤란 척도, 감정표현불능증척도) 간의 관련성을 밝혀낸 논문임.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군에서 올라간 medial superior frontal gyrus activation이, 낮아진 right angular gyrus activation이 관찰됐고 또한 우측 angular gyrus의 활성도와 두 척도간의 부적 연관성이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서조절곤란, 감정표현불능증과 연관있는 angular gyrus가 잠재적인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을 알 수 있음. (IF = 5.435, JIF quartile = Q2, JIF percentile = 73.59 in Psychiatry).

<표 3-3> 최근 1년간 참여교수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연번	참여 교수명	지식 재산권명	구분	출원(등록)번호/계약번호
1	고영건	온라인 로르샤하 검사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	특허 출원	10-2020-0091529
2	남기춘	암묵 및 외현 기억 측정을 통해 치매 중증도를 판단하는 치매 중증도 판단 장치 및 동작방법	특허 출원	10-2021-0116731
3	남기춘	좌우반구의 협응반응 측정을 통한 치매 진단 장치	특허 출원	10-2021-0116712
4	남기춘	효과적인 암묵기억을 위한 최적의 암묵기억 학습기간 산출 장치 및 그 방법	특허 출원	10-2021-0137101
5	남기춘	뇌파 측정 기술을 이용하여 언어 능숙도를 진단하는 언어 능숙도 진단 장치 및 그 동작방법	특허 출원	10-2021-0147789
6	남기춘	사용자의 의미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용자 의미 네트워크 학습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특허 출원	10-2021-0153501
7	남기춘	사용자의 정보 처리 양상을 반영한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 배치 장치 및 그 동작방법	특허 출원	10-2021-0159443
8	남기춘	어휘화 뇌파를 활용한 단어 학습 도구	특허 출원	10-2021-0166461
9	남기춘	뇌파 측정 기술을 이용하여 언어 능숙도를 진단하는 방법	특허 등록	10-2352163
10	남기춘	세타파의 주기에 기초하여 단어를 학습하는 단어 학습 장치 및 그 동작방법	특허 출원	10-2022-0009169

11	남기춘	한국어 동사의 규칙성을 이용한 외국인 학습자 한국어 능숙도 진단 시스템 및 진단 방법	특허 등록	10-2381987
12	남기춘	아이트래커기기를 사용한 외국어 읽기 능숙도 측정 도구	특허 등록	10-2383840
13	남기춘	유사 의미 어간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 도구	특허 등록	10-2393912
14	남기춘	영어 유사 단어를 통한 단어의 철자-소리 대응 학습	특허 등록	10-2410177
15	최기홍	다차원 성격 검사 장치 및 방법	특허 등록	10-2380501
16	최기홍	자연어 처리 기반 성격평가 장치 및 방법	특허 출원	10-2022-0039465
17	최기홍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 작업 기억 훈련 장치 및 방법	특허 출원	10-2022-0073932
18	최기홍	문항 반응 이론 알고리즘 기반 전산화된 우울 불안 평가 시스템	기술 이전	KT-2022-0009
19	최기홍	우울증 인지행동치료 기반 디지털치료제 개발 관련 노하우	기술 이전	KT-2022-0070

### 1.2.2.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과제 육성

#### ▷ 지속가능성과 심리과학의 융합

- 융합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연구활동:** 심리학부는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리과학적 시야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심리학적 지속가능성 특별세미나, PSY1108), 다양한 세부 전공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팀티칭 형식의 세미나 수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심리적 웰빙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세부 심리학 분야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관점과 해석을 접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 학기 동안 지속 가능한 심리적 웰빙이라는 주제에 공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심리학 하위의 각기 다른 전공 분야 대학원생들 간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여 융합적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심리학교육연구단은 2021년에 BK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고, 우수 연구 아이디어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하였음. 지난 공모전이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심리연구에 지속가능성을 환기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2022년에도 2차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였음. 1차 공모전과 마찬가지로, 우수 연구 계획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이뤄졌으며 결과물 발표회를 통해 연구 진행과 결과를 심사하고자 함.
- 연차평가제도:** 각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랩미팅 및 개인 면담형 연구 미팅을 통해 대학원생들 연구에 대한 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BK 참여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연구 진행 보고서의 추가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참여대학원생들은 학기별로 있었던 학술논문,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수상, BK 연구 프로그램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하여 연구진행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도 교수들은 이에 기반하여 개개인의 실적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연구 활동에 대한 전반적 틀의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임. 구체적으로는, 연차평가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연구 흐름에 대한 피드백이 추가됨으로써, 연구에 대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이상의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하였음. 또한, 지속가능성과 사회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 대해 계속해서 환기하는 기회가 됨으로써, 관련한 시각으로 연구에 접근하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평가함. 즉, 연차평가제도는 학생들의 연구동기 부여와 연구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심리학적 해결방식을 모색하는 연구수행**

- 과거, 심리연구는 개인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컸으나, 심리교육연구단은 심리과학적 관점의 범위를 개인 이상의 것으로 확장하고자 함.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수준의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인 관점까지 확장하여 이해하고자 함을 의미함. 더불어, 심리교육연구단은 연구 결과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실천적 학문을 이행하고자 함.

- 연구 결과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 변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행정, 사법, 복지 등 공적 영역과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심리교육연구단은 타당한 심리과학적 근거 및 구체적 방략을 마련하고 심리연구의 적용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지난 1년간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녕을 높이고 지속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많았음. 최근 1년간에도 같은 취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 있고, 그 밖에도 심리학 원론에서부터 (예: 박선웅 교수 연구팀의 자존감 및 정체성 연구),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예: 성용준 교수의 연구팀의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자아존중감과 아바타 이상화 간의 연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본 교육연구단에서 지난 1년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해온 대표적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노년기 활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최근 최기홍 교수 연구팀은 노년들의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하여 노년기 활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울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COVID-19으로 인해 활력이 저하된 노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께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하여 교육하는 워크숍을 진행 중이며, 워크숍을 통해 연구팀에서 개발한 노년기 활력 증진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 ◆ **성차별 민감도 연구:** 최은수 교수 연구팀은 현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가 표정인식에 미치는 영향,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차별 민감도 연구 등 대처법 설계가 필요한 이슈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함. 또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2022 이슈포커스 봄여름에 소논문을 기고하여 노인의 정서 및 심리적 건강에 사회적 연결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음.

- ◆ **충간 소음의 심리적 요인 분석 및 소리의 심리학 강연:** 최준식 교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충간소음의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리의 심리학’에 대한 강연을 진행함. 추후 연구 교류 및 사회문제 공동 해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

- ◆ **자존감과 심리적 웰빙 강연:** 박선웅 교수 연구팀은 성격심리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체성과 심리적 웰빙과 관련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임. 연구 논문 게재나 학술활동 외에도, 박선웅 교수는 성격심리학과 관련하여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예로 한국심리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한국심리학회 KPA)에서 자존감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개인의 자존감에 대한 통찰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함. 한국 사회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https://www.youtube.com/watch?v=jqGf3i0WQf0>).

- ◆ **정신건강 불평등의 현황 기고:** 허지원 교수는 ‘정신건강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시론을 2022년 4월 20일 동아일보에 기고하였으며 (<https://www.donga.com/news/lt/article/all/20220420/112981521/1>), 해당 글을 통해 정신건강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현황,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요건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였음. 많은 독자들이 기고글에 대한 관심을 표함에 따라 해당일 네이버뉴스 메인에서 주요 뉴스로 선정되었음 (네이버뉴스 pick).
- ◆ **교육 장면에서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접근법 강연:** 허태균 교수 연구팀은 사회문화심리학을 세부 전공으로 하여 심리학 연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타개하고자, 현실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 중임. 그 예로, 허태균 교수는 세종시 교육청 교육원에서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이 시작된 교육 장면에서 아이들과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 **CEO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심리평가 도입 제안:** 고영건 교수 연구팀은 임상심리학을 세부 전공으로 하여 심리평가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음. 고영건 교수는 동아비즈니스리뷰 스페셜 리포트에 ‘대체 불가능한 CEO는 없다: 독립이사제, 심리평가 도입해야’ 라는 제목의 투고를 하였으며, CEO 리스크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소개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심리학적 방법을 소개하였음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10380/ac/magazine](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10380/ac/magazine)). CEO 리스크는 CEO로 인해 해당 기업의 가치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반드시 대비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평가됨.
- ◆ **공정의 뇌과학적 기원 강연:** 김학진 교수의 사회 및 의사결정 신경과학 연구팀은 신경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관련 뇌기제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연구 결과를 토대로 두산인문극장 2022에서 사회신경과학 그리고 신경경제학 연구들에서 밝혀진 ‘공정의 뇌과학적 기원’ 에 대해 강의하였고, 구체적으로 최신 뇌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제안함(website: <https://www.doosanartcenter.com/ko/education/1523>).
- ◆ **인지신경과학적 관점을 통한 외국어 학습 방법 제시:** 남기춘 교수는 <외국어 공부의 쉬워진다: 인지심리학자의 조언>을 출간함으로써 제2언어(외국어)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언어심리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원리에 기반하여 조언을 제공함. 일반적인 지식의 학습과 구별되는 외국어 학습의 특성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인간의 기억 구조와 원리 및 인지신경과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 논의함.

- ◆ **메타버스 이용자의 소비활동 관계 연구:** 성용준 교수는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에서 주관한 2022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메타버스 이용 동기에 대한 이해와 이용 행동 간의 상관관계: 제페토 플랫폼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연구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매체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최신 ICT 기술이 적용된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들의 동기와 소비활동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메타버스 운영자 및 개발자에게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는 실무적 의의가 있음.
- ◆ **학습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수퍼비전 제공:** 양은주 교수 연구팀은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 세부 전공에 맞추어 심리학 연구를 통해 더욱 적합하고 타당한 상담과 심리치료법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음. 최근 양은주 교수는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학습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집단 수퍼비전을 제공함. 총 4개의 사례에 대해 상담 방향 및 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상담 이슈에 대해 교육을 제공함.
- ◆ **현대인의 정서와 인지과정 간의 관계 연구:** 조양석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정서 및 인지 기능과 같은 심리학의 기저를 밝혀내기 위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엔트로피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음.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현대인의 정서와 인지과정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정서 자극 때문에 인지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 혹은 비관련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함.

▷ **산학연계를 통한 사회문제 공동연구 진행**

심리교육연구단은 지난 1년간 진행해왔던 다수의 기업 연계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김채연 교수 연구팀의 경우, 연속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조용상 교수 연구팀은 산학협력력을 통하여 참여 학생들을 현장 전문가로 양성하는 과정을 실행 중임. 그 밖에도 심리교육연구단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적 학문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산학연계를 통한 공동연구 계획을 제안하고 있음. 김채연 교수와 조용상 교수 연구팀의 산학연계 공동연구는 아래와 같음.

- ◆ **AR 사용자의 심리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AR 기기 개발 연구:** 김채연 교수 연구팀은 지난 1차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AR 광학모듈 및 AR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인 (주)레티널, 디아이엔(주), 맥스로직과 함께 산학협력연구를 진행 중임. AR 기기 사용자들이 주로 어지러움, 피로도 등을 호소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를 최소화한 AR 기기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AR 가상환경에서의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지표를 받을 수 있는 평정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심리 생리적 지표를 얻기 위한 심전도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에 등장하는 AR 기술의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기초 심리과학적 기제 연구를 위한 산학연계:** 조용상 교수 연구팀은 도파민 분비와 관련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최근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함 (Fellinger, L., Jo, Y. S., Hunker, A. C., Soden, M. E., Elum, J., Juarez, B., & Zweifel, L. S. (2021). A midbrain dynorphin circuit promotes threat generalization. *Current Biology*, 31(19), 4388-4396). 또한 본 연구팀은 산학교류를 통하여 현장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주식회사 비보존과의 MOU협약을 통하여 연구팀 대학원생이 신약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1.2.3. 교원의 연구 질적 향상

#### ▷ 신입 교원의 임용

김소현 교수는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의 정신과(Department of Psychiatry)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유아와 청소년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신경발달 장애의 진단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연구를 진행 중임(예: “Unpacking Treatment Mechanism: Combining Evidence from Three Early Invention Models for ASD, NIMH(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funded).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첨단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융합연구를 목표로 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연구역량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 ▷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강화

- 초기 신진연구인력으로 활동했던 최승혁 박사와 김태연 박사의 경우, 교육연구단에서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로 임용되는 쾌거를 이루었음.
- 추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조명현 박사와 김미림 박사를 새로운 신진연구인력으로 초빙하였으며 교육연구단의 지원 하에 교육연구단 주제에 부합하는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진행 중임. 구체적으로, 조명현 박사는 사회심리학을 세부 전공으로 하여 샤펜프로이데 경향성과 노년기 활동과 정서적 적응 연구를 진행 중이며, 김미림 박사는 심리측정 및 방법론을 세부 전공으로 하여, 팀마인드셋 척도 개발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영과잉 자료(zero-inflated data) 분석 접근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임.
-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6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4대 보험금과 퇴직금을 지원하며, 필요 연구비 및 학술활동 경비 또한 지원함(예: 설문자료 수집 지원, 1,056,000원).

#### ▷ 참여교수의 연구몰입 환경조성

본교 차원에서 교원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유연학기제, Flipped Class, 유연책임시수, 그리고 신입교원 책임시수 감면 제도를 마련하였음. 참여교수들은 관련 제도를 자율적으로 이용하여 강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 **유연학기제:** 유연학기제는 학기당 책임 수업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한 학기에는 연구 위주로(집중연구제), 다음 학기는 강의 위주로(집중강의제) 변경 가능함. 집중연구제에는 학기 중 중장기 해외 연구 활동 참여 혹은 국내외의 연구 파견이 가능하며, 국내외 우수교원 초빙을 통하여 연구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집중강의제에는 교과목 성격에 따라 주별 강의 시간을 4.5시간에서부터 12시간으로 조절하여 전자의 경우 10주, 후자의 경우 4주 동안 집중적인 강의를 실행함. 이에 따라 제도를 신청한 교수가 자율적으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함.
- ◆ **Flipped Class:** Flipped Class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도로서, 수업 전 수업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수강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함. 후에 진행되는 출석 수업에서는 토론과 실습에 중점을 두며 강의에 대한 교수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 **유연책임시수:** 유연책임시수 제도는 1년 동안 12시간의 책임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 학기 6시간의 책임시수를 3시간으로 조정하고, 남은 3시간을 다음 학기에 이월할 수 있는 제도임. 학기별 책임시수를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연구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학기를 마련하도록 함.

- ◆ **신임교원 책임시수 감면:** 새로 임용되는 교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임용 후 1년 동안 학기당 책임 수업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감면하였으며 심리학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경우, 김소현 교수가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1.2.4. 연구지원 시스템의 선진화

##### ▷ 심리학부 개편으로 단일 학부 규모의 행정 시스템 구축

2021년 문과대학 산하의 심리학과에서 단일 심리학부로 학제 개편을 확정하여 교육과 연구, 각 분야에 특화된 행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교원들과 대학원생들이 수행해왔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 전담 인력 2인에 1인을 추가 채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체계를 도모하였으며 축소된 행정부담은 심리학교육연구단의 연구 몰입도를 향상시켰음.

##### ▷ 공모전을 통한 대학원생들의 연구지원

- 심리학교육연구단은 2021년에 BK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였으며, 심리학부 내의 사업 미참여대학원생 및 타학과 대학원생들과의 협업을 장려하였음. 공모전 주제와 관련한 참신한 교육, 정책, 연구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19팀을 수상하고 선정된 연구(참조: 표 2-21. 2021년 2학기 공모전 합격 연구팀 및 연구 제목)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하였음(각 팀당 1,000,000원 내외). 수상한 모든 팀은 22년 1월까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그 중 상위 5개 팀(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2팀)은 심리학부 BK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uLc9jZhA0iNm4mPgEoKnhQ>)에 대표 발표물과 관련한 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심리연구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심리학교육연구단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난 공모전이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2022년에도 2차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였음. 총 14팀이 수상하고 교육연구단은 계획한 연구(참조: 표 2-22. 2022년 1학기 공모전 합격 연구팀 및 연구 제목)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함(각 팀당 1,500,000원 내외).

##### ▷ 수월한 연구 데이터 수집방안 확보

- 심리학부는 연구 참가자 모집이 필요한 대학원생들과 심리학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생들, 모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 수집방안을 고안하여 웹사이트 기반 연구관리 시스템(SONA system)을 구축하였음.
- 기존 영문판 SONA system을 한국어 버전으로 번안하여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였으며, 연구자의 연구 공시와 피험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을 모색하였음. 특히, 대학원생들이 연구비에 대한 큰 부담없이 피험자를 모집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 학기 심리학부 기초과목인 ‘심리학의 기초 1’과 ‘심리학의 기초 2’를 수강하는 학부생들에게 SONA system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 지난 1년간 총 10편의 연구가 연구관리 시스템(SONA system)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2학기 총 133명, 2022년 1학기 총 254명의 심리학부생들이 연구에 참여함(참조: 표 2-23. SONA system 개설 연구 목록).

#### 1.2.5. 연구참신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교류확대

##### ▷ 연구 아이디어 계발을 위한 현장 전문가 활용 및 산학교류

심리교육연구단은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심리연구의 실천적 면모를 확장

하기 위하여 산학교류를 통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장려하고, 현장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실천적 연구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있음.

- ◆ **MOU협약을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 및 연구 활동:** 심리학부는 신약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비보존과의 MOU협약을 통해 대학원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행동인지신경 과학분야에서 동물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 중에서 신약개발에 관심이 있고, 대학원 졸업 후 신약개발 회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1명(석사과정 임세영)을 선발하였음. 선발된 대학원생은 2022년도 1학기부터(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1일씩 비보존으로 출근하여 신경과학 연구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찰 및 경험하고, 비보존이 진행하는 신약 연구개발 기획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짐. 또한 디맨드와의 MOU협약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백인현)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 경우 실험 설계부터 진행 및 분석을 모두 총괄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에 모두 공헌하였음. 해당 활동에 대하여 연구자문비 300만원을 지급받았음.
- ◆ **현장실습 과목을 활용한 익스텐션:** 심리학부는 대학원생들이 실무 경험을 배양하며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익스텐션 또한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 예로, ‘임상현장실습 I (PSYC7325)’, ‘임상현장실습 II (PSYC7326)’ 이라는 과목을 활용한 익스텐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KU마음건강연구소, 마음건강케이유(주) 및 병원에서 익스텐 수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
- ◆ **현장 전문가 초빙을 통한 산학교류:** 연구 및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의 결과물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그 일환으로, 지난 1년간 학계, 산업 및 사회 각 장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가 열 명을 초빙하여, 전문가 강연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음 (예, 한국리서치 혁신센터의 [REDACTED] ‘지금 MZ 현상은 왜?: MZ세대의 인식, 경험 및 소비에 대하여’,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의 [REDACTED] 교수: Music, Language and the Brain’ 등) (참조: 표 2-20. 4단계 BK21 심리학 교육연구단 강연 및 워크숍 진행 현황).

#### ▷ 해외 저명학자 초청강연 및 공동연구

- 지난 1년간 초청 강연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을 알맞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석학들의 우수 강연을 계속해서 계획 및 진행하고 있음. 공동연구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행 중임.
-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곱 명의 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였고 (예: ‘Advancing Method to Quantify Clinical Phenotypes and Outcome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Neuromodulatory control of social engagement and anxiety’) (참조: 표 2-18. 국제 석학 초빙 강연 목록), 대학원생들에게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음. 강연을 통해 심리학 연구의 다양성과 교류 가능성을 소개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시야를 확대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하였으며, 국제 석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였음.

#### 1.2.6.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

#####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론 교육

- ◆ **데이터과학원 교과 이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원생들은 본교 데이터과학원에서 주최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관련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1년간 데이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데이터과학 및 기계학습 관련 5개 교과를 이수함. (참조: 표 2-4. 데이터과학원 교과 이수

내역)

-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워크숍:** 심리학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들의 요구를 사전에 수렴하여 최신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특강 및 교과를 계획하고자 하였음. 머신러닝 기초 이론과 응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이를 위해 계량심리학 분야에서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하는 McGill University의 황홍선 교수를 초청하여 4일간의 특별 강연(2022.06.27.~2022.06.30.)을 주최함.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의 설명과 예측에 기존의 전통적 회귀분석 모형이 활용되고 있으나, 최신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복잡해짐으로써 자료 분석에 고려해야하는 변수와 상황 또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머신 러닝, 즉 기계적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주최한 특별 강연은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강연에서는 머신 러닝의 개요부터 시작하여 행동 사회과학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머신 러닝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소개되었고, 특별히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위한 머신 러닝 기법들이 다루어짐. RStudio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제 데이터에 대하여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보고 산출된 결과를 해석하는 시간을 가짐.
- ◆ **유전 분석(Genetic Analysis) 워크숍:** 유전학은 융합연구와 다양한 분석 기법의 적용이 가능한 학문이지만, 사회과학 연구자에게는 접근 장벽이 높다는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교육연구단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유전 분석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2022.08.03.~2022.08.05.)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증진과 산학연계를 도모함. 워크숍은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원의 주윤정 교수의 특별 강연으로 이루어졌으며, DNA와 RNA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파악하고 Plink, Galaxy web site 실습 과정을 통해 유전체 분석에 사용되는 최신 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 더불어 유전체 분석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접하여 심리학과 유전학의 융합 방향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짐. 유전체 연구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하여 심리학 연구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연구자 양성 기회를 마련함.
- ◆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교과 개설:**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2022년 2학기부터 다변량분석 교과(PSY1004)를 새로이 개설하였음. 구조방정식모형은 잠재 변수를 다루는 연구 방법 중 한 가지로 잠재 변수 간의 관계, 그리고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하는 통계적 기법임. 이론에 기반한 복잡한 가설을 검증하는 심리학 연구에 많이 응용되며,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 구두 발표 및 논문 작성 역량 강화

- 연구실별로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지도하고 있으며, 모의 발표를 통해 매끄러운 발표 진행과 예상 질문에 대한 응답 및 대처를 연습하여 성공적인 학술대회 발표를 도모하였음. 그 결과로 총 3팀의 대학원생 연구팀이 학술대회에서 수상하였음 (참고: 표 2-34 대학원생 학술대회 수상실적, 연번 1-3).
- 논문 작성 또한 연구실별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참여대학원생이 대거 배출되었고 (참조: 표 2-32 참여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및 BK사업과의 연관성), 1팀(성소현, 김가람)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주최한 논문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음 (참고: 표 2-34 대학원생 학술대회 수상실적, 연번 4). 이 같은 결과는 논문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의 성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학원생이 자신의 논문 게재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대학원생들의 논문 게재를 지도하는 활동으로까지 이어짐. 본교의 교수학습개발원에서는 KCI 등재 학술

지에 주저자로 2회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BK21 대학원생 논문작성 심층 클리닉’ 멘토를 모집하였으며, 참여대학원생 중 김정원 연구원이 2022년 1학기부터 1:3의 비율로 멘티들을 지도하고 있음.

▷ 대학원생들의 연구 다양성 강화

BK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은 세부 전공과 관련한 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뿐만 아니라 이를 확장하여 각 전공 지식을 사회문제 해결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활동에 대하여 수상하였음.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4> 대학원생 융합연구 공모전 수상 실적

참여대학원생	공모전	연구 활동	수상 실적
	제 1회 대학원생 융복합 기반 연구모임	Head Up Display의 주의분산 최소화 및 정보 인지 강화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	1등
	제 1회 대학원생 융복합 기반 연구모임	시각화된 자기상을 활용한 남성 동성애자/양성애자 집단 정신건강 연구	2등
	대학원 혁신 관련 데이터 분석 활동 연구 공모	장학금 추천 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우수상
	Junior Fellow Research Grant	개인의 생활사 전략이 자루함 성향에 미치는 영향 탐구	최우수상

1) Research Challenger Program(RCP)

심리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들은 본교의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주최한 ‘제 1회 대학원생 융복합 기반 연구모임 RCP(Research Challenger Program)’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았음. RCP는 2개 이상의 세부 전공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구 계획서와 예산 활용 계획에 기반하여 총 3팀의 대학원생 연구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하였음. 참여대학원생들 중, 2팀이 각각 1위(H.U.D 연구팀)와 2위(안암동 타이거즈 연구팀)로 최종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등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준비 중임. RCP에서 수상한 연구팀의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음.

◆ Head Up Display(HUD)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

HUD의 주의 분산 최소화 및 정보 인지 강화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연구로, HUD를 통하여 운전자 전면 유리창에 주행과 관련한 과도한 정보가 투영될 경우에는 오히려 운전자의 주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함. 연구팀은 시각 복잡도와 주행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단계의 복잡도와 두 가지 과제(속도 조절 과제와 자극 탐지 과제) 간의 관계성을 파악했음. 실험 참가자 60명의 주행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분석하여 시각적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운전자의 중심 시야와 주변 시야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중심 시야로의 주의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함. 즉, HUD를 통한 정보가 시각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주행을 더욱 방해함으로써 HUD의 효율성을 저해함. 연구 결과는 국내 학술대회(2022 한국 인지 및 생물 심리학회, 우수 발표상 수상)와 국제 학술대회(2022 Applie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뉴욕)에서 발표하였으며, 학술지에 투고하기 위해 연구 논문을 준비 중임. H.U.D 연구팀의 경우, 연구 진행, 결과 및 추후 학술 활동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우수상 수상) RCP 연구 프로그램에 관하여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추가 장학금을 지급받았음.

◆ 시각화된 자기상을 이용한 남성 성소수자 정신건강 연구

기존의 성소수자 관련 선행 연구는 자기보고식 방식을 이용하여 자기상 개념을 측정하였으나, ‘자기 스스로’ 라는 방식은 자신의 응답에 대한 의식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각 자극을 활용하여 실험 참가자의 의식적 통제를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였고, 성소수자의 자기상과 정신건강 변인을 측정하고 임상적 취약군을 분석함. 현재 1차 수집 자료 및 분석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2차 자료 수집을 진행 중임. 연구 결과는 학술지에 투고하기 위해 연구 논문으로 작성 중임.

2) 대학원 혁신 데이터 분석

본교의 디지털정보처에서 주관한 ‘대학원 혁신 관련 데이터 분석 활동 연구 공모’ 에서 심리학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계획이 채택되어 수상하였고 장학금 추천 서비스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장학금 추천 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연구팀은 대학원생들이 본인에게 적절한 장학금 정보를 찾고 선별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학업에 좀 더 매진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정보 선별 과정이 자동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주목함. 따라서 기존에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대학원생들의 정보와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학생들의 조건에 알맞는 장학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함. 개발된 알고리즘은 장학금 지원자가 각 장학금 수혜 기준에 인접한지 군집분석을 통하여 판별하며, 기존 수혜 학생과의 정보와 인접할수록 관련 장학금을 추천하는 시스템임.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추후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에 접근할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학교 측이 장학금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는 것에 이바지하였다고 판단됨.

3) Junior Fellow Research Grant

연구원은 대학원행정팀에서 주관하는 Junior Fellow Research Grant 연구공모에서 수상하여 2022년 1학기부터 1년 동안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음. Junior Fellow Research Grant는 연구 계획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연구비, 자료비, 국내외 학술 여행경비를 3,000,000원까지 지원함. 자세한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음.

◆ 개인의 생활사 전략이 지루함 성향에 미치는 영향 탐구

해당 연구는 지루함 성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생활사 전략(Life History Strategies)을 제안하며, 높은 지루함 성향은 빠른 생활사 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함. 가혹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손 번식을 위해 빠른 생활사 전략을 택할 수 있는데, 이때 사랑하는 사람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 지루함을 자주, 많이 경험하는 것이 빠른 생활사 전략에 적응적인 특성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연구 목표는 지루함 성향의 진화론적 기원(빠른 생활사)을 최초로 탐색하고, 빠른 생활사 전략에 적응적인 성격 특성으로 지루함 성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임. 연구를 통해 생활사 전략의 차이가 개인과 국가의 특성의 차이를 이끌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진화심리학으로의 관심 환기를 유도할 수 있고, COVID-19와 같은 환경 변화가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학원생들의 우수 연구 성과물 인센티브를 통한 연구 동기 강화

- BK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도모를 위하여 연구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심리교육

연구단의 취지에 알맞게,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활동과도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책정하였음. 크게 두 가지 평가항목(연구성과: 60%, BK 교육연구단 참여도: 40%)에 대하여 지난 1년, 참여 기간 활동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을 지급함.

- 연구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으로는 국내외 출판된 논문 성과 및 학술대회 발표 성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BK 교육연구단 참여도로는 BK 교육연구단 주관 사업, 공모전 및 행사 참여도와 참여 활동에 대한 수상 실적을 차등 점수화하여 평가하였음. 두 평가항목에 대한 총점 1점당 4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석사 과정생, 박사 과정생, 박사 수료생에 따라 각기 다른 상한 금액을 책정하여 총 5,000,000원의 성과급을 해당 학생들에게 차등 지급함.
- 그 중 우수 학생들을 인재양성팀수혜 대상으로 추천하여 총 5명이 각각 3,000,000원의 장학금을 수혜함 (참조: 표 2-27. BK21 펠로우십 프로그램 장학금 수혜 내역 중, 인재양성팀 지원방식)

#### ▷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 및 중장기 연수 지원

- 심리학교육연구단은 국제 수준의 우수한 심리연구를 위해서는 최신 연구 트렌드와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의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구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대학원생 국제화 교육을 위해 지원한 결과, 지난 1년간 총 14팀의 학생들에게 단기 연수 및 국제 학회 참여비를 지원함(예, Neuroscience 2021에서 발표) (참조: 표 2-16. 해외 단기연수 지원).
- 국제 학회뿐만 아니라 해외 연수를 매개로 해외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학과 수준의 공동 연구 및 공동 심포지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있음. 그 예로, 김채연 교수 연구팀 연구원(참여대학원생: ████████)과 김학진 교수 연구팀 연구원(██████)은 각각 University of Vienna와 University of Zurich에 방문하여 공동연구에 참여함(참조: 표 2-17. 해외 장기연수 BK 지원 및 정부지원). 연구원의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음.

#### 1) 의사결정과 집단 편향에 대한 신경학적 기제 연구 (김주영, 2022.04.01.~2022.06.30.)

██████ 연구원은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University of Zurich)를 방문하여 신경경제학과 (Department of Neuroeconomics) 소속 Philippe Tobler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하는 아래 2건의 공동연구에 참여함.

##### ◆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내부감각 신호 민감성의 연관성 연구

도덕적 의사결정과 내부 신호 민감성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개인의 의사결정과 대중의 의사결정 사이의 유사성이 설문을 통해 측정된 내부 신호 민감성과 상관이 있음을 확인함. 내부 신호처리와 관련된 영역 간의 휴지기 뇌영상 연결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의 생리학적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능력 또한 도덕적 의사결정과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연구 결과는 개인의 도덕적 의사결정 경향성에 대한 기존 양분적인 접근(결과론적, 의무론적)에서 벗어나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결정과의 일치성을 살펴보는 새로운 측정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이러한 의사결정 경향성이 스스로의 정서적 정보를 정확하게 탐지하는 능력, 즉 내부 신호민감성과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친사회적 학습의 집단간 편향과 관련된 신경학적 기제 연구

해당 연구는 내집단 편향과 관련된 구조 및 기능적 신경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외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내집단 편향 감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신경학적 지표를 발굴하고자 하였음. 휴지기 뇌영상 데이터를 통하여 휴식 중의 전대상피질과 뇌섬엽, 전대상피질과 기저핵 사이의 연결성이 개인의 내집단 편향과 관련이 있으며, 측두두정연합부와 전대상피질 간의 연결성이 내집단

편향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 연구 결과는 학습 상황에서의 그룹 관계와 관련된 개인차가 해당 행동과 관계가 없는 휴식 상황에서도 공감, 갈등 해결 및 마음 이론과 연관된 뇌 영역간의 소통 정도와 관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음.

2) 곡선·복잡도 선호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 2022.06.13.~2022.07.29.)

██████████ 연구원은 University of Vienna의 EVA lab (Empirical Visual Aesthetics Lab)에 방문하여, Helmut Leder 교수와 Eva Specker 박사후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임.

◆ 곡선·복잡도 선호와 예술 전문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해당 연구는 곡선/복잡도 선호와 예술 전문성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비교 문화 연구로, EVA lab 실험실에서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오스트리아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함. 또한, 신경 미학을 연구하는 여러 연구실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웹세미나에서 'Aesthetic Preference: Interaction Between Properties of Artwork and Beholder'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음. Domicela Jonauskaitė 박사후 연구원과 색과 미적 선호도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Andreas Gartus 박사후 연구원과 복잡도 선호에 대한 공동연구도 계획하고 있음.

▷ 대학원생 장학금 및 인건비 수혜율 확대

- 지난 1년간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76.3%(전체 278명 중 212명), 총 장학금 지급액은 935,686,438원에 달함. BK21 4단계 사업 시작 전 1년 간(2019년 2학기~2020년 1학기)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50.8%(전체 181명 중 92명), 총 장학금 지급액은 358,319,300원이었으며 이와 비교했을 때, 장학금 수혜율에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울러, 지난 1년간 3명의 BK 참여대학원생이 외부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음(현대차 정몽구 장학재단과 용운장학재단) (참조: 표 2-28. 외부 장학금 수혜 내용). 3명의 참여대학원생은 우수한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외부 장학금을 지원받음(██████████ 학생이 정몽구장학재단으로부터 각각 15,523,000원, ██████████ 학생 용운장학재단으로부터 1천만원의 장학금을 수혜함).

▷ 대학원생 연구공간 확대

김소현 교수 연구팀(Clinical Neurodevelopmental Sciences Lab)과 허지원 교수 연구팀(Psychopathology & Social Neuroscience Lab)의 연구실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연구팀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을 개선하였음. 또한, 심리학부를 위한 다목적 세미나실을 확보하여 강의, 세미나 및 연구 활동에 유연하게 사용 공간을 마련함(복도 공간 포함 총 면적 194.40m<sup>2</sup>).

②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2021.9.1.-2022.8.31.))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p><input type="checkbox"/> <b>사회문제 해결: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최기홍 교수)</b></p> <p>최기홍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시대에 특히 취약한 사회적 약자(정신질환자, 코로나 블루, 노인, 발달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을 권장하기 위한 연구에 참여했음. 구체적으로, 산림청 국립수목원 및 전국 조경 및 환경 관련 학과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이 정신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음. 연구 결과,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은 우울, 불안, 삶의 질, 마음챙김, 활력 등 정신건강 및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결과는 SCI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게재되었음(IF = 4.614).</p> <p>학술적인 의미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적 연구라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음.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은 접근과 참여가 쉽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 후속 연구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도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 중이며, 가드닝 프로그램의 매뉴얼화 및 배포를 위하여 가드닝 프로그램의 구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p>
2	<p><input type="checkbox"/> <b>논문: Park, H., In, S., &amp; Hur, J. W. (2022). Association of socioeconomic status with nonsuicidal self-injury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Korean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8(5), 1127-1134 (허지원 교수)</b></p> <p>해당 연구는 청년 인구의 자해 행동에 사회경제적 상태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살 생각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냄. 자살 의도가 없이 자해를 반복하는 국내 청년 414명과 대조군 200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다섯 단계(상, 중상, 중, 중하, 하)로 분류하여 청소년 자해의 위험성을 분석함.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수준에 속하는 청년들에 비해, '중하'와 '하' 수준에 속하는 청년들은 자해의 위험성이 각각 3.8배, 5.5배 높았음.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 생각을 유도하는 여러 위험 요인(여성 성별, 자해의 심각도 등)을 통계적으로 통제된 후에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에 개입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를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연구 결과는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IF = 10.472)에 게재되었음.</p>

3	<p>□ <b>저서: 청소년 발달과 정신의학 (군자출판사, 2021년) (고영건 교수)</b></p> <p>청소년들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아동과 성인에게 적용하는 임상 기법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평가를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p> <p>현재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심리평가 도구가 개발되었지만, 실제 청소년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면, 심리평가 도구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평가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우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임상적인 접근이 필요함. 고영건 교수가 집필한 북 챕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함. 청소년의 심리평가를 위해서는 청소년 수검자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이해를 통해 심리적 문제를 명료화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음. 최종적으로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까지도 포함하여 심리평가의 과정을 소개함.</p> <p>해당 저서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관하여 발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정신의학 전문학술서임. 대부분의 집필진은 정신의학 전공 교수들이지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편찬위원회는 고영건 교수를 임상심리학 분야의 대표로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북 챕터 집필에 단독으로 참여함.</p>
4	<p>□ <b>국내 학술 활동: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 발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ESG경영 특별세미나, 한국광고학회: 2021.10.01.) (성용준 교수)</b></p> <p>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관심과 대비하여 그에 대한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임.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을 밝히고 각 요인이 소비 단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봄. 구체적으로, 개인의 내재적, 외재적 제약 요인을 살펴으로써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탐색함. 연구 결과, 지속 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은 무력감, 어려움, 무관심, 의심, 기반의 부족, 경제성의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음. 또한 추출된 제약 요인은 소비의 구매-사용-폐기 행동 단계와 각각 다른 관계를 보임.</p> <p>이러한 연구 결과는 구매-사용-폐기 행동 단계 외에도 지속 가능한 소비를 저해하는 제약들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 의의가 있음.</p>
5	<p>□ <b>국제 학술 활동: 'Hierarchical MPFC Function for Social Valuation' 발표 (Shenzhen University 초청 강연: 2021.11.25.) (김학진 교수)</b></p> <p>중국 Shenzhen에 위치한 Shenzhen University에서 김학진 교수에게 사회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측 전두엽 (medial prefrontal cortex)의 처리과정에 대한 강연을 초청하였으며, 팬데믹을 반영하여 VooV Meeting을 이용하여 온라인 강연을 시행함.</p> <p>강연에서는 사회적 의사결정 시 가치계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내측 전두엽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내측 전두엽 하위 부위들 간의 기능적 분화에 관한 최신 뇌과학적 증거들을 소개하였음.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신경과학적 모형을 제시함.</p>

6	<p>□ 정부 연구비 수주: ‘중추 도파민 시스템의 다중 주기성 : 뇌과학적 기전 규명 및 뇌기능 조절 활용기술 연구’ 프로젝트 (연구 기간: 2022.04.01.~2022.12.31.) (조용상 교수)</p> <p>본 연구과제는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로 기초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심리적 불균형과 관련된 속성의 기제를 밝히고 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중추 도파민 분비와 관련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로 중추 도파민 시스템의 다중 주기성 조절 기전 규명 및 그 활용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여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3억원의 연구비 지원이 계획됨. 연구팀은 도파민 신경망의 일주기 및 아일주기적 조절기전 규명하고 그 기능적 유의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생체시계 제어를 통한 수면 및 중독 장애 개선 기술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신규분자 생체시계 제어 선도물질 1종 이상 개발을 목표하고 있음.</p>
7	<p>□ 해외 기관 연구비 수주: ‘The geography of philosophy: an interdisciplinary cross-cultural exploration of university and diversity in fundamental philosophical concepts’ 프로젝트 (연구 기간: 2018.06.01.~2022.02.28.) (김학진 교수)</p> <p>University of Pittsburgh는 김학진 연구팀이 2017년 7월에 기획한 연구 계획에 대하여 4년간 \$261,338 ( 71,653,310원)의 연구비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유럽, 에콰도르, 인도, 일본, 모로코, 페루, 남아프리카, 한국, 캐나다, 영국 등 총 9개의 국가 연구팀과 함께하는 다국적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임. 구체적으로는 이해(Understanding), 지혜(Wisdom), 지식(Knowledge)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개념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인지과학에서 문화 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10개의 학술논문 게재를 진행하고 있음</p>

##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 2.1. 본 심리과학 교육연구단의 특성

-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불안, 공포, 우울과 같은 기초심리학적 기제와 중독, 자살, 폭력과 같이 개인의 자기 파괴적 행위를 들 수 있음. 또 다른 요인으로는 차별, 빈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수준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복합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이는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수준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한 방안은 개인과 사회 간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간과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 따라서 심리학교육연구단은 두 유기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학제 간 협업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및 사회문제해결의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공고히 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개인의 인지기능, 정서적 반응, 의사결정, 정신건강 문제는 물론, 산업, 행정, 정책, 법률적 문제와 관련한 심리과학적 연구와 제언을 제공해오고 있음.
- 본 심리학교육연구단은 총 14명의 전임교원이 인지신경과학부터, 임상 및 상담심리학,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문화사회 및 성격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에 포진하여, 현 사회의 가장 중대한 현안인 ‘지속가능성’ 연구를 세부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심리과학 연구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 2.2. 산업·사회문제 해결 기여 계획과 그에 따른 실적

-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산업·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음: 1) 지속가능성의 심리학적 정의와 속성에 관한 기초연구, 2)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 규명 및 영향력 연구, 3)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리과학적 해결방안

#### 1) 지속가능성의 심리학적 정의와 속성에 관한 기초연구

##### ▷ 심리적 불균형의 기초심리학적 기제 규명

참여교수진은 지속가능성의 심리학적 정의와 속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위해 심리적 불균형에 기저하는 기초심리학적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우수추진사례 1. 김학진 교수 ‘감정 추론에 필요한 맥락 정보 이용에 나타나는 개인차 규명 연구: 개인이 상대방의 감정 추론함에 있어 맥락정보 고려 정도의 개인차의 신경 기전을 살펴본 연구로, 감정 인식에 대한 예측 코딩/처리 이론에 기반하고 있음. 맥락정보를 활용하여 얼굴 표정과 관련한 감정을 추론할 경우, 관련 정보를 많이 고려하는 사람일수록 관련 내부 상태 표상이 많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로, 인지과학 저널 상위 5% 이내에 속하는 neuroimaging(IF = 7.4)에 연구 결과를 게재함. 또한 연구는 개인의 감정이 맥락정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자세히 밝힘으로써 사회 불균형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의 원론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음.
- ◆ 우수추진사례 2. 김학진 교수 ‘불공정성에 대한 반응 행동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신경학적 처리 과정 연구: 해당 연구는 불공정성과 관련하여 관찰자의 사회적 지각과 의사결정과 행동 및 신경학적 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본 연구임. 연구를 통하여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대한 해석을 위해 시간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고려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전전두엽 피질의 복측-배측 경사의 하위 영역이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하였음. 불공정성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 및 그 근간이 되는 심리사회적 불균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촉진에 중요한 사항임. 연

구는 동일한 사회적 불균형 상황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지를 파악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추후 불공정성이 유도하는 사회적 갈등을 이해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되며, BK 연구 사업의 목표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로써 중요성을 가짐. 연구결과를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IF = 4.235)에 게재하였음.

- ◆ **우수추진사례 3. 김학진 교수 ‘자원의 양이 한정적인 때, 집단 간의 자원분배를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색’ 연구:** 본 연구는 집단 간 자원 분배과정에서 상황적 맥락이 개인의 분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연구로, 자원의 양이 한정적인 상황일 때, 그 상황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음. 그 결과, 적은 양의 자원에 대해서는 내집단 편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밝혀냄. 집단 간 자원분배의 의사결정은 사회의 자원 분배 및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 해당 연구 결과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사회적 불균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연구 결과는 Scientific Report(IF = 4.996)에 게재됨.
- ◆ **우수추진사례 4. 남기춘 교수 ‘한국어 동사 어절 재인 과정에 하위 어휘 요인이 미치는 영향’ 연구:** 본 연구는 한국어 정보처리의 신경생리학적 기제를 조사하고,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콘텐츠 제작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추구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으로 볼 수 있음. 본 연구는 인도유럽어와 달리 교착어적 성질을 지닌 한국어 어절 재인 시,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독일어, 영어와 달리 하위 어휘 요인인 형태소와 어휘 정보의 동시 활성화가 이루어짐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Journal of Neurolinguistics(IF = 2.373)에 연구결과를 게재함.
- ◆ **우수추진사례 5. 남기춘 교수 ‘외국어 공부가 쉬워진다: 인지심리학자의 조언’ 저서:** 저서는 외국어의 학습 방식에 대해 인지심리학 및 신경과학적 관점을 가지고 논의함. 모국어와 외국어 학습에 각기 다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를 심리과학적으로 설명하며,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언어 소외 계층의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을 제시함. 언어 소외 계층이 겪는 언어 습득과 관련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우수추진사례 6. 조양석, 최준식 교수 ‘자극의 불확실성이 연합학습에 미치는 영향: 수리모델간 비교연구’ :** 해당 연구는 자극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연합학습 변화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수리적 모델의 강점과 한계를 확인함. 동물과 인간 실험 연구에서 쓰일 수 있는 공통적인 학습 계획을 추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계획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학습 상황에서 실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봄. 연구결과는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IF = 0.35)에 게재되었으며,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우수추진사례 6. 최준식 교수 ‘변연전 피질이 공포 기억 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역할’ 연구 :** 파블로프식 공포 조건화는 무조건자극과 연합된 중성자극이 조건자극이 되어 무조건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학습과정을 가리키며, 이 중 추적 공포 조건화의 경우 무조건자극과 조건자극 간의 제시 간격이 더 큰 학습을 의미함. 해당 연구는 이러한 연합학습에 기여하는 뇌 영역과 신경전달을 중개하는 수용체를 밝혀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같은 심리적 장애

의 발생 원인과 치료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인간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연구 결과는 Life(IF = 3.251)에 게재됨.

## 2)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 규명 및 영향력 연구

심리학교육연구단은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을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규명하고자 하였음. 연구 모형 또한 심리적 불균형 모형과 사회적 불균형 모형으로 구체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심리 및 사회적 저해 요인의 영향력 연구를 진행하였음.

### ▷ 심리적 불균형 모형 연구

교육연구단은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인지적, 정서적, 병리적 요인은 물론, 객관적 또는 주관적 물질적 자원이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에 미치는 특성에 대하여 다각도의 연구를 수행하여 실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원천기술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우수추진사례 1. 김채연 교수 ‘창작자 정보에 따른 미적 선호’ 연구** : 해당 연구는 구글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시각 예술 작품이라는 자극을 제작하고, 시각 예술 작품의 창작자 정보가 AI인지 인간인지에 따라 미적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봄. 인간 창작이라는 정보가 주어질 때, 미적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선호판단을 지식적으로 확립시켰다는 의의를 지님. 연구 결과는 감성과학(IF = 0.78)에 게재되었고, 선호판단에 관한 결과는 산업 현장 및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우수추진사례 2. 남기춘 교수 ‘연령 별 게임 경험에 따른 인지기능 향상 정도의 차이’ 연구** : 인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해당 연구는 게임 경험과 연령이라는 요인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하였음. 인지 기능으로는, 공간작업 기억 과제, 주의력 과제, 문제 해결 과제, 그리고 충동 조절 과제를 측정하였고, 이러한 인지 기능들의 향상을 게임 경험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연구결과는 ‘게임’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Computers in Human Behavior(IF = 8.957)에 연구 결과를 게재함.
- ◆ **우수추진사례 3. 박선웅 교수 ‘정체성 발달과 내·외적 가치 중심 목표 간 관계’ 연구** : 해당 연구는 서사정체성이 다양한 수준의 성격 변인들을 통제 한 후에도 심리적 웰빙과 관련이 있고, 그에 대해 증분 타당도를 가짐을 밝혀냈음. 연구 결과는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는 세 수준의 성격을 모두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서사정체성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IF = 1.44)에 게재되었음.
- ◆ **우수추진사례 4. 박선웅 교수 ‘한국인의 심리적 웰빙을 예측하는 서사 정체성의 증분 타당도’ 연구** : 본 연구는, 기존의 서구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심리적 웰빙과 서사 정체성을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한국인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공존하는 특수적인 문화권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심리적 웰빙에 대하여 서사 정체성이 가지는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였음. 연구 결과는 Narrative Inquiry(IF = 1.289)에 게재되었음.

- **우수추진사례 5. 허지원 교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해당 연구는 청년 인구의 자해 행동에 사회경제적 상태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살 생각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냄. 연구 결과는 자살 생각을 유도하는 여러 위험 요인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 도출된 결과이며, 이는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에 개입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를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이는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IF = 10.472)에 게재되었으며, 추후 한국 청년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발판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 불균형 모형 연구**

사회적 불균형은 개인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제안되고 있음. 본 교육연구단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개인 내적인 요인(자기 개념, 사회 인지적 요인 등)과 개인 간 요인(사회적 관계 특성, 가치관 특성 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인 및 기본적인 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우수추진사례 1. 성용준 교수 ‘AI의 평가에 AI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미치는 영향’ 연구 :** 해당 연구는 AI 쇼핑 에이전트의 제품 추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AI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을 규명하였음. 고정관념의 영향은 제품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AI를 어떤 제품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안하였음. 연구 결과는 비효율적인 서비스, 쇼핑 경험 등을 피하고 제품의 특성이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어 지속 가능한 소비로 이어지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Journal of Business Research에 등재되었음(IF = 10.969).
- **우수추진사례 2. 허지원 교수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경험자의 행동 중단과 지속에 미치는 요인 탐구’ 연구 :**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행동은 추후 자살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함. 해당 연구는 자해를 지속하는 개인들이 중단한 개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어려움과 임상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심리적 고통감을 다루는데 필요한 심리적 자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밝힘. 연구 결과는 Archives of Suicide Research(IF = 2.833)에 게재되었으며, 자해의 중단을 위해서는 임상 증상의 약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감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함.

3)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리과학적 해결방안**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파악한 이후에는, 실제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임. 심리학교육연구단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리과학적 접근을 통하여 다차원적 해결방안과 인문학적·산업적·정책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함.

▷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해결방안 연구**

본 교육연구단은 심리·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개입 방안 연구(효율적 의사결정, 대처방식, 자기조절 등)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사회적 상호작용, 긍정심리학 등)를 통해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노력을 하였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우수추진사례 1. 박선웅 교수 ‘불안정 애착과 외도: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 연구:** 외도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외도의 시발점에 대한 이해는 부부관계에 가져오는 여러 부정적 상황들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부부가 외도로 인한 이혼을 경험하며, 외도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겪을 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 우울증, 그리고 높은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함. 해당 연구는 외도의 시발점을 이해함으로써 외도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부정적 상황들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에 부합하고 있음. 본 연구는 외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웰빙에 기여하고자 하며, 연구 결과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IF = 1.44)에 게재됨.
- ◆ **우수추진사례 2. 박선웅 교수 ‘내러티브를 통한 정체성 형성 평가’ 연구:** 해당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내러티브 코딩법을 보완하는 연구로, 정체성 형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내러티브 코딩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방법을 타당화 하였음. 내러티브 코딩 시스템 방법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정체성 연구를 통해 개인의 지속가능한 심리적 웰빙을 촉진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Current Psychology(IF = 2.387)에 게재됨.
- ◆ **우수추진사례 3. 양은주 교수 ‘진로 정체성 과정과 진로 목표 간의 종단적 연관성’ 연구:** 해당 연구는 진로발달의 과정과 내용이 서로 관련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진로 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이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요성을 지닌 연구이며, 연구 결과는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IF = 2.424)에 게재됨.
- ◆ **우수추진사례 4. 최기홍 교수 ‘머신러닝을 이용한 개인의 성격 예측’ 연구:** 해당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임상 현장에 대한 양적 분석법을 적용하고, 정신건강 및 심리학 분야의 임상경험 및 이론의 통합을 시도하였음.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건강 수준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 및 성격 기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해결방안을 도모하였으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라 판단됨. 연구 결과는 Frontiers in psychology에 등재되었음(IF = 4.232).
- ◆ **우수추진사례 5. 최기홍 교수 ‘국제결혼 이주 어머니의 사회인지 능력과 자녀의 사회인지 발달 간의 관계’ 연구:**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뿐만 아니라 해당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을 평가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아동의 정서인식능력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지 탐색하고자 함. 연구 결과는 Frontiers in Psychiatry(IF = 5.44)에 게재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부모 대상으로 정서인식능력 평가를 타당화 및 보편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러한 결과를 응용하여 보다 적절하고 접근성 높은 정서 교육 및 심리사회적 개입의 발판을 제공하고 심리서비스(심리평가 및 심리적 개입)에 대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문학적·산업적·정책적 지원**

본 교육연구단은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행된 연구 결과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산업 및 정책 관련 과학적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우수추진사례 1. 김채연 교수 ‘3D 형태의 복잡도와 색의 교차감각 연관성’ 연구:** 3D 형태의 복잡도와 색의 교차 감각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복잡도를 모수화하고 색을 세분화하여 연구하였으며, 관련 선행 연구들의 불일치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음. 기초 학문적 이해를 도모하는데서 나아가 브랜딩, 디자인, 마케팅 등 산업 현장에 이양 가능한 지식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Frontiers in Psychology*(IF = 4.232)에 게재됨.
- ◆ **우수추진사례 2. 성용준 교수 ‘AI가 수집하는 정보와 프라이버시 위협과 걱정 간의 상호작용’ 프로젝트:** 기업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프라이버시 위협과 걱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 인간 및 AI 에이전트에게 각각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때 위협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연구함. 연구 결과는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방식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윤리적인 소비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됨. 연구 결과는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IF = 6.135)에 게재됨.
- ◆ **우수추진사례 3. 성용준 교수 소비자 인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비의 제약 요인 추출과 구매, 사용, 폐기 행동 간의 관계’ 연구:** 해당 연구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관련한 제약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소비 단계와 제약 요인 간의 연관성을 살펴봄. 소비를 방해하고 제약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과 정부가 지속 가능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펼쳐야 하는 마케팅 전략과 정책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속 가능 소비를 위한 실무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음. BK 사업의 일환인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문학적·산업적·정책적 지원’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연구 결과이며, *소비문화연구*(IF = 1.32)에 게재됨.
- ◆ **우수추진사례 4. 허지원 교수 ‘성인여성의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콘텐츠 온라인 게시의 임상 및 심리사회적 요인’ 연구:**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및 낙인은 사회의 불균형에 일조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자해 콘텐츠를 포스팅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관중’으로 낙인 찍는 현상도 이와 관련이 있음. 본 연구는 자해 포스팅을 하는 이들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Computers in Human Behavior*(IF = 8.957)에 연구 결과를 게재함.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자해관련 포스팅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실제로 당사자가 임상적 고위험군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그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디어에서도 연구 결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관련 내용에 대해 기사를 보도함 (동아사이언스: “자해 게시물 SNS 계속 올리는 이들, 정신적 위협 신호” 외 6건 언론 보도)(<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2830>).
- ◆ **우수추진사례 5. 최은수 교수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해당 연구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018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 여성 직장인의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을 살펴보고, 우울 증상 예측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음. 성차별은 현대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의 한 측면이며, 여성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 증상까지 발현시킬 수 있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차별은 다양한 하위요인에 따라 여성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달랐으며, 연구팀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별 문제의 해소는 물론, 성차별 경험과 우울 간의 연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의의를 제시하였음. 연구 결과는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IF = 6.533)에 게재됨.

### 3. 참여교수의 연구의 국제화 현황

####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 3.1.1. 국제적 학술 활동

□ 심리학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국제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활동에서 나아가, 기존 연구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 초청 강연을 실시하여 본 교육사업단의 연구를 알리고 소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초청 강연 및 국제 학술대회 발표 활동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3-5> 국제 초청 강연 및 학술대회 발표 활동 목록

연번	교수명	주관기관	활동 내용
1	김학진	Shenzhen University	초청강연: "Hierarchical MPFC Function for Social Valuation" (2021년 11월 25일, 온라인 강연)
2	최은수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학술발표: "Role of coping strategies in maintaining well-being during COVID-19 outbreak in South Korea" (2022년 2월 18일, 심포지엄, 온라인 발표)
3	최은수	Regional Cultural Differences Conference	학술발표: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ensity, life history strategy, and state boredom in South Korea" (2022년 7월 19일, 학술발표, 스페인)

##### 3.1.2. 국제전문학술지 편집자 활동

□ 본 교육연구단 소속 교수들은 지난 1년간 6건의 국제저명학술지에서 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 김학진 교수

- Journal of Neuroscience, 부편집위원장

2) 박선웅 교수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편집위원

3) 성용준 교수

-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부편집위원장

- Journal of Advertising, 편집위원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ertising, 편집위원

4) 최기홍 교수

- Frontiers in Psychology: Quantitative Psychology and Measurement, 부편집위원장

##### 3.1.3. 최근 1년 간 국제 학술지 논문심사 및 국제 저술 활동

□ 본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교수들은 지난 1년간 국제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28편을 심사하였고 1권의 저술 활동이 있었습니다. 논문심사 및 저술 활동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영건 교수

- Current Psychology(IF=2.387), 3편

2) 김채연 교수

-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IF = 3.077), 1편
- Multisensory Research(IF = 2.352), 1편
- Psychonomic Bulletin & Review(IF = 4.412), 1편
- Symmetry-Basel (IF = 2.94), 1편

3) 김학진 교수

- Journal of Neuroscience(IF = 6.709), 1편
-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IF = 4.235), 1편
- Social Neuroscience(IF = 2.381), 1편
- Encyclopedia of Behavioral Neuroscience, 북채터 저술 (ISBN: 9780128196410, eISBN: 9780128216361)

4) 박선웅 교수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IF = 16.161), 1편
- Journal of Personality(IF = 5.429), 1편

5) 양은주 교수

- Asian Pacific Journal of Education(IF = 1.52), 1편
- Journal of Family Issues(IF = 1.831), 1편
- Current Psychology(IF = 2.387), 1편
-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IF = 2.424), 4편

6) 조양석 교수

- Attention Perception & Psychophysics(IF = 2.157), 2편
- Consciousness and Cognition(IF = 2.728), 1편
-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IF = 3.077), 2편
-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and Cognition(IF = 3.140), 1편

7) 허지원 교수

-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IF = 6.533), 1편
-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IF = 7.093), 1편
- Psychological Medicine(IF = 10.592), 1편

## 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 3-6>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김학진	Colin Holbrook	미국 /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Holbrook, C., Yoon, L., Fessler, D.M.T., Moser, C., Delgado, S.J., & Kim, H. (In press). Moral Parochialism and Causal Appraisal of Transgressive Harm in Seoul and Los Angeles, Scientific Reports.	In Press
2	김학진	Gewnhi Park	미국 / Westmont College, Santa Barbara	Park, G., Kim, H., Mermillod, M., & Thayer, J. F. (2021). The Modulation of Cardiac Vagal Tone on Attentional Orienting of Fair-Related Faces: Low HRV is Associated with Faster Attentional Engagement to Fair-Relevant Stimuli.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22, 229-243	<a href="https://doi.org/10.3758/s13415-021-00954-1">https://doi.org/10.3758/s13415-021-00954-1</a>
3	박선웅	Johnson, S. K.	미국 / Tufts University	Park, Y., Kim, S., Kim, G., Johnson, S. K., & Park, S. W. (in press). Testing a process-oriented model of identity development in South Korean young adults. Current Psychology.	In Press
4	양은주	Ling Jin	미국 /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tanford, CA	Ling Jin, Eunjoo Yang & Gabriel Zamudio (2022) Self-determined motivation, acculturation, academic burnout, and psychosocial well-being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35(1), 1-18	<a href="http://doi.org/10.1080/09515070.2021.1887084">http://doi.org/10.1080/09515070.2021.1887084</a>
5	조용상	Larry Zweifel	미국 / University of Washington	Fellinger, L., Jo, Y. S., Hunker, A. C., Soden, M. E., Elum, J., Juarez, B., & Zweifel, L. S. (2021). A midbrain dynorphin circuit promotes threat generalization. Current Biology, 31(19), 4388-4396.	<a href="https://doi.org/10.1016/j.cub.2021.07.047">https://doi.org/10.1016/j.cub.2021.07.047</a>
6	최기홍	Matthew M. Kurtz	미국 / Wesleyan University	Yeo, H., Yoon, S., Lee, J., Kurtz, M. M., & Choi, K. (2022).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cognitive training in schizophrenia: The role of treatment characteristics and study qualit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1), 37-57.	<a href="https://doi.org/10.1111/bjc.12320">doi.org/10.1111/bjc.12320</a>
7	최준식	Kim, N.-S.	미국 / Duke University	Park, E. H., Kim, N. S., Lee, Y. K., & Choi, J. S. (2022). N-Methyl-D-Aspartate (NMDA) Receptors in the Prelimbic Cortex Are Required for Short-and Long-Term Memory Formation in Trace Fear Conditioning. Life, 12(5), 672.	<a href="https://doi.org/10.3390/life12050672">https://doi.org/10.3390/life12050672</a>

## ③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 [초빙강연]

- 국제교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해외기관 소속의 석학 및 우수연구자를 초청하여 최신 연구 현황에 대한 강연을 듣고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함. 지난 1년간 일곱 명의 국제 석학을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였고(예: ‘Advancing Method to Quantify Clinical Phenotypes and Outcome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Neuromodulatory control of social engagement and anxiety’)(참조: 표 2-18. 국제 석학 초빙 강연 목록), 참여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의 세계적 식견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 주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함.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대학 및 연구소들과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표 3-7〉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연번	교수명	협력기관	협력 교수명	연구내용
1	김학진	Westmont College	Gewnhi Park	공정성과 주의집중에 관한 기초심리학적 기제 연구
2	김학진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Colin Holbrook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Moral Parochialism과 Transgressive Harm 차이에 대한 인과적 평가 연구
3	박선웅	Tufts University	Johnson, S. K.	정체성 발달의 5차원 프로세스 모델(Five-dimensional process-oriented model of identity development)의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4	양은주	Stanford University	Ling Jin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심리상태 연구
5	조용상	University of Washington	Larry Zweifel	중년 다이놀핀 회로와 공포감 조성 간의 연구
6	조양석	Arizona State University	배기열	반응 갈등으로 촉발되는 인지 통제와 정보처리 강화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upport vector machine 방법을 적용해 보는 연구
7	최기홍	Wesleyan University	Matthew M. Kurtz	조현병 환자를 위한 사회 인지적 훈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메타분석 연구
8	최준식	University of Washington	김은주	생태학적 동물모델을 활용한 공포 기억 및 정서 질환 연구 및 신경 활동의 기록과 분석을 위한 첨단 기술의 적용

※ 교육연구단 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요약본 또는 원본의 형태로 제출

별도 첨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교육역량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계획에 맞춰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데이터 과학원 수업 활용, 방법론 워크숍 개최, 통계방법 개인 컨설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높이는 노력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li> <li>- 다양한 국내외 연구그룹과의 교류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연구 및 교육 기회의 폭을 넓힌 점 또한 우수합니다.</li> <li>- 연차평가제도를 공식화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우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li> </ul>
연구역량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교수님들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발표된 연구논문의 양과 질, 연구비 수주실적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꾸준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산출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심리학부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li> <li>- 대학원생과 지도교수님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의 비중이 높고 해당 논문들이 양과 질에 있어서 우수하다는 점은,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단의 역량을 잘 나타낸다고 봅니다.</li> <li>- 남기춘 교수, 최기홍 교수의 연구 성과와 같이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산출물을 생산하였다는 점 또한 심리학 연구단으로서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li> </ul>
종합의견 및 제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프로그램, 연구 역량, 타 기관과의 교류, 사회적 기여 등 모든 부분에서 타 심리학과와 비교되는 심리학부, 연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개선할 점이 보이지는 않습지만, 보다 경쟁력 있는 학부/연구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li> <li>- 국내 최초의 심리학부로서 문학박사와 이학박사를 수여할 수 있다는 점은 심리과학의 학문 특성을 반영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공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인지과학 관련 전공과정이 이공계대학에서 신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학부/연구단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이공계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공계학생과 인문계학생이 한 학부에서 교류할 때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li> <li>- 국외 타 대학 벤치마킹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량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한다면 본 연구단의 장/단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점은 1차년도 평가에서도 제안드린 바입니다.</li> <li>- 대학원생에 대한 피드백을 연차평가제도로 공식 제도화 했듯이 대학원생 진로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심리학부는 학생들에게 선호되는 전공입니다만, 졸업 후</li> </ul>

평가항목	평가내용
	진로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고의 심리학부로서 대학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지도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제도를 제안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2022년 9 월 29 일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부교수 권오상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	평가내용
교육역량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심리과학 교육을 추구하는 연구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됨.</li> <li>● 연구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학사 관리를 개편하고 교과프로그램을 신설했다는 점과 대학원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는 점이 인상적임.</li> <li>● 실문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심리융합과학 대학원을 설립하고 별도의 실문전문가 트랙을 운영한다는 점이 인상적임.</li> <li>● 또한 연구단의 성과를 일반 대중과 공유하려는 다양한 교육/확산 활동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li> </ul>
연구역량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단 참여 교수단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li> <li>● 다양한 형태의 융합연구를 시도하고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li> <li>● 참여 교수진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특히, 대학원생들을 위한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임.</li> <li>● 국내 교수진의 탁월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협업 네트워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ul>
종합의견 및 제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단은 연구와 교육 측면 모두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li> <li>● 지난 3년간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들의 체계와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형성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구단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와 지원이 필요함.</li> <li>● 단, 연구단의 평가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연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사이의 유기적 연결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li>●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li> </ul>

2022년 9 월 24일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나진경 (서명 또는 인)



## IV

##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내용
교육역량 부문	<p>대학원의 교육역량 향상을 위한 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융합 연구의 수의 증대와 융합적 교과 프로그램의 개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융합적 문제 해결형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하는 연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p>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평가할 수 있는 환류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p> <p>대학원생의 needs를 반영한 새로운 교과과목 개설과 더불어 이러한 교과를 강의할 수 있는 교육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함.</p>
연구역량 부문	<p>사업단 참여 교원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는 양적/질적으로 우수함.</p> <p>대학원생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사업단의 노력이 돋보임.</p> <p>질적인 성과가 단순히 저널의 IF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p> <p>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연구 공간 확보 및 연구 교수에 대한 지원).</p> <p>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사업단의 연구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필요.</p>
종합의견 및 제안점	<p>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원생을 융합적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키우고자 하는 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p> <p>또한 대학원생들의 연구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 중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p> <p>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성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알아봐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 같음.</p>

2022년 9월 28일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조양석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최준식

2022년도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팀)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연번	유형명	사업분야	지원분야	단(팀)	지역구분	대학명	교육연구단(팀)장	교육연구단(팀)명	구분	언론사명/수상기관 등	보도일자/수상일자 등	제목/수상명 등	관련 URL	주요내용
1									행사	유튜브 채널 한국심리학회 KPA	10/29/2021	[방구석심리톡]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존감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법!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jGf3i0WQf0">https://www.youtube.com/watch?v=jGf3i0WQf0</a>	자존감을 주제로 자존감에 대한 여러가지 통찰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제시함.
2									성과	한겨레	11/22/2021	고려대학교 다양성교육	1.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0356.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0356.html</a> 2.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0356.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0356.html</a>	사업단 김재연교수는 2021년 3월부터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중임. 기간 중 다양성교육 활동 관련하여 한겨레신문 기획기사로 보도됨.
3									행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2/3/2021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을 위한 세 가지 시선	<a href="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618">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618</a>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한국에서 자살이 일어나는 이유를 밝히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언함.
4									행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2/9/2021	자녀와의 공감의 기술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057#home">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057#home</a>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관계에 대한 조언을 주는 내용의 강연.
5									수상	웰페어뉴스 외 2건	12/20/2021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의 재해석' 논문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a href="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9811">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9811</a>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의 재해석 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함.
6									성과	스포츠한국 외 2건	1/18/2022 1/24/2022	국립수목원, 정월활동 치유 효과 검증	1. <a href="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50">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50</a> 2. <a href="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b=12802">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b=12802</a> 3. <a href="http://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618">http://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618</a>	국립수목원은 11개 기관이 주관한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음. 연구 결과, 지속적인 정원활동이 사회적 약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사업의 결과는 녹지 공간이 도시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립수목원 및 산림청은 추가적인 연구를 계획중임. 추후 표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정원 프로그램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7									수상	뉴스시 외 3건	1/25/2022	커먼즈 어워드 수상	<a h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125_0001736584&amp;cId=10201&amp;pId=102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125_0001736584&amp;cId=10201&amp;pId=10200</a>	사업단 김재연교수는 2021년 3월부터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중임. 기간 중 사업단인 코드에서 2022년 커먼즈어워드 '다양성' 부문 수상자로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를 선정하여, 김재연교수가 대표 수상하였음. 해당 수상이 언론 보도됨.
8									성과	파이낸셜뉴스	2/8/2022	고려대 최은수 교수팀, 국내 최초 '마스크가 얼굴 표정에 미치는 영향' 논문 발표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20208111301850">https://www.fnnews.com/news/20220208111301850</a>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표정읽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공개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되었으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 되었음. 마스크 착용으로 발생한 표정 인식 오해의 매커니즘을 밝혔다는 평가를 받았음.
9									성과	한국일보 외 11건	2/21/2022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 - 인간의 선량함,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뇌과학자의 질문 (개정증보판, 2022년 1월 24일 발간)	<a href="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226">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226</a>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2314490680460">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2314490680460</a> <a href="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043">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043</a>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203131900005?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20203131900005?input=1195m</a> <a href="http://ch.yes24.com/Article/View/47042">http://ch.yes24.com/Article/View/47042</a>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811180004553?cid=NA">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811180004553?cid=NA</a>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1006164931267">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1006164931267</a> <a href="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5064">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5064</a> <a href="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mp;cCode=116&amp;artid=202202041548101">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mp;cCode=116&amp;artid=202202041548101</a> <a href="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328">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328</a> <a href="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029">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029</a>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20204511509?OutUrl=naver">https://www.segye.com/news/view/20220204511509?OutUrl=naver</a>	김학진 교수의 저서인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 - 인간의 선량함,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뇌과학자의 질문 (개정증보판, 2022년 1월 24일)' 발간에 대한 소개가 언론에 보도됨. 이 책은 인간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심리적 동기의 근원에는 타인의 호감이나 인정을 얻고자 하는 '보상 추구 동기'가 있으며, 공감과 공정성처럼 인간의 따뜻한 본성이려 여겨온 심리 또한 뇌의 '생존 전략'과 연결되어 설명함.
10									기타	동아비즈니스리뷰	3/01/2022	'대체 불가능한 CEO는 없다' 독립이사제, 심리평가 도입해야	<a href="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10380/ac/magazine">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10380/ac/magazine</a>	본 리포트에서는 CEO 리스크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소개한 후 그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심리학적 방법을 소개하였다.
11	미래인재양성사업	사회과학	심리/아동/소비자	단	전국	고려대학교	김학진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리과학 교육연구단	행사	내일신문	3/3/2022	'심리과학과 ICT 융합을 통한 노년 삶의 질 증진' 심포지엄	<a h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5902">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5902</a>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사업단(연구책임자: 최기홍 교수)은 '심리과학과 ICT 융합을 통한 노년 삶의 질 증진'이라는 주제로 하이브리드 방식의 심포지엄을 1월에 개최함. 심포지엄에서는 'ICT 기반 노년기 활력 지수와 노년 활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융합 과정의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함. 이번 심포지엄은 융합연구팀 간 성과를 공유하고 융합 네트워크의 확산을 이뤄 융합연구팀 간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2									성과	동아시아인스 외 6건	3/8/2022	자해 게시물 SNS 계속 올리는 이들, 정신적 위험 신호	<a href="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2830">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2830</a>	'표면 그 아래: 젊은 성인여성의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콘텐츠 온라인 게시의 임상 및 심리사회적 요인 Beneath the surface: Clinical and psychosocial correlates of posting nonsuicidal self-injury content online among female young adults'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실린 기사가 보도됨.

2022년도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팀)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연번	유형명	사업분야	지원분야	단(팀)	지역구분	대학명	교육연구단(팀)장	교육연구단(팀)명	구분	언론사명/수상기관 등	보도일자/수상일자 등	제목/수상명 등	관련 URL	주요내용
13	행사								행사	경기신문 외 1건	3/14/2022	인천경제청, 19일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위한 뇌과학' 주제 특별강연회	[출처] 경기신문 ( <a href="https://www.kgnews.co.kr">https://www.kgnews.co.kr</a>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뇌연구협회·한국뇌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뇌과학이란 주제로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고려대학교 허지원 교수님은 고려대 허지원 교수의 '엔택트 시대의 우울증과 뇌' 등의 주제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언론이 보도됨.
14	행사								행사	다음이 온다	3/17/2022	격자의 시대 1부	<a href="https://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amp;sname=mylovekbs&amp;stype=blog&amp;contents_id=70000000397584&amp;section_id=7200">https://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amp;sname=mylovekbs&amp;stype=blog&amp;contents_id=70000000397584&amp;section_id=7200</a>	한국 사회의 관계주의를 설명하여 한국 사회의 갈등을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연을 함.
15	성과								성과	한국강사신문	3/25/2022	[강사의 서재] "마음의 겨울을 보내고 내 안의 봄을 맞이하기" 허지원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a href="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96">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96</a>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최신 개정판 출간에 대한 기사로 책에 대한 소개 및 허지원 교수의 학문적 성과 및 이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6	기타								기타	헬스조선 뉴스	4/15/2022	"오명영 육아법, 왜 우리 아이에게 안 맞을까?"	<a href="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2041501240">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2041501240</a>	심리 조언 예능이 인기 있는 요즘, 가정에서 tv에 나온 조언을 따라 해봐도 효과가 미미하거나 도리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사에 허지원 교수가 부모와 육아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됨
17	행사								행사	월간중앙	4/17/2022	뇌과학자 김학진이 말하는 공정의 신경학적 기제	<a href="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5899">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5899</a>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설명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함. 불공정함은 신체 항상성 불균형 발생 신호. MZ세대가 공정에 민감한 이유 "집단주의에 대한 저항", 개인이 이기적일수록 이타적 사회가 된다는 역설 등의 주제를 설명함.
18	행사								행사	동아일보	4/20/2022	정신건강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정신건강 대전환기, 우리 사회의 길을 묻다]	<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0/112981521/1">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0/112981521/1</a>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정신 건강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기고문.
19	기타								기타	경향신문	4/24/2022	협업플, 자율과 통제: 경계는 어디쯤일까	<a href="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41039001">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41039001</a>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에 활용되는 협업플의 장단점에 관한 인터뷰에서, 종으로 수업을 할 때 남도 나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함.
20	행사								행사	한국강사신문 외 9건	4/29/2022	통영국제음악제 토크콘서트 개최	<a href="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13">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13</a>	김재연 교수는 'Vision in Diversity'를 주제로 한 통영국제음악제 중 'A Diverse Harmony'라는 제목의 학술행사를 기획, 개최하고 진행과 대담을 담당하였음. 본 행사는 우리 사회의 '심리/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에 있어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주제로 하여, 학교를 넘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한 우수 교육 실적임.
21	행사								행사	유퀴즈 온더블럭	5/25/2022	OO의 비밀 특집	<a href="http://tvn.tving.com/tvn/VOD/View/VOD/EA_167777">http://tvn.tving.com/tvn/VOD/View/VOD/EA_167777</a>	방송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하여 한국인의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심리에 대해 강연함.
22	기타								기타	아리랑 TV	6/22/2022	What is the truth of Korea's population collapse	<a href="http://www.arirang.com/Player/Vod_Play.asp?MKey=9aH13Zp4">http://www.arirang.com/Player/Vod_Play.asp?MKey=9aH13Zp4</a>	대한민국 인구 붕괴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현 젊은 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그 이유, 그리고 출산율 감소와 관련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방영됨.
23	성과								성과	베리타스 알바 외 3건	6/27/2022	고려대 허지원 교수 연구팀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해 위험성에 기여하는 양상' 규명	<a href="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953">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953</a>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해 위험성에 기여하는 양상을 규명한 연구결과는 국제전문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에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되었으며, 본 연구결과가 실린 기사가 보도됨.
24	행사								행사	세종시교육청 교육원	6/28/2022	교육회복, 일상을 찾아서	<a href="http://www.jamill.kr/news/articleView.html?idxno=288348">http://www.jamill.kr/news/articleView.html?idxno=288348</a>	자신과 타인의 심리를 들여다 보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강연.
25	행사								행사	양산상의	7/6/2022	위기를 뛰어넘는 힘	<a href="http://www.ysnews.co.kr/news/view.php?idx=90635">http://www.ysnews.co.kr/news/view.php?idx=90635</a>	코로나로 발생한 어려운 시기에,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한 강연.
26	행사								행사	양산상공회의소	7/27/2022	대한민국을 만드는 리더의 마음	<a href="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235">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235</a>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많은 변화를 경험한 한국에서기업 CEO들이 가취야할 덕목들에 대한 강연.